



1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 1 호

(루계 제 627 호)

♦♦♦♦♦♦♦♦♦♦ 차 례 ♦♦♦♦♦♦♦♦♦♦

2천년대가 왔다 모두다 태양민족문학건설에로!.....	4
우리의 군대가 강군인것은.....	5
경축	6
설명절날에도.....	7
추억과 희망의 달에	8
명언해설	9
하늘재	10
충성의 불꽃들	12
환호하노라 2천년이여	13
첫 출근길의 아침에	14
영원한 복무.....	15
조국이여, 번개쳐나가자!	22
조선사람들	23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노래	33
나의 아버지	33
2천년대의 명작창작을 선도하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34
세기와 나	36

새별	38
나의 공장	38
언어생활과 성구	39
마음의 로화를 막자면	41
《OK》의 유래	41
천세봉의 인간상과 소설세계를 더듬어	42
병사여 얼굴을 들라	51
오후5시	52
시간에 대한 생각	61
한생의 초여름에	62
사랑과 증오	75

2천년대가 왔다 모두다 태양민족문학건설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새 아침, 2천년대의 역사적인 새 해가 밝았다. 세기의 력마루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 작가들의 감회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아, 얼마나 격동과 환희, 시련과 아픔, 고뇌와 교훈의 소용돌이속에서 1900년대를 보냈는가.

세계가 시련의 고비와 난파도의 휘말림 속에 허우적거리며 암담한 밤길에서 헤매이며 려명의 빛을 그리고있을 때 자랑하자, 오직 우리 **김일성**민족만이 새 세기의 광휘로운 태양을 모시고 새해를 맞는다. 태양민족의 자부와 영예 끝이 없다.

우리 작가들은 태양의 위성작가이며 태양민족문학의 창조자이다. 태양민족문학은 위대한 령도자의 문학, 강성대국의 문학이며 주체의 인간학이다. 돌이켜보면 인류는 태양을 숭배하며 진화발전하여 왔다. 남아메리카에 있던 최초의 인디안국가였던 인카제국의 최고신도 태양이었다. 허나 그들이 그토록 숭배한 하늘의 태양은 육체적생명유지에 필요한 열과 빛을 주어도 따뜻한 인간사랑을 주고 인간운명의 길을 밝혀주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인카제국의 운명은 종시 한세기반도 넘기지 못하고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멸망하고말았다. 인류력사 백만년의 갈피마다에 태양을 그리며 모대기고 피흘리며 처절한 운명의 비운속에 사라져간 민족의 수난사가 얼마나 눈물겹게 젖어있는가. 인류문학은 이 수난의 운명사를 피로 적으며 많은 형상의 재보를 유산으로 남겼다.

우리 되새겨보자. 단군조선의 후손들인 우리 민족도 얼마나 태양을 그리며 반만년을 이어왔고 민족문학의 년륜에 이러한 념원을 새기여왔던가.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20세기만을 돌이켜보자.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사대대국행위로 인하여 쇠퇴해가던 조선이 조선봉건왕조말엽인 20세기초엽에 이르러 마침내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어 《시일야방성대곡》이 강토를 적시고 오욕의 《국치일가》를 불려야 했던 민족문학, 울밑에 선 봉선화에 자기 운명을 비껴보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울분을 터치며 비가를 엮어야 했던 조선이었다. 하면서도 봄의 선구자 《진달래》에 넋을 담아보고 창공을 날아에는 《산제비》에 랑만을 실어보기도 하면서 사랑과 운명의 빛을 주는 태양을 그려보았으니 장편소설 《고향》의 희준이나 《황혼》의 준식들이 사람들을 계몽하고 각각시키려고 고군분투한 그 모든 생활의 열원은 오직 참다운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삶의 빛에 대한 바람이었다.

시대와 인류가 지향하고 민족과 겨레가 념원하던

그 모든것이 차례지는 최대의 특전을 우리 문학이 누리게 되었으니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모시여 드디어 태양문학의 시원을 맞아 주체사실주의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문학의 혁명전통이 마련되고 자주시대문학의 휘황한 진로인 주체의 인간학이 태동하여 시대를 반영하게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뿌리로 하여 불멸의 첫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서 주체사실주의문학, 태양문학의 가장 성스러운 창조의 길을 탐구개척한 우리 문학은 조국해방의 해돋이를 맞이하여 활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참다운 인류문학의 기치로되어 세기의 창공놀이 나래치게 되었다.

하여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주의 새 조선의 《위대한 태양》으로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에서 칭송하여 온 세상을 진감시켰고 20세기 인류의 태양을 드높이 노래하고 형상하였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에 의해서만 빛나게 계승되며 태양문학은 태양위업의 계승속에서만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우리 민족문학은 태양위업계승의 위대한 향도의 태양,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동지를 맞이하여 태양민족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운명이며 래양입니다. 오늘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전진하고 그의 세련된 령도밑에 김정일조선으로 룡성번영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문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문학의 만년재보인 불멸의 혁명전통을 뿌리로 하여, 주체사실주의문학의 기본인 수령형상문학을 주류로 하여 문학의 모든 형태가 다채롭게 발전하여 일대 전성기를 이루고있다. 세기의 력마루에서 돌이켜보면 사회주의민족문학의 무성한 숲이 우뚝이 안겨와 가슴뿌듯한 긍지감을 금할수 없다.

자주의 새 력사적항로에 첫 닻을 올린 20세기의 그 아득한 기슭에서부터 태양민족문학은 힘차게 전진하여 2천년대에 들어섰다. 우리 민족문학은 이제 새로운 령장을 갖추고 보람찬 진군길을 가야한다.

작가들이여!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우리르며 준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강성대국으로 내려쳐

가는 태양민족의 모습을 보라. 이 위대한 태양조국의 모습에 주체문학의 서정과 주인공들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으며 이 위대한 현실이 새 세기 문학창작의 길로 작가들을 부르고있다. 모두다 강성대국, 태양민족의 문학, 2천년의 명작을 창작하기 위한 세기의 진군길에 신심드높이 들어서자.

강성대국문학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주시는 문학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를 투철히 구현하는 여기에 2천년대 명작창작의 근본비결이 있다. 강성대국의 운명이시고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 태양의 뜻을 모든 창작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을 트림없는 창작적신조로 삼을 때 우리는 치달아오른 20세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주체사실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지켜들어야 한다. 오직 주체사실주의기치를 변함없이 튼튼히 고수할 때만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새 세기에도 태양민족 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문학은 수령을 형상하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강성대국건설 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모두 백두산3대 장군의 위인상을 최상의 사상에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는것을 최대의 성스러운 임무로 자각하고 수령형상문학창작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자.

우리 작가들은 세기를 대표하는 시대의 전형, 우리 시대 인간의 거인적형상을 창조하여 창공높이 우뚝 세워놓아야 한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김일성민족의 시조를 모시고 파란만장의 20세기 가시덤불길을 헤쳐 새 세기를 빛내이는 도약대를 마련한 시대의 영웅적주인공들을 태양민족문학의

형상세계에서 빛나는 군상으로 아로새겨지게 하자.

우리는 2천년대에 우리 문학의 모든 형태를 다채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평론 등 문학의 모든 형태가 전반적으로 비약하여야 하며 그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한다. 하여 인류문학예술발전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주체의 인간학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새 세기의 시대적 요구와 지향을 안고 태양민족문학의 높이에서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위대한 태양의 자애로운 빛발이 이 땅, 이 하늘을 짝 채우고 그 해빛을 받아 강성대국의 모습이 부각되는 우리의 벽차고 장엄한 현실이야말로 명작창작의 비옥하고 풍만한 대지이며 형상의 저수지이다. 태양의 위대함과 은혜로움이 한껏 빛발쳐 사람마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에로 전진해가는 현실속에서 시대의 주인공들과 함께 호흡하고 발걸음을 같이해나가야 한다.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긍정과 옹호의 정신, 시대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생활에 대한 작가의 포옹이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현실은 심장을 터놓고 자기의 《비밀》을 귀뜸해주며 창작으로 떠밀어줄것이다. 모두다 새해의 장엄한 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전진하는 현실속에 들어가자. 하여 태양의 빛발따라 만년을 뚫고 도도히 굽이쳐가는 주체조선의 모습을 한껏 구가하자. 조선의 장한 딸 정성옥선수가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줄기차게 달려 세계 《마라손녀왕》이 된것처럼 우리 모두 태양을 우러르며 2천년대 인류문학예술에서 단연 최정상에 오른 문학을 창작하자. 주체사실주의가 온 세계를 진감하게 하자.

가사

우리의 군대가 강군인것은

최로사

우리의 군대가 강군인것은
장군님 품속에서 자랐기때문
위대한 령장이자 어버이여서
그 사랑이 천만장수 키워냈다네

우리의 군대가 무적인것은
장군님을 그대로 닮았기때문
지략도 담력도 억센 의지도
그이를 따라배워 당할자 없네

우리의 군대가 불패인것은
장군님과 혼연일체 이뤘기때문
죽어서도 지키려는 혁명의리로
전군이 결사옹위 준비되었네

아 우리의 군대가 강군인것은
김정일장군님의 군대기때문

경축

김영길

설날입니다

동녘에 등실 솟은 저 해를

2천년대 첫아침의 축등으로 띄워놓고

설경속에 비낀 이채로운 쌍무지개를

맹기로 날리며 맞는

이 설날

해빛은 눈꽃에 아롱지며

그 무엇을 경축하여 꽃보라 뿌려줍니까

철색은 오리오리 드리우며

그 무슨 축원을 수놓습니까

그 자옥입니다

그 생애입니다

세월넘어 간직할 인민의 마음담아

이 아침 흰눈이 따뜻이도 감싸덮은

장군님의 거룩한 자옥자옥

고난을 헤쳐가신 흔적입니다

신념을 새기신 증표입니다

세기의 마지막언덕을

구보행군의 결승선으로 앞장서 넘으시며

이 땅 북변의 첫기슭에서

멀고 험한 최전연 끝까지

끝없이 오고가신 그 자옥자옥

대홍단등판이라

차강땅의 구석진 풀이라

차디찬 흰눈우에 찍으신 자옥자옥은

조국위해 헌신한 날과 달들입니다

천만리 전선길 그 어디메랴

위태로운 천길낭끝

진흙탕물 튀기는 고지길에 새기신 자옥자옥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며 바치신

휴식일과 명절입니다

쉬임없는 그 로고

찾지 않는 그 열정

장군님의 온 생애가 비껴흐르는 길우에

락원의 행군대오가 서렬을 늘입니다

풍요로이 설레이는 감자꽃바다

행복을 읊조리는 산천의 발전소

불멸할 자옥으로 다져진 길을 따라

강성부흥의 대통로는 열리고

사회주의성새는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조국의 방선천리엔

총폭탄의 우뢰성을 품은

결사옹위의 철옹성이 솟아 번쩍거립니다

오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껴안은 마음입니다

위대한 선군혁명명령도의 그 자옥자옥이 빛나

조국의 세월은 천년만년으로 이어지고

인민의 삶도 행복도 꽃피어나는것 아닙니까

눈은 녹아 사라져도

마음속에 별처럼 지워지지 않을

끝없는 로고와 심혈의 그 자옥자옥우에

새 세기의 태양을 받든

2천년대의 경사로운 첫아침

이 설날이 밝아왔거니

인민은 경축합니다

목메여 축원합니다

저 하늘의 태양을 영원한 축등으로 띄워놓고

설경속의 무지개를 맹기로 드러놓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설명절날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84(1995)년 설날아침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이 다 휴식을 즐기던 그 설날아침에도 몸소 한 인민군구분대를 현지도하시였다.

이 구분대로 말하면 20여년전 구분대의 훈련장을 찾으시여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곳이였다.

오전 9시 30분, 초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군인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면서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새해를 축하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박술 우거진 고지의 초소를 둘러보시며 진지들을 잘 꾸린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당백으로 튼튼히 준비된 구분대군인들의 훈련모습도 친히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번개같은 동작으로 훈련을 한 군인들을 축하하시여 박수를 보내주시며 매 병사들의 동작이 민첩하고 정확하다고, 훈련을 아주 잘한다고, 구분대가 전투적기백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무적의 장군을 가지고있는것은 **김일성** 민족의 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군인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기 위해 교양실과 병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교양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직관선전을 잘하려면 종이와 색감을 늘 넉넉히 준비해두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그 정형을 친히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김일성** 저작집》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수령님의 회고록, 덕성실기 등을 군인들이 많이 읽도록 하는것은 아주 좋은 교양방법이라고 치하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였다.

이윽고 걸음을 옮기시여 병실에 이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매일 무기소제를 하면서 기

름을 다루기때문에 비누가 모자랄것 같다고 하시며 그 공급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비누를 더 공급할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이르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신듯 무엇인가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곳 군인들이 늘 기름을 다루다나니 손수건과 세수수건도 모자랄것 같은데 그것도 더 공급해야 한다고, 치약도 가루봉지는 터지기 쉬우니 짜는것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병사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아버지의 세심한 사랑을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부대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이 나의 걱정을 덜어준다고 하면서 군인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다 말하지않고 좋다고만 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내가 군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문제를 세우고 걸린 문제를 풀어줄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구분대를 찾아온 목적의 하나가 군인들의 생활을 알고 풀어주자는데 있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날저녁이였다.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설명절에 기본전투단위인 구분대에 내려가 함께 명절을 쇠면서 군인들을 축하하여주고 돌아오니 더없이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흠뻑새도 말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입니다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설명절날저녁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깊은 말씀을 듣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러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려고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 걱정속에 잠기였다. 언제나 지휘관들이 군인들속에 들어가 같이 생활하면서 가마마차에서 지은 밥을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생활을 살뜰히 보살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실천활동으로 일군들을 일깨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군군인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위대한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추억과 희망의 달에

정월이 왔다.

희망찬 새해를 축복하는것인가 태양은 푸른 하늘에서 빛을 뿌리고 강성대국건설의 돌격전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새해의 첫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한 앞날에 대한 희망이 한껏 어려있다.

추억과 희망의 달-정월

위대한 장군님 마련하여주신 혁명의 준마를 타고 구보로 내달리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영광의 자욱을 아로새겨온 지난 한해를 자랑스러이 돌이켜보며 보다 큰 번영과 비약이 약속되어있는 밝은 앞날, 새해를 희망에 넘쳐 바라보는 이 시각 우리의 가슴 한없이 뜨거워진다.

해와 해가 손을 맞잡고 년대와 년대가 인사를 나누는 올해의 정월, 너는 세월의 흐름을 타고 찾아온 달이던가.

아니, 정월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며 순간의 휴식도 잊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크나큰 로고 속에 밝아온 이 땅의 한해가 시작되는 달이거늘.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로고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며 온 한해를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보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키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이 따로없이 헌신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실 원대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를 과학의 해로 정해주시고 첫 현지지도로 1월 11일 과학원을 찾아주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조국의 부흥발전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커다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어 3월 7일에는 과학원 합흥분원을 찾으시여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전력공업을 추켜세우시기 위해 1월에 태천수력발

전종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장자강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 각지의 중소형발전소들을 쉬임없이 찾으시여 전력생산을 늘이고 전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웅대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인 농업생산을 추켜세워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여 대대로 물려오던 폐기밭들과 다락논들을 없애버리고 일방무제하게 펼쳐진 대평야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대흥단과 자강도, 강원도의 여러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감자농사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시켜주시려 여러가지 농기계들도 보내주시고 안개낀 이른새벽 논두렁에 서시여 트랙토르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며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는 트랙토르 형태도 선정해주신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기 위해 한평생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이 땅에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우리 장군님 걸으신 길은 또 그 얼마였던가.

새로 확장된 송암명기소목장, 라효진동무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의 양어장, 새로 건설된 가금목장, 차주현동무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의 양어장...

함경남도과 함경북도, 자강도의 여러 공장들을 몸소 찾으시여 생산을 추켜세울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온 한해를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농촌을 찾으시는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보내신 우리 장군님.

그 길우에는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었으니.

지난해 2월 16일은 음력설이였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과 음력설이 겹친 이 기쁜날 즐거운 휴식으로 하루를 보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바랐다.

하건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찬눈길을 헤치시며 조선인민군 제991군부대관하 2중3대혁명붉은기 녀성고사총중대를 시찰하시오 이어 조선인민군 제682군부대 군인들의 동기훈련을 보아주시였으니.

이 소식을 듣는 우리 인민모두는 조국과 혁명, 인

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와 뜨거운 걱정과 눈물을 삼키었다.

정녕 지난 한해 주체88(1999)년의 365일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헌신의 365일, 불면불휴의 로고의 365일이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구보행군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로고가 있어 우리 조국은 지난해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의 큰걸음을 내짚었고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주체적인 제철법 산소열법 용광로의 조업, 주사식전자현미경의 개발, 강원도 토지정리의 완성과 평안북도의 토지정리 힘있게 추진, 안주지구 석탄 지하가스화공사 완공, 광명성제염소 조업, 대구모수력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 각지에 일떠서 실질적으로 덕을 입고있는 중소형발전소들, 공장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생산정상화의 힘찬 동음...

이 자랑찬 성과들마다에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가 깃들어있나니.

거기에 깃든 수백수천가지 사연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최전연의 전방초소들에까지 나가시며 전선에서 전선으로 이어가신 현지시찰의 길은 얼마이며 맵쥔

추위와 사나운 눈보라, 찌는듯한 무더위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공장, 기업소, 협동별은 또 그얼마이던가. 그 길우에서 보내신 명절날과 일요일은 또 얼마이던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그 령도따라 우리 조국은 고난을 박차고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나아가고있으며 그 장엄한 기상은 세인을 경탄시키고 원썩들을 전몰케 하고있다.

크나큰 자량과 긍지를 안고 맞이한 이해에 우리는 또 얼마나 멀리 전진할것인가.

올해 주체89(2000)년은 20세기의 마지막해이다.

한세기를 총화짓는 이해에 우리 인민은 지난날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만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갈것이니.

우리 인민은 세기의 령마루에 우뚝 솟아 세계를 굽어보며 그 위용 떨치는 주체의 강성대국, 우리 조국의 모습을 확신에 넘쳐 내다보고있다.

새로운 비약과 번영, 부흥의 해 주체89(2000)년 이여!

힘차게 전진하자, 질풍같이 구보로 내달리자, 나의 조국이여!

본사기자

명언해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건국의 어버이이시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며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다. 하지만 우리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독창적으로 밝히시

였으며 이 땅우에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조선민족제일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게 되였다.

문경새재는 피산군 영풍면과 문경시 경계에 있는 령길인데 일명 조령이라고도 부른다.

조령은 《새도 날아넘기 힘든 높은 령》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새재는 죽령과 문경고개 사이 소백산줄기에 있는 매우 높은 령으로서 예로부터 여기에는 경상도 상주에서 충주를 거쳐 서울로 가는 관문이 설치되어있었다.

문경새재는 세나라시기 고구려와 신라가 대치한 군사요충지로서 고구려의 온달장군이 싸우던 곳이고 신라가 망하고 왕건에 의한 고려통일이 실현된 매우 유서깊은 곳이라고 한다.

하늘재는 바로 이 문경새재의 구새재, 큰새재, 작은새재와 함께 이 령의 네 고개중의 하나이다.

하늘재아래 수안보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이 어려있는 뜻깊은 고장이다.

월악산입구 미륵리에서 경북의 문경으로 넘어가는 수안보의 하늘재에는 예로부터 많은 전설들이 깃들어있다.

옛 전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가지가지 전설들이 전해지는 이고장에 근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새로운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전쟁이 일기전 변춘란할머니는 지름재아래 석문동에서 주막을 차려놓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봄날, 문경장에 가느라고 하늘재를 넘던 할머니는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가던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리어다.

수천마리의 아름다운 새무리가 하늘재의 숲속에 나타나 여기저기 날아며며 고운 소리로 지저귀는 것이었다.

《웬 새들일까?》

그때 한창나이여서 호기심이 부쩍 동한 할머니는 장에 가는것도 까맣게 잊고 아름다운 새들이 저마끔 고운 소리로 지저귀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뿐아니라 령을 넘던 다른 사람들도 숲속에 들어가 새무리를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필시 우리 온천리에 상서로운 일이 생길 징조요. 예로부터 하늘재에 신기한 조짐이 나타나면 길한 일이 있다고 하였은즉 틀림없이 경사가 있을 것이요.》

나이지숙한 한사람이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새무리는 그후에도 며칠동안 하늘재를 떠나지 않고 분주히 날아였다.

그런데 그해 여름 6월에 전쟁이 터졌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고있던 온천리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미천한 사람들이 많이 리용하는 조령엔 눈물도 많고 사연도 많아 하늘처럼 높은 《천티》요, 한이 많은 《한티》라고 불려왔다. 그러니 여기에 그 무슨 상서로운 일이 생기겠는가?

한숨소리에 문풍지가 울고 눈물에 토방이 마를줄 모른다는 고장이니 마을사람들은 불행을 그저 자기의 숙명으로 감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해 8월초 온천리에는 큰 경사가 생겼다.

하늘재를 넘어 인민군대가 령남으로 진격해가던 어느날, 민중을 제일 사랑하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고개아래 온천리의 수안보에 찾아오신 것이었다.

《아,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우리 마을에 하늘이 낸 장군님을 모시다니.》 사람들은 령마루를 올라다보며 하늘재의 령험을 새삼스레 느꼈다.

주석님을 맞이한 수안보사람들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마을은 경사로 설레었다. 농민들은 주석님께 대접하려고 떡도 빚고 국수도 누르면서 명절분위기에 휩싸였고 아이들은 그이를 뵈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돌아갔다.

령너머에서는 놈들의 포소리가 쿵쿵 울리고 미군 비행기가 갈가마귀떼마냥 산밑을 낮게 떠서 살살이 뒤흔으며 지랄발광을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시자 갑자기 눈이 멀어졌는지 도망치면서 췌버린 저들의 마사진 땅크에 포탄을 마구 퍼부어댔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축지법 쓰시는 김일성장군님이 조화를 부리신다고 생각하였다.

주석님께서서는 놈들의 비행기를 올려다보시더니 태연히 인민군군인들이 든 마을농가들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변춘란할머니의 집에도 들리시었다.

주석님께서서는 집안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생활형편도 료해하시고 부엌세간까지 봐주시면서 살림을 걱정해주시었다.

한 농가에 들리시여서는 고추장맛까지 보아주시고 참 맛있게 담그었다고 치하해주시며 앞으로의 생활도 의논해주시었다. 토지개혁을 하면 농민들이 땅의 주인이 되어 모두가 잘살게 된다고 하시면서 아이들도 월사금을 모르고 공부시키고 병이 나도 무상으로 치료받는 인민의 세상에서 잘살아보자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었다.

마을로인들은 하늘재아래 수안보땅에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게 되어 대통령이 텃다고 눈물을 흘리었고 젊은이들은 그이의 군대가 되겠다면서 의용군에 받아달라고 인민군군관들의 뒤를 쫓아다니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흘렀다.

수안보사람들은 주석님께서 오셨던 그때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면서 그이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왔다.

그이께서 맛있다고 치하하신 고추장을 《하늘재 고추장》, 《수안보의 특산》으로 삼고 해마다 장을 담글 때마다 정성을 기울였고 어떤 농가에서는 통일이 되어 그이께서 오시면 드리겠다고 특별히 고추장을 따로 담그었다.

일일천추로 기다리던 주석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시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수안보사람들은 땅을 치며 오열을 터뜨리었다.

《아, 겨례의 어버이께서 우리결을 떠나시다니, 주석님! 안되오이다. 안되오이다. 가시면 안되오이다!》

변춘란할머니는 자리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였다. 하늘이 야속하였다. 한갓 평범한 이 인생에겐 장생을 주고 대성인이신 주석님은 단명케 하니 거꾸로 하는것이 하늘의 리치냐?

마을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태질을 하였다.

그들을 다시 일떠세운것은 복덕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백두광명성의 밝은 빛발이었다.

주석님의 후계분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을 이끌고 겨례의 앞길에 밝은 빛을 뿌려주고 계신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힘과 용기가 솟구치게 하였다.

백발이 된 변춘란할머니는 은빛머리를 들고 자주 하늘재를 바라보곤하였다.

그 이름처럼 신령스러운 하늘재! 하늘재는 수안보사람들이 마음을 얹고사는 희망의 봉우리였다. 그들의 가슴속엔 언제 어디서나 주석님 다녀가신 하늘재가 솟아있어 신심을 잃지 않고 곳곳이 파란만장의 인생길을 헤쳐갈수 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소백산줄기에 구축한 적의 방어진을 단숨에 돌파한 것도 이 하늘재의 평형이라고 믿고있었다.

그때 인민군부대는 먼저 하늘재가 있는 이 조령을 점령하고 그 정기를 안고 산줄기를 따라 내리공격함으로써 문경고개로 전과를 확대할수 있었고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문경을 해방할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어느날, 이날도 마루에 나와앉아 하염없이 하늘재를 바라보던 변춘란할머니는 갑자기 방안에 대고 소리질렀다.

《애들아, 저기 하늘재에 걸린게 무지개가 아니냐?》

쪼프린 눈을 하늘재쪽에서 떼지 못하고 할머니는 또다시 소리질렀다.

《애들아, 어서 나와봐라. 청청하늘에 웬 무지개가 섰느냐?》

할머니의 말에 아들, 며느리는 물론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던 손자며느리까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

며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할머니! 쌍무지개예요! 하늘재에 쌍무지개가 섰어요!》

먼저 달려나온 손자가 웨치듯 말했다.

《뭘, 쌍무지개라구? 이런 희한한 일도 있다. 이고장에 쌍무지개가 선것은 내 나서 처음 보는일이로구나.》

할머니는 신기한 쌍무지개를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꺾다벗었다하더니 누구에게라없이 심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우리 수안보에 무슨 경사가 있으려는가보다.》

그날 쌍무지개를 더 자세히 보겠다고 하늘재에 올랐던 손자는 또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하늘재숲속에 수백년 묵은 고목이 있는데 느닷없이 그 가지마다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긴다는것이였다.

《이것은 길할 징조임에 틀림이 없다. 하늘재의 조화는 무심히 대할것이 아니니 이제 분명 큰 경사가 있을테니 두고봐라.》

할머니는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6.25전쟁때도 봄에 아름다운 새무리가 하늘재에 날아들더니 그해 8월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고장을 찾아주셨단다. 그러니 이번의 조화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고장에 내려오신다는것을 미리 알리는 징조임이 확실하다. 모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라.》

가족들만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주석님께서 다녀가신 모든곳을 다 찾으신다는데 **김일성**주석님께서 다녀가신 여기 수안보땅에도 꼭 다녀가실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는것이였다.

바로 그해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관문점을 시찰하시였다.

이 소식에 접한 마을은 온통 흥분에 휩싸였다.

80고령의 변할머니는 젊음을 되찾은듯 부촉해주는 손자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서 씨엉씨엉 하늘재로 올라갔다. 어찌나 날라람이 있는지 그의 치마자락에선 비파소리가 날 지경이였다.

《봐라, 내 말이 틀림없느니라. **김정일**장군님께서 관문점에 다녀가신것은 그분께서 우리고장에 오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 수안보에서 북으로 뻗은 길은 관문점을 거쳐 평양에 닿아있지 않느냐? 하늘재의 조화는 하늘의 계시인즉 무심히 보아서는 안되느니라.》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에는 장군님께서 수안보에 찾아오실것이라고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복을 노력보는 미군과 괴뢰군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대낮에 버젓이 관문점에 다녀가셨은즉 이제 구름을 타고 수안보에도 오실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있었

다.

주석님의 축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 장군님이신데 분계선이 대수냐 그분께서는 이제 서울에도 오시고 제주도에도 기필코 가실것이다. 이것은 수안보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남녘의 민심이였다.

요즘 수안보사람들은 **김정일** 장군님께서 오실 큰

길을 닦고 하늘재마루에 《**김일성** 장군통일개척비》와 《**김정일** 장군통일실현비》를 세울 그날을 일구월심 기다리고있다고 한다.

김우경

충성의 불꽃들

최영화

얼마나 빛나는 영웅들인가
밤하늘의 혜성처럼 빛나는 이들
-정성욱 김유봉 박옥희
허용구 현영라 리웅찬

얼마나 자랑스러운 영웅들인가
누구나 쉬이 이룩할수 없는 값진 위훈과
누구나 것처럼 살아야 할 삶의 높이로
우리들의 넋을 울리며 깨우쳐주는 충신들
내 한사람한사람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뜨거이 불려보노니

참으로 이들이야말로
온넋, 온몸이
수령의 사상으로 불붙는
충성의 불꽃들이다!

우리 장군님 바라시는곳이면
이 땅 그 어데이건 스스로 달려가
그곳에 삶의 소중한 불씨를 뿌리고
아무도 눈여겨보는지 없어도 말없이

한생의 불꽃으로
생의 흔적많은 충성의 열매를 가꾸어
그것으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우리 시대의 참다운 영웅들

누구는 세계 《마라손너왕》이 되어
누구는 천길 땅속에서 캐낸 검은금산으로
누구는 바람찬 북변땅에서 지어낸 세벌농사로

누구는 제 몸을 태워 일꾼 빛과 열로
누구는 생의 모든것을 바친 첨단과학탐구로
누구는 성실한 땀으로 키운 광활한 숲으로
아버이장군님께 진심을 바친
그 충효심과 위훈 앞에 내 머리를 숙이노니

나는 보노라, 이들의 참모습에서
봄도 이른봄
찬바람과 눈서리를 꽃꽂이 이겨내며
온 조국강산을 붉게 불붙이는
봄의 선구자인양 싱싱한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김정일 강성대국의 화창한 새봄을
이 땅우에 꽃피우는 봄의 선구자들
불꽃들은 이제 천송이만송이로 붉게 피어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세차게 불붙이며
조국땅을 온통 불꽃바다로 출렁이게 하리니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길이 피여 아름다울
길이 피여 향기로울
그대들 충성의 불꽃들이여

이 하늘아래
강성대국이 장엄하게 일떠선 날
사람들은 그대들을
한뭇잎의 불꽃다발로 엮어
위대한 장군님께 안겨드리리
안기여 충신의 향기 한껏 풍기리

환호하노라 2천년이여

문동식

환호하노라 2천년이여
축복하노라 2천년이여

창창한 희망의 푸른 하늘 이고
풍요한 대지를 한껏 펼치고
2천년이여 그대는 왔구나
주체의 나의 조국 자주의 락원에

세상엔 땅도 넓어
지구의 어디에나 아니간곳 없으련만
내 나라에 찾아온 2천년이여
그대는 정녕 금빛수레라고
환희의 열풍속에 찾아온게 아니냐

잠시 머리들고 저 하늘 보아라
주체사상탑의 저 봉화는
그대의 앞길에 암흑이 없으라고
인류의 태양 **김일성** 동지
그이께서 추켜드신 자주의 등대란다

그대앞에는 련련히 뻗어간
주체년호라는 력사의 새 궤도
그것은 천출위인 **김정일** 동지
그분께서 그대가 천년세월 끝까지
활개쳐 곧바로 나아가도록
무궁한 세월에 열어준 길이란다

어찌 그뿐이라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은
당창건기념탑의 저 큰 주먹들은
일심단결 무적의 힘으로
부강부흥의 강성대국 세워가는
조선로동당의 결심이란다

여기 조선에는 다만
사랑과 믿음, 우애와 단결뿐
여기선 수령과 평도자가
인민을 나의 하늘이라 부른다
여기선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자기의 위대한 수령과 평도자를
한가정의 자애론 아버지로
가장 정당게 친근하게 부른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수령과 당과 인민의 미덕에
2천년이여 여기선
5천년 사라졌던 단군시조왕도
다시 살아 영생의 삶을 누리거니

그대 정녕 얼마나
빛나는 땅에 찾아온것이나
그대는 백만년 인류사가
그리도 피타게 애원하고 갈망하던
자주의 락원을 맞이한 행운아

그대는 진정
천년세월 멀고먼 원정의 첫걸음을
웃음과 노래 속에 가볍게 떼여가는
참으로 타고난 만복의 산아

충효의 최고화신 **김정일** 동지
그분의 자욱이 새겨지는곳마다
창조와 위훈의 별들이 뜨리라
날마다 기적이 태어나리라
해마다 승리의 축포가 오르리라

그러면 2천년이여
금빛메부리우에 높이 올라서
강성대국조선이 누리에 뿌리는
눈부신 자주의 그 빛발속에
그대는 인류의 아름다운 청춘
공산주의별천지를 보게 되려니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나는 그대에게
장생불로 축배잔을 경건히 높이 들어
가장 뜨겁게 가장 열렬하게
축하를 드리며 절찬을 보내며
이렇게 절절히 당부하리라

-자주의 태양 **김일성** 동지
향도의 태양 **김정일** 동지
오직 그분들을 따라
오로지 그분들만 결사옹위하며
천년세월 먼 길을 곧바로 걸어온

그대의 정신과 신념과 의지를
3천년대에 바통으로 물려주라
후손만대에 철리로 물려주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세월의 박수갈채속에
주체사상 최후승리의 불멸의 년대로
청사에 길이 솟아 빛나게 되리라

오, 그 믿음

그 필승의 확신에 넘쳐
2천년을 맞이한 력사의 이 아침
나는 다시금 가슴을 터쳐
시대앞에, 인류앞에 그리고 미래앞에
온 천하가 들썩하게 웨치고웨치노라

환호하노라, 2천년이여
축복하노라, 2천년이여

첫 출근길의 아침에

리동후

송이송이 내리는 흰눈이
깨끗이도 펼친 솜눈길우에
첫자욱을 찍어가는 발걸음도 가벼워
활기로워

지난밤 자정이 이윽도록
떠들썩 흥겨운 노래소리, 웃음소리
아직도 거리의 창가에서 흘러넘쳐
새해의 첫아침 걸음걸음
가슴의 흥분 이리도 진정할길 없는것인가

서로 다정히 반기며 속삭이는 말속엔
새해를 마음껏 즐기였는가
귀중한 또 한해를 어떻게 보내려는가
환희로이 주고받는 목소리
내 귀전에 썸처럼 스며들여라

아 꿈같은 세월의 경탄속에 맞는
2천년대의 첫해 첫 출근길에 나서니
너는 수많은 생각을 불러내며
이 땅 이 행성우에 평화인가 전쟁인가
준절하고 엄숙한 물음앞에 나를 세워라

허나 나는 알고있다 이것만은
전변의 세기 그 어느 인류사에
만민이 갈망하는 자주와 평화를
추악하고 저주로운 압제자들
단 한번도 무료히 선사한적 없음을

바로 그때문에 출근길의 첫아침
신심 드높이 마음 다잡고
격동하는 력사의 흐름앞에
평화로운 삶을 투쟁으로 안아오는
장엄한 출근의 발구름소리 기세찬것 아니냐

보아라, 기발처럼 불타는 아침노을이
우리앞에 눈부시게 펼쳐지고있지 않는가
위대한 장군님 향도의 손길따라
존엄높이 불패의 기상으로 솟아오르는
주체조국을 찬연히 물들이며

내 땀뿔이 스스로 대답하노라
노래처럼 이 마음 하냥 즐거워지고
도도한 발구름소리에 이 가슴 부풀어오름은
해빛밝은 락원의 행군길로 달음치는
한없는 자부와 긍지로 차넘치기때문

죽음을 각오한 결사의 정신으로
오직 승리만을 믿어온 이 길에서
절망과 비관을 모르며
간고하고 준엄한 나날에도
신심과 용기만을 안겨준 당을 따랐거니

가자, 은혜로운 향도의 기치따라
20세기 영광의 년대를 넘어
21세기 첫대문의 빗장을 남먼저 열고
안아오자, 이 땅에 사회주의참모습을
강성부흥의 위용을 불멸의 노래로 엮으며

벌써 자랑넘친 승리자를 반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꽃보라인가
용용한 대하처럼 굽이치며 큰자욱 내짚는
첫 출근의 밝은 얼굴에 어깨우에
흰눈송이 내리며 춤추며 속삭이네

영광을 바란다고
승리를 믿는다고

영원한 복무

리중홍

(전호에서 이음)

축기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우리는 첫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1》호를 성공적으로 쏘올렸다.

그 보도가 발표되던 그해 9월 4일 저녁 너무도 경이적인 소식앞에 세계는 깜짝 놀랐고 우리 인민은 너무도 기쁘고 자랑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 소식을 듣고는 밤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안에 드는 강국의 대렬에 들어섰구나 하는 가슴쭉뚫한 민족적공지감에서였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그 어느때보다 어렵고 간고한 때에 쏘올린 인공지구위성인 까닭에 안아보는 기쁨도 더욱 크고 흘리는 눈물도 더 뜨거운 것인지도 모른다. 돌이켜보건대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싸워온 지난 몇해동안 우리 인민은 얼마나 어렵고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쳐왔던가!

그러면 왜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었는가?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우리는 평등, 호혜, 유무상통 즉 너에겐 없고 우리한테는 많은것을 너에게 주고 대신 너에게 많고 우리에게는 적거나 없는것을 너에게서 받는 원칙에서 모든것을 편리하게 도모하여오던 사회주의시장을 잃었다. 모든것이 팔라로 환산되고 팔라로 교환되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팔라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팔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산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한가지 실례로 놈들의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을 때 배 금고에서 회수해낸 두툼한 팔라몽테기들을 더러운 미국놈들의 돈이라고 손도 대지 않고 군화발로 차서 바다에 처넣은 사실이 팔라에 대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립장을 웅변적으로 립증해주고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렀지만 팔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립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긴 하지만 이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인하여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짐으로써 우리의 경제생활에는 일시적인 공간이 생겼다. 거기에는 미국놈들의 비렬한 경제 《봉쇄》와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더 악랄해지고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그 공간을 메꾸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지난 몇해동안에 진행하여온 《고난의 행군》은 바로 그 공간을 완전히 우리의것으로 메꾸기 위한 투쟁, 다시말하여 더욱 철저히 자력갱생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이 투쟁을 우리 인민이 어떻게 겪었으며 또 어떤 의지의 힘으로 이겨냈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도 충분히 목격하고있는 현실이므로 여기에 구태여 적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나는 그 나날에 조국해방전쟁로병으로서, 60을 넘긴 최고사령관동지의 한 로전사로서 내자신이 느낀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기간은 앞에서 말한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적들의 경제 《봉쇄》책동 그리고 자연재해로 하여 생겨난 경제적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도 간고했지만 그보다는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을 잃은 최대국상의 아픔을 털고 일어나기 위한 싸움으로도 힘겨웠다.

아버지수령님의 뜻밖의 서거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하늘의 태양이 꺼져내린것과도 같은것이였다.

그 사변이 우리 인민의 사상, 정신, 도덕, 경제 생활에 던진 충격은 그 무엇으로써도 계량해낼수가 없다. 그 시련을 분연히 이겨내고 꾀꿉이 일어난 지금의 시점에서 뒤돌아보느라하면 과연 무슨힘으로 어떻게 그토록 크나큰 슬픔의 낮과 밤들을 이겨냈을가 하고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그러노라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수 있는것, 슬픔의 바다에서 분연히 솟아오를수 있는 의지의 힘은 바로 그것-우리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였구나하는 새삼스러운 발견으로 가슴후더워지군한다.

참으로 그 나날에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무슨 힘으로 일어설수 있었을것인가!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을 한가슴에 안으시였던만 태양이 떨어진 이 하늘아래 어둠과 비와 눈물의 바다에 잠겨버린 우리 인민을 안아일으키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축원의 구호를 심장에 안고 오로지 그 하나만을 위하여 살며 싸워오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는 영생의 신념을 심어주시고 수령님과 영결하는 그

시각에는 온 세상이 환해지도록 밝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인민들의 심장속에 아로새겨 주신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그때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선의 하늘가엔 영원히 태양이 지지 않았음을 심장으로 깨달았다. 그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따라 걸어온 30여년 세월이 준 확신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뜻밖의 대국상을 당하고보니 우리는 눈앞이 아주 새까매져 조선의 하늘가엔 영영 태양이 꺼진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아! 우리에게엔 우리 수령님과 똑같은 장군님이 계신다! 하고 새삼스레 느껴안은 그 순간의 환희와 흥분이야말로 그무엇으로써도 표현해낼수가 없는것이다.

우리는 그 눈물의 환희와 흥분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추대를 기다렸고 또 준비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당, 국가 수반이 서거하게 되면 그의 시신이 채 식기도전에 당과 국가의 수위에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는것이 보통이다. 왜냐면 당과 국가의 지도자의 위치야말로 단 하루도 비워둘수 없으리만큼 중요한 중책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와 사정이 달랐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던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들을 누구에게 넘겨줄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혀 서지 않았다.

그분은 유일무이하게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벌써 30여년전부터 당과 국가와 군대의 전반사업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백분의 하나, 천분의 하나도 손색이 없이 완벽하게 계승완성해나가실 위대한 후계자,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품모와 자질과 실력을 만천하에 떨치신 **김정일**동지이시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자마자 당총비서추대와 국가주석추대와같은 행사는 있을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모두가 심장으로 느끼고있는 문제였다.

아직 우리 인민의 감정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는 세계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셨다는 국상보도가 올라가자 그다음순간부터 그러한 국상뒤에 의례히 있게 될 새 지도부선출에 대한 보도를 은근히 기다렸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그토록 심장으로 체득하고있는 우리 인민마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눈물의 애도기간이 끝나면 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는 추대행사가 있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며 또 그것을 바랐다. 아버지수령님과 영결하게 될 그날이 하루 하루 다가오는것은 가슴 찢어지는듯한 아픔을 더해 주었지만 심장을 저미는 아픔의 그날이 지나면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

대하고 영결의 아픈 눈물로 응어리진 가슴을 추대의 후러운 환희의 눈물로 풀수 있으리라는 기다림이 그 누구의 가슴속에든지 깊숙이 간직되어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 생각했다.

해님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눈물로 영결한 때로부터 하루, 이틀, 스무날, 한달이 흘러갔으나 기다리는 그날은 오지 않았다.

언젠니까, 그날이 ...

아래일군들이 나를 만나면 그렇게 물었고 나 역시 상급당위원회 일군들을 만나면 그렇게 물었다. 그들은 자기들도 알수 없다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어쨌선지 나는 그들이 그날을 알고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듯이 생각되였다.

그 느낌은 어느날엔가 문득 그날이 올수 있다는 조급한 생각을 불러내었다.

나는 이제 문득 오게 될 력사적인 그날을 어떻게 맞을것인가를 며칠동안 꼼꼼히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무엇으로, 어떻게? ...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온 마을이 떨쳐나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던 일이며 아버지랑 마을어른들이 장군님께 올릴 편지를 써가지고 읍으로 떠나가던 일들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렇다,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자!

아니, 길다란 편지로 장군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드리지 말고 한눈에 보실수 있게 축기를 만들어 올리자. 그리고 축기엔...

그러자 문득 바로 2년전 2월의 봄날 아버지수령님께서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손수 써드린 송시를 받아안던 때의 감흥이 되살아났다.

감히 견주어보는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경애하는 장군님께 우리의 마음을 최대로 압축하여 담은 시를 지어서 축기에 수놓아드리고싶었다.

나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말할수 없는 흥분을 안고 모대기기 시작했다. 만수대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으로 전사들과 함께 경모의 꽃바구니를 들고 올라갔다는 늦은밤에도 불면증때문에 벌떡 일어나 앉은 이른새벽에도 책상앞에 마주앉아 축시의 글줄들을 골라보곤하였다. 그러나 잘 안되였다.

평생 시라는것을 써본적이 없는 나였다. 더우기 어느 출판물에 낼 글도 아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나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닌 우리 부대 전체 군관, 사관, 병사들의 심정을 담아 올릴 글이라고 생각할 때 만년필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만할뿐 도무지 글귀가 잡히지 않았다. 마음속엔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뭉게치며 돌아가는데 종이우에 옮겨놓으면 아무런 뜻도 뜨거움도 없는 졸렬한 글이 되고마는 것이였다.

나는 아버지수령님의 송시를 자자구구 음미해보기 시작했다. 송시를 받아안자마자 뜬금으로 외웠

고 그것을 가지고 예술선전대를 무어 공연활동도 조직했지만 글을 써보려는 사람의 시점으로 다시금 곰곰히 씹어보니 그 뜻의 폭과 깊이가 더욱 심오하게 심장에 젖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한 자세로 책상앞에 앉아서 송시를 써내려가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영상이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로 안겨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 시대의 위대한 수령의 앞날을 축복하는 위대한 첫세대 수령의 거룩한 영상이었다.

나의 눈앞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수 그 이름을 지어주신 정일봉의 웅자가 우렁이 그려졌다. 그러자 쿵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새 시대의 위대한 수령으로, 정일봉을 영원한 수령봉으로 떠받들어나가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시며 송시를 쓰신 것이다.

나는 그자리에서 만년필을 들고 머리수에서 번개 치는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자구구에 깊은 뜻을 담아보려는 욕심에서 아이적에 좀 배워둔데다 자습으로 째짤이 익혀든 한자지식을 깡그리 털어내어 여덟줄짜리 7언시를 쓰는데 아마도 몇시간은 잘 걸린 것 같았다.

그것을 다시 우리 말로 풀이하여 쓰는데 또 몇시간 잘 걸렸다.

제나름으로 다 완성해놓고보니 아침이 되었다.

그날저녁 그것을 부대당위원회 성원들과 전문일군들 앞에 내놓고 의견을 받았다. 좋다고들 하면서 모두 찬성했다.

그러면서도 나오서는 미처 알수 없었던 심중한 약점들과 좋은 수정대안들을 내놓았다. 우리는 그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제기되는 의견들을 고쳤다.

다음날아침 부대당집행위원회를 열고 추대의 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릴 축기를 마련하며 축기의 앞면에는 해쑈는 정일봉을 배경으로 서있는 백두밀영고향집을 수놓고 뒤편에는 시를 금실로 수놓기로 합의하였다.

모름 남김없이 축기는 완성되었다. 다만 축기를 드리는 날자만은 비어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역시 우리 손으로 만든 함에다 넣어 부대연구실에 정중히 보관해두었다. 이제 백일추모행사가 끝나고 추대행사가 진행되면 비워둔 날자를 새겨 그 누구보다 먼저 장군님께 드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백날이 지나고 또 백날이 지나고 한해가 넘도록 축기에 비워둔 날자를 새겨넣을 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신은 상중에 계신다며 탈상할 때까지 모든 추대사업을 완강하게 뒤로 미루신 것이었다.

우리는 삼년상을 치를 때까지 한해 더 기다렸다. 그러나 그 한해가 지나간 다음에도 축기에 비워둔

날자는 새겨넣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조상전례로 내려오는 3년상은 만 2년째 되는 날이지만 하늘이 내신 우리 수령님의 서거 3년상은 만 3년이 되는 날로 돼야 한다고 하시며 다시 한번 뒤로 미루신 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말씀을 전해들은 순간 나는 눈썹리가 시큰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효심이 얼마나 지극하셨으면 이 땅이 생긴 이래 어길 수 없는 법도처럼 여겨오던 3년상의 날자를 한해 더 연기하도록 하셨는가.

그 충정앞에 우리 인민모두가 눈물을 머금었고 세상사람들도 머리를 숙였다.

3년!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계승자, 위대한 동지로서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신 그 상중의 3년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숭고한 도덕의리의 새로운 장을 기록한 3년이였다. 아니, 새로운 도덕의리의 장으로서뿐 아니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며 수령의 유훈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위대한 령도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생각해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상중의 3년을 어떻게 보내셨던가.

뜻밖에 대국상을 당하고 쓰러진 이 나라 인민을 안아일으켜 수령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룩하시며 수령님의 유산인 사회주의 이땅우에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과 영결한후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금릉2동굴과 청류다리 건설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 발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비롯하여 아버지수령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만들어모시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와 신념을 담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의 련속적인 발표, 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새해의 아침 인민들의 심장속에 생애의 마지막신년사를 하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심어주시고는 다박술중대의 포병들을 찾으신 이야기, 력사적인 그 초소시찰에 이어 아버지수령님의 현지도도자육이 깃든 동해안의 녀성해안포중대와 대덕산, 351고지, 오성산, 초도섬방어대, 관문점, 각 군사대학들과 대련합부대 및 련합부대 지휘부들을 찾으시며 불과 몇해사이에 십여만리의 로정을 달리신 전선시찰의 이야기... 그러시면서도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한덩이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차중의 쪽잠으로 물릴대로 물린 피로를 푸시며 3년세월 그 어느 일요일 하루, 명절날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의 그 로고속에 우리 인민은 걸음걸음 막아서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용감하게 박차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냈다.

참으로 그 나날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지난조국해방전쟁 3년과 맞먹는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승리의 나날이었다. 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수령님의 서거 3년상을 치르던 그날 우리 인민은 그 3년을 돌이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장군님을 따라 모든것을 이겨냈다는, 장군님만 계시면 언제나 이긴다는 신심과 락관, 행복에 넘친 눈물이었다.

이 장산에 세번째로 찾아온 7월 8일을 보내고난 우리 인민은 이제나저제나 하는 마음으로 새날의 보도에 귀를 기울였고 류다른 관심으로 신문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7월이 다 가고 8월에 들어서도 기다리는 그 중대소식은 실리지 않았다. 9월 9일? 아니면 10월 10일? ...

저마다 마주오는 의의깊은 날들을 꼽아보며 우리 민족사에 대경사의 날로 아로새겨질 그날을 기다리던무렵, 나는 뜻밖의 병으로 쓰러져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모시는 행사가 눈앞에 박두한데다(우리는 그때 당, 국가수반 추대사업을 동시에 하리라고 생각했었다.) 부대가 훈련관준비를 마감으로 다그치는 때여서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우겼지만 촬영결과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루이틀사이 담낭이 터져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면 모든들 강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응하고말았다. 나는 아무래도 받아야 할 수술이라면 당장 빨리 해달라고 했다. 이래저래 병원에 오래 붙들려있을 형편이 못되었던것이다.

마취를 시작하기전에 나는 한 네댓새면 되는가고 물었다. 수술의사는 웃으면서 그쪼뵈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대로 돌아갈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대답이었다는것을 나는 췌 후날에야 알았다.

60살을 넘긴 몸에 담도수술이란 사실 락관할만한것이 못되는것이였다. 그런데 충수염수술이나 되는듯이 네댓새면 되는가고 한 나의 질문이 의사들에게는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들렸겠는가?

《난 사실 의사로서의 운명을 걸고 한 수술이였습니다.》 하고 후날 집도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우연한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세번에 걸치는 수술을 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한테서 받았다. 그는 우리 군부대병원의 오랜 외과의사로서 의술에 능할뿐더러 박식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로 오

래동안 나라의 보건부문 책임일군으로 일해온 아버지의 강한 요구만 아니였다라면 자기는 의사가 아니라 작가로 되였을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만큼 그는 문학에 대하여 밝았고 일반사회정치지식의 폭도 꽤 넓었다. 몇년전에 제대된 옛부참모장동무와 마찬가지로 그의 입에서도 귀에 익은 고전작가들의 이름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곤하였는데 조금도 어색한데가 없이 흰 위생복을 입은 그의 전체 품격에 제법 어울리는것이였다.

내가 그에 감탄을 표시하면 그는 우리 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로씨야의 안톤 체호브나 중국의 현대문학의 개척자인 로신도 다 의사였거나 의학을 전공하던 사람들이였다고 넌지시 대답했다.

그를 통하여 나는 그 어떤 문학지식보다 그자신이 몸으로 직접 체험했거나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직접 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덕성일화들을 많이 들을수 있었다. 주로 나라의 보건사업과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돌려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덕성일화들이었는데 나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오래동안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나서 그는 매우 감심한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끝맺군했다.

《나는 책을 좋아하다보니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오래동안 일해온분들이 쓴 덕성실기책들을 거의 빠짐없이 다 읽어보는데 감동되는바가 크지만 다 읽고나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비해볼 때 아직 멀었구나 하는 아쉬움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매번 그런 감정을 느끼곤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 책을 저술한 분들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은 이 나라 문필가들이 다 달라붙어도 그 백분의 하나, 천분의 하나도 다 써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장군님의 위인상은 보통사람들의 필력으로써는 도무지 옮길수 없는 신비적인 경지에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것인가?

의학자로서 하는 말입니다만 내가 생각하기는 많은 경우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 폭과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수 없는 뜨거운 인간애로부터 흘러나오는것입니다.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것을 순간에 꿰뚫어보시는 비범한 예지, 남들이 도무지 생각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을 한순간에 도출해내시는 비범한 통찰력, 무한한 열정, 끝없는 사색의 세계, 지칠줄 모르는 패기, 대담성, 독창성... 그 모든것이 다 우리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하고 무한한 사랑에서 출발한단말입니다.

그것은 오래동안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슬하에서 그분들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해온

우리 아버지가 인생말년에 자신의 한생을 총화치으며 우리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또 나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근 30여년동안 의사로 일해오면서 온몸으로 느껴안은 체험세계의 정수이구요.》

나는 그를 통하여 개념적으로 알고있던 장군님의 위대성의 다른 한 측면을 깊이 깨달았다.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깨달음이었다.

안다는것과 느낀다는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안다는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리해했다는 뜻이지만 느낀다는것은 온몸, 온 녀트로 받아안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는 그를 통하여 우리 장군님의 인간애의 깊이와 넓이와 그 뜨거움을 실지 산 체험처럼 심장으로 받아안았다. 그리고 그럴수록 빨리 부대로 나가 일을 더 하고싶은, 그토록 크나큰 인간사랑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위하여, 우리 전사들을 위하여 북남동서를 중횡무진하시며 멀고 험한 전선시찰의 길에 늘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말은 바 나의 일을 더 잘해야 한다는 욕망을 누를길이 없었다.

그러나 대수술을 받은 뒤라 몸이 생각처럼 인차 추서지 않았다. 나는 한 네댓새면 말끔하게 병이 나아서 벌려놓은 일들을 마저 다할수 있으리라고 수술전에 생각했었지만 그 네댓새가 녀달로 불어날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수술이 잘 안된것은 아니었다. 수술후 파는 대단히 좋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4시간반동안에 걸쳐 진행한 수술도중 혈압이 많이 떨어져내리는 바람에 수술을 중지하고 혈압을 올리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고한다. 그때 많은 동지들과 지휘관들이 팔을 걷고달려와 자기의 피를 바쳐 나를 구원해주었다. 지금 나의 몸에는 그때 수혈받은 피가 2천그램이상 들어있다. 나의 심장은 고마운 그 피로 고동을 멈추지 않고 뛰는것이다.

나는 그 피로 소생된 생명의 하루하루를 병원에서 그냥 보낼수가 없었다. 3년전에 축기까지 만들어놓고 기다리던 장군님의 당 및 국가수반추대사업을 당장 앞두었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러했다. 아닐세라 나는 그토록 바라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추대소식을 병원에서 듣게 되었다.

더는 병원침상에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나는 퇴원해나가겠다고 완강히 들고일어났다. 상처부위가 채 아물지 않았고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였지만 복피를 짹 조이고 사무실에 앉아 일을 볼수는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담당의사동무를 비롯한 병원측이 반대하여나섰고 그보다는 상급당위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다. 그것은 실로 고마운 일이지만 그때로서는 그들이 모두 야속하게 생각되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이날인가? 근 3년을 아이적의 마음이 되어 이제나저제나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날을 침상에 누워 맞을수는 없었다. 글썄... 일생에 두번다시 맞을수 있는 날이라면 몰라라 단 한번밖에 없는 날이 아닌가!

나는 면회를 온 상급당위위원회 책임일군에게 나의 심정을 호소했다.

전쟁참가자인 그는 나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정 그렇다면 사무실에 딱 앉아 일체 모든 사업을 보며 하루에 한번씩 꼭꼭 병원에 와 검진도 받고 처치도 받는 조건부로 퇴원을 반송낙해주었다. 아마도 같은 전쟁참가자라는 그 의식이 그런 너그러움을 베풀게 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날로 부대에 나갔다.

녀달만에 방에 들어서니 감정이 이상했다. 모든 것이 녀달전에 문을 잠그고 갈 때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나의 감정은 예전같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며 사업토의상이며 그 아래 송시를 쓰시는 수령님의 영상이며 병원에 실려들어가던 날자를 말해주는 녀달전의 탁상일력이며... 그 하나하나를 훑어보는 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흥분되는것이였다.

어쩌면 이 방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지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때문만도 아닌듯했다. 근 녀달동안 이 방을 비워둔채 침상에 누워서 나라에 폐만을 끼쳤구나 하는 죄의식때문도 아닌듯했다. 당의 배려가 아니었다라면 내 운명이 어찌되었을가 하는 생각, 언제면 그 은덕을 다 갚아내랴 하는 생각, 어쨌든 이 몸을 열조각, 백조각 내는 한이 있어도 그 은덕에 보답하기전에는 절대로 쓰러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해서 못다한 일을 기어코 봉창해야겠다는 생각... 등으로 내 마음은 어린애의 마음같이 조급하게 설레고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연구실에 보관해두었던 축기를 가져오게 했다. 3년동안 정중히 보관해두었던 축기를 펼치고 비워둔 날자란을 찾았다. 그리고 부대책임일군들과 함께 수예전문일군들을 찾아가 하루밤을 꼬박 새우며 그 날자를 새겨넣었다.

3년세월 기다리고 기다려오던 날이었다. 래일일가 모래일가, 봄일가 가을일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새겨보던 날이었다.

우리는 다음날 부대군인월기모임에서 그 축기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릴것을 만장의 우렁찬 박수갈채속에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와 숭고한 공산주의적도덕으로 하여 3년만에 올리게 된 축기였다.

나는 그 축기에 새겨진 축시를 적는것으로 이부분의 끝을 마무리짓고저 한다.

수령님 녀원속에 높이 솟은 정일봉
인민은 더 높이 받들었네 수령봉으로
김정숙어머님 이날위해 키우셨고
김일성대원수님 내세위주신 정일봉
그 봉우리 받들어야 우리 조국 부강하고

그 봉우리 안녕해야 우리 인민 행복하니
친위병사 충효의 천만산악 되고되어
우리 운명 수령봉 천년만년 웅위하리

전사의 말

변변치 못한 이 글의 마감을 무슨 말로 맺을 것인가 하고 궁리해보느라니 문득 언젠가 찾아왔던 부참모장동무 생각이 난다.

어느때없이 혈색이 불깃불깃해져가지고 나를 찾아온 그는 그 쉼쉼하는 목소리로 한두마디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 젊은이같은 정력을 담아 말하는 것이었다.

《정치부장동무, 내 맞춤형 일거리를 하나 붙들었습니다. 허, 집에 들어와 하는 일 없이 로친네치마쪽에 묻혀있자니 과연 내가 <최우등졸업생>이 옳긴 옳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60을 넘기고 군복을 벗었대서 최우등 졸업하는것두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지막날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일을 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돌이켜보아 한생애 여한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최우등졸업생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난... 그렇게 할 결심으로 다시 일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맞춤형 일거리라는것이 무엇인가 따져묻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나 나나 우리들, 조국해방전쟁을 겪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조국해방전쟁과 더불어 입었던 군복을 벗지 않은 채 50년이 되어오도록 그 군복과 더불어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로 복무할수도 있고 나라의 중요모퉁이를 맡아볼수도 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흘린 후파나 또는 능력과 자질의 부족, 년로한 나이로부터 오는 로동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일을 놓고 집에 들어가 아침저녁 화분에 물을 주고 아들딸들에게 잔소리하는것으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아직 군복을 입고있건,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을 맡아보건 또는 일손을 놓고 은퇴해들어갔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해방전쟁로병으로서 장군님을 받들어 할바를 다하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젠... 할바를 다했지 하고 물려있지 않는것이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장군님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 유훈을 안고 살아야 하며 안고 죽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생명활동은 백프로 거기에 다 바쳐져야 한다. 백두밀림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받들고 싸워온 우리 혁명의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동지들을 보라.

80고령에 운신조차 제대로 못하는 몸이지만 오

늘도 탄광이나 광산, 농장별이나 군부대들을 찾아 혁명가요를 부르고 시도 읊어주면서 후대들을 충성과 위훈으로 떠밀어주고있지 않는가? 즉 그분들은 장군님을 받들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무엇인가 일을 하고있는것이다.

그분들이 바로 《최우등졸업생》이고 영원한 수령의 전사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장군님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가는 길에서 조국해방전쟁로병,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좀 많은가? 전쟁이란 어떤것인지를 영화나 소설로밖에 보지 못한 새 세대들에게 우리가 넘겨주어야 할것이 과연 적단 말인가? 착취와 압박을 모르며 살아온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에게 착취와 압박을 어린 몸에 직접 받으며 잔뼈를 굳힌 마지막세대인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일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치지 않고 우리 새 세대 젊은이들을 사상문 화적침투로 녹여내려는 원수들의 흉계가 날로 더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근 반세기동안 이렇게저렇게 불어오는 온갖 어지러운 이색적인 바람속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따라 우리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뜻곳이 고수해온 경험많은 우리 세대가 할일이 없을수 있겠는가?

아니다. 얼마든지 있으며 그것은 우리 세대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숙제로 남겨둔채 우리들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최우등졸업생》으로 자부하며 될수가 없다. 하다못해 손자녀석 손목을 잡고 유보도를 거닐면서 그에게 보통강반의 눈물겨운 력사를 옛말처럼 들려주는것도 절대로 남에게 떠넘길수 없는 우리 세대의 일감인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60살을 넘기고 제대되었다고 하여 절대로 《최우등졸업생》이 아니다. 60살 생일을 맞고도 장군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군사복무를 계속하고있건 혹은 제대되어 《경비원》이나 《유원지관리공》으로 일하건, 손자, 손녀 손목잡고 유보도를 거닐며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고 싸워온 체험담을 구수한 옛말처럼 들려주건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어 무슨 일이든 뼈심을 아끼지 않고 충실하게 하다가 생을 마칠때 비로소 순직자로, 영원한 수령의 전사라는 숭고한 칭호를 간직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돌이켜보아 어딘가 미흡한 자신의 한생을 두고 고민하는 나의 자각지심이기도 하다.

우리 혁명의 제3세, 4세대 동지들!

동무들은 나라의 제일 무겁고 책임적인 위치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어 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주력군이다.

조국해방전쟁의 동란속에서, 전후복구건설의 거세찬 폭풍속에서 태어나 사회주의적해탈들을 맨처음으로 받으며 자란 첫 세대들이 바로 동무들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명송지마다 세워주신 소년단야

영소의 넓은 정문으로 소년단기를 펴 펴 날리며 들어선 첫 세대도 바로 동무들이며 7년제, 9년제, 11년제 의무교육의 꽃대문을 댈 처음 들어선것도 동무들이다.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일성청년영예상》 첫 수상자들도 동무들 전쟁동이, 전후동이 들속에 있다.

그렇듯 사랑과 믿음의 첫 세대로 자라 오늘은 어 느덧 우리 혁명의 주력세대를 이룬 동무들의 어깨 위에 메워진 짐은 참으로 무겁다. 그 짐의 무게는 동무들이 받아온 사랑과 믿음, 행복의 무게이며 동무들이 자라온 것처럼 좋고 훌륭한 사회주의제도 그자체의 무게인것이다. 그가 장군님앞에 한개 군부대를 책임진 장령이든, 남없는 기술로 부대싸움 준비의 한 공간을 지켜선 초기복무사관이든 그리고 그가 나라의 중임을 맡은 유능한 일군이든, 남모르는 철길우로 순회의 밤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름 없는 로동자이든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은 다같이 무겁다.

잠을 자도 잠을 깨도 명절날이나 휴식날이나 그 집만은 절대로 벗어놓지 말아야 한다. 잠자리에 들려고 옷을 벗을 때 마음의 그 집마저 벗어놓는다면 밤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날아침에는 아무런 설계도 없이 일터에 나오게 될것이다. 그러나 잠들 때에도 그 집을 짊어지고 자리에 누우면 그날 하루사업이 스스로 총화되고 래일의 하루사업이 꿈꿈하게 설계될것이다.

잠자리에 들 때 랑심앞에 총화해보자.

《내 오늘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먼 거리를 달려왔는가? 그것도 천천히 걸어왔는가? 속보로 걸어왔는가, 아니면 있는 힘껏 달려왔는가. 그 길에서 몇번이나 쉬었는가?》

그러면 오늘의 사업이 량심적으로 총화되고 래일의 사업이 충분히 설계되며 래일은 아침일찍 활력있는 정보로 새날의 첫 자욱을 내디디게 될것이다. 그리고 동무들이 힘껏 달려간 그만큼 어려운 강행군길을 앞장서 헤치시는 장군님의 전선시찰의 길이 험해지고 동무들이 어깨 위에 힘껏 짊어진 짐의 무게만큼 장군님의 어깨 위에 지워진 혁명의 중하가 가벼워질것이다.

혁명은 이렇게 하루하루 전진하며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도 이렇게 한치한치 실현되는것이다.

장군님을 받들어 일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일하자!

일하되 장군님의 슬하에서 장군님의 사업작품과 사업방법을 따라배우며 세계관을 넓히고 뼈를 굳힌 장군님의 중견세대답게 모든 일을 장군님식으로 통이 크게 패기와 정열에 넘쳐 불이 번쩍 나게 와 닥닥, 그러면서도 깊은 철학적사색과 높은 지성적 심혈을 기울여 세계적인 수준에서 **김정일**시대의 본보기로 해내자!

10대, 20대의 5세, 6세대들, 지금 걸음마를 떼거나 이제 태어나게 될 7세, 8세대들에게도 하고싶은 말이 있다.

원썩들은 저 동유럽에서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바로 동무들 5세대, 6세대, 7세대들이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와 땀과 생명을 바쳐 세워놓은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인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안된다!

내 나라 사회주의를 위하여 장군님 결사옹위의 총폭탄이 될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인생의 첫걸음을 댔 동무들이다. 바로 그 심장의 서약을 지켜 원썩들의 온갖 유혹과 위협공갈 속에서도 김철진, 정광선이들이 장군님 결사옹위의 총폭탄정신을 발휘하고 개선영웅이 되어 장군님의 품에 돌아와 안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키운 인생은 그렇게 될수밖에 없다.

조국은 지금 동무들을 수백만의 김철진, 정광선이들로 키우고있고 동무들자신이 제2, 제3의 김철진, 정광선이들로 자라고있다.

사람이 한생의 목표를 별장이나 자가용승용차에 걸고 산다는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뛰는 허무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위대한 목적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위대한 목적이란 무엇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세계를 자기의 의사 즉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것이며 바로 그 위업을 위하여 인간은 그 위업실현으로 자기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께 충성다하는것을 인생의 최고목적으로 삼는것이다.

믿음직한 5세, 6세대들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의 후비대라는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자!

사랑하는 7세, 8세대들아!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태어나게 될 행복한 세대들인 너희들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세상에 태어나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저 백두밀림 사령부천막가에 높이높이 휘날리던 혁명의 붉은기가 온 세계를 뒤덮을 주체위업완성의 그날까지 **김정일**장군님을 받들고 싸워나갈 내나라, 내 조국의 영원무궁할 미래세대임을 부디 잊지 말아라! 이것이 조국해방전쟁로병인 우리 세대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체의 강성대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복받은 세대인 너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다.

그렇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최고목적도 최고행복도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끝까지 충실하는 오직 그 길에 있다.

오직 장군님을 위하여!

이것이 장군님의 전사-우리모두의 구호이며 삶의 전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군님 전사로 한생을 살리라
안겨준 사랑은 하늘에 닿건만
바쳐온 충정은 내 키도 못넘어
날마다 가슴에 넘치는 생각
인생을 두번다시 곱살수 없을까

희어진 머리는 다시 집어못쳐도
전사의 심장은 그날에 사네
인생을 열백번 곱산것처럼
하루를 천날로 달음쳐 살리라
장군님 전사로 영원히 살리라

조국이며, 번개쳐나가자!

홍현양

시간을 맞추자
출강의 시각처럼
전호가에 명령받은 병사처럼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합친다
우리는 신들메를 조인다

이 땅 어디에 살건
그 누가 이 시간에
심장을 합치지 않고 살라
숨결을 맞추지 않고 살라
생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살라

우리 장군님 지퍼주신 불길이어
조국땅에 투쟁을 부르며 번개친다
이 시간에
압연기에 붉은 강편이 흐른다

그 누가 이 순간을 놓치랴
나무모를 심어가며 내도는 땀방울이
선반공의 이마에도 맺혔다
함마를 휘두르는 손과 손에
질통을 지고 달리는 어깨와 어깨에도 흐른다
구슬같은 땀방울
천금같은 분과 초가...

준마가 달리는 이 시간속에
뻗어가는 평양-남포고속도로여
탄차들이 굴러가는 바퀴소리여
바치는 삶이
천리마의 자욱으로
시대의 영웅들이 태어나는 날과 날로
황금바다 물결치는 격랑으로 솟구친다

시간을 맞추자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이슬 내린 두렁길
다투며 키숫구는 푸른 모우에
우리 장군님 찾으시는 공장구내길
날리는 용접불보라우에
담력과 의지로 내려치는 천리마

천리마의 그 나래가
조국의 속도이다
조국의 시간이다
한계절에 무르익는 세벌농사이다
한교대에 터치는 련속발파이다

헛눈을 팔며 살아갈 분과 초가
우리예겐 없다
삼을 쥐고 돌을 깔며 쌓아가는
백리 긴 제방우에
불도젤이 밀어내는 한드레벌우에
강성대국의 그 봄빛이 푸르다

오, 전설의 천리마가
이 땅우에 새 세기의 전설을 낳으며
폭풍치는 시간이어
우리의 끓는 피에 타번지는 붉은 빛이어
강성대국으로 가는 이 길만이
우리 결사의 주로이다

시간을 맞추자
강성대국 래일의 시간을
오늘에 맞추자
구슬같은 땀을 바쳐
지혜를 바쳐
심장을 바쳐
조국이며, 번개쳐나가자!

조선사람들

-이 시를 《고난의 행군》-강행군참가자들에게 드림

김명익

1

유구한 세월을 휘감으며
지구는 태양성을 돌고있다
행성은 무변광대한것
우주는 무한한것
그 무변, 무한한 세상천지에
자기의 성스러운 시대를 펼치며
장엄하게 도도히 행군해가는
억척의 인간들이 살고있어
세계가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오, 동방의 맑은 아침의 나라에 사는
조선사람들
나도 그 일원으로 살며
묻노니
이 행성에 거주한 동시대인들이여
이 크지 않은 땅의 국명으로 불리우는
민족의 가치관을 아느냐?
사람들은 말하더라
진리에 대해 쓰기보다
진실에 대하여 쓰기가 더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리
읽다나면 알게 되려니 생의 진가를
두세기에 살아볼 행운을 지닌
환희론 력사의 분기점-
이 세월의 분수령에서
바로 오늘을 굽어 시행을 고르나니
우리 생활의 진실이란 무엇이고
생활이 주는 진리 또한 무엇이던가

2

나는 며칠전
옛친우가 보내온 편지를
우선 기꺼이 공개하노라
...
나의 벗, 시인이여
이 글을 부디 다 읽어달라
새 기술창안을 하려
내가 수도의 한 연구소에 가있는 날
여기 먼 북방의 기계 공장-
나의 작업반일터를

우리의 장군님 다녀가셨네
내 얼마나 행복하였던지
하건만 평양을 떠나 집에 들어서려니
아, 서운해 너무도 서운해
안해를 붙들고 온밤 울었네
대한추위의 눈보라를 헤치고
나의 일터에까지 친히 오신
그이를 내 뵈지 못했다니
나에게 천만금이 있어
그 천만금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들
그처럼은야 허전했으리
그날에 그날밤 그렇게 지새고
첫새벽에 공장구내로 들어서는데
글쎄 그이께서 차에서 내리시다니
로동계급들 보고싶어 다시 들리신다고
나의 손도 억세게 잡아주시는
그이를 뵈옵게 될줄이야
《그래, 건강은 어떻습니까?
로동자동무들 생활이 크게 어렵지요?
가만... 그 밥팩을 좀
보여줄수 없겠습니까?》
내 황황히 밥팩을 등뒤로 가져가는데
《어려울거요. 당장 식량이 필요할것이고...》
모든것을, 우리의 모든것을 다 헤아리신듯
그이는 다시금 나를 바라보셨네
《예,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장군님이 계십니다!
...쌀이 필요하지만 책을 주십시오
일감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올리면서도 미처 다 몰랐네
늘 그이가 해처럼 그리웠다면
밤새 가셨던 천리길을 되돌아
또 천리길을 오신 그이를
이날 아침끼니도 번지신 그이를
이 나라 로동계급이 뵈옵줄은
벗이여, 부디 나를 용서하시라
...
나는 여기서 눈앞이 흐려져
벗의 편지를 더는 읽지 못했다

3

어려웠다
 어제도 오늘도 어려움다
 이 시련의 날들을 잊지 않자고
 내 이 시련을
 과거형에 놓고 쓰지 않는다
 봄도 늦어오는 이 땅엔 겨울이 길어졌다
 어디서나 추위, 추위-
 집도 거리도 일터도 추웠다
 이는 진실이노라
 왜 출지를 않으며 어렵지 않으며
 간고하지를 않으며
 그해 주체80(1991)년 12월 25일
 그날 19시 35분
 락조가 비껴간 크레블리성벽의
 붉은기는 서서히 내려지고
 내리워지는 기폭을
 쏘련사람들 쓸쓸히 지켜보았더라
 평양의 쏘련대표부 옥상에서도
 레닌당의 기치는 사라지고
 70여년전 짜리동궁에 흔들거리던
 삼색기가 계양대로 주춤주춤 올랐다
 국가의 장중한 연주도 없이
 탑을 세우기는 힘들지만
 허물기는 쉬운 법
 이로써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7. 62mm소총 한방 쏘는 사람 없이
 최초의 사회주의는 무너지고
 무너지자 동유럽사회주의도 폐허가 되고
 《2극화시대》도 끝나고
 이제 조선에서만
 붉은기가 내리워지면
 세계정치지도는 격변한다
 검은색뒤에는 색이 없다 했거늘
 제국주의는 이 땅에도
 검은색을 쏟아부으려
 사면팔방에서 으르렁댔다
 《북조선을 완전질식시키라》
 《<코뮌>으로 경제를 봉쇄시키라》
 《마지막공산체제를 붕괴시키라》
 《지구에 다신 붉은기를 솟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미제련합세력과 대격전
 익측없는 단신으로 맞선 《3차대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것을 이겨냈다
 하지만 견디여내기 어려웠으니
 수령님을 잃었을 때에는
 정말 앞이 캄캄했노라

4

순간에 천년을 잃고 나았은
 이 나라 사람들의 호곡소리
 아, 아- 수령님도 가시는가
 흠속에 3년을 묻었던
 록각으로 록저를 만들어쓰면
 신상에 효험이 크다고
 그 록각을 넣은 흠배낭을
 전투와 행군 속에서도
 천날을 이고지고 다니었다는
 그래서 3년만에 록저를 만들어
 사령관동지께 놓아드렸다는
 그렇듯 전설속의 인간정성을 다 고여
 빨찌산의 어머니 수령님을 모시었던만
 인간의리리 최정상에서
 우리의 **김정일**동지
 온 생을 다해 선대수령을 받드시였건만
 너무나도 무정한 세월이었더라
 역장이 무너지는 그 슬픔에
 절명한이들은 그 얼마였던고
 지금도 자정 2시만 되면
 소스라쳐 깨어나
 수령님 초상화를 한동안 쳐다보는
 이 땅의 사람들
 못잊어, 우리 장군님과 더불어
 흘리고흘린 눈물 피방울인양
 오늘도 마르지 않고 방울방울 고여오르는
 금수산기념궁전 중앙홀 대리석바닥
 그 홀에 들어서면
 지금도 눈물의 통곡소리가
 울리는것만 같다고
 그이, 《울음홀》이라 불려
 력사에 남겨주시였거니
 조선현대사는
 그만큼 준엄하였다
 건국이래 《울음홀》이라는 피어린 말이 생겨난
 이 년대는 참으로 엄혹하였다
 아-
 우리는 20세기에 만고의 수령님을 잃었다

5

불행은 쌍으로 온다고
 설상가상이라고
 수령님 떠나가신 이 땅에는
 무서운 해일에 수해까지
 몇해째 겹쳐들어
 전야는 큰물에 잠기고
 공장굴뚝에서는 연기가 치솟지 않았다
 또다시 때는 왔다고
 칼춤을 추며 원썬들 덤벼들고
 미제는 페르샤만에 불을 질러놓고
 《외과수술식타격》으로
 제2조선전쟁을 시험했다
 그러며 조선수뇌부 동향을 주시했더라

흑시, 북조선이 놀라 움직이는 기색이 없는가?
 없다, 없으니 또다시
 유고슬라비아에 줄폭탄을 퍼부으며
 우리의 동정을 살피기를 그 얼마
 승냥이는 피를 보기전에는
 절대로 물려서지 않는 법
 미제란 승냥이와 같은 말이지니
 우리의 피를 보자고 달려들었다
 들판의 개승냥이들처럼
 오, 다 말해 무엇하랴
 시절이 어려워지자
 우리 가까이에서도
 온갖 쥘짐불이 격류우에 떠올랐다
 허위와 거짓과 변질과 배신...
 그 인간백치들
 그러지 않아도 아픈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쓰리게 하였느냐
 어머니조국을 욕되게 말라
 한낫에도 서러발총창이 우는
 이 계급의 강토에
 제 어머니를 팔아
 호강할 자식이 살
 그런 땅은 없다

6

나는 이 시가를
 세계의 면전에 쓰노라
 그러나 인민이여, 그대에게는 용서를 빈다
 오늘날 이 나라 사람들의
 천신만고의 투쟁을 너무나도 모르면서
 또 그 일부를 노래하고있음을
 이 땅의 사람들
 서로서로 누가 영웅이라 하지는 않아도
 세상사람들이 보면
 다 영웅들이라고 한다
 원수들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안다
 이 공화국을 먹자고 매일같이
 별의별 《연구》와 모략짓을 다하고있기에
 게다가 우리는 적고 제국주의는 많다
 어리석게도 우리 상공엔
 《정탐위성》들을 띄워놓지 않는 날이 없다
 보라, 우리는 간고함을 숨기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는 이기고있음에야
 이긴자는 숨길것도 없으니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지는 사람들
 마치도 역풍이 세차게 불수록
 기폭은 더 거세차게 나뭇기듯이...
 어려웠다
 어렵기는 이 나라 녀인들이 더했다
 허나 시련의 날들에 먼저 웃은것은 그대들
 그리움에 익힌 붉고붉은 감을
 수령께 먼저 드린것도 그대들
 어려운 나날에 조국의 영예를

만천하에 떨친것도 그대들
 아, 만수대에술극장에 그이를 모시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맘껏 노래하고 춤추며
 최고사령관동지를 기쁘시게 한것도
 군관안해 그들이였거니
 그것은 그대들이
 노래를 잘 불려서만 아니였다
 고생 많으신 그이께 노래 한가락이라도
 드리고싶어 부른
 조선녀인들의 대합창!
 막은 내리고 공연은 끝났어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시는 그이
 안광에선 뜨거운것이 번쩍하였다
 녀인들이 끝내 그이를 우시게 하였구나
 《장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혁명가의 안해들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들 모습
 옷은 비록 화려하지 못했어도
 필필이 비단을 두른들
 그보다 더 절색이었으랴
 씨뿌릴 때 배우고 거둘 때 가르치고
 겨울에 맛보시라는 시도 있으되
 우리는 그 참맛을
 이 엄혹한 시절에 더 알았노라
 부엌에서 남몰래 찬물 한그릇 마시고는
 먼저 한술 들었다며
 더운김 피어오르는 식탁에
 산나물 한접시라도 더 놓아주고
 감자 한알이라도 더 없어주고야
 행주치마에 젖은 손 닦으며
 식탁에 앉을 땐
 자기앞의 국은 그만 다 식어
 오, 한겨울에도 더운 음식 차려주고
 차거운 국을 드는 녀인들
 《고난의 행군》길에 제일 수고로운
 혁명작식대원들이여!
 그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첩첩한 시련의 먼 행군길을
 걸어오지 못했으리
 《고난의 행군》-강행군이 끝나면
 우리는 사흘이건 열흘이건
 우선 그대들을 꼭 채우리라
 그리고 성찬에 김서리는 향기롭고
 뜨거운 국을 먼저 대접하리라
 《고난의 행군》기념으로
 금빛반지를 끼워주리라
 칠색비단옷을 해입혀 백화원에도 보내리라
 아서라, 그것도 아니구나
 그보다는

비에 씻기고
바람에 트고
눈에 언
그대들의 손을 잡아
뜨거웁게 쓸어주자
이 나라의 억센 사나이들이여!

7

이 고마운 제도에 살며
내남없이 쌀값이 얼마인지 몰랐던 우리
그 자그마한
바람에 날려가도 별일 없어하던
배급표쪼크지가 그리도 귀했던가를
그것이 사회주의 내 조국의
크나큰 은혜였음을
사무치게 느끼며 흐느끼며
차마 식량공급소로 가지를 못했다
서로서로 양보하며 식량을 먼저 받기를 거절하며
그려하였더라 이 땅의 사람들
눈내려도 바람불어도
한결의 약전복차림이신
친근한 평도자와 함께
때론 모닥불가에서
주먹밥도 같이 들었다
그이는 자신의 한공기 죽마저
병사들에게 나누어주시었다
우리는 이렇게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서양의 코카콜라는 얼어마시지 않았다
시뻘건 흙탕물을 마실지언정
제 나라 물을 마시었다
오, 이렇게 되어
이 땅엔 류레없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8

오-
눈보라
눈보라
눈보라
《고난의 행군》대오의 진두에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신다
불패의 군단들을 총사열하신다
그이는 어제도 오늘도
백두령봉에 계셨다
누리에 진감하는 령장의 노호성이여
《세계여 들으라-
백두산에 다시 들어가 싸우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혁명의 붉은 기치를
끝까지 지킬것이다!
이는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의지
나의 의지이다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최후의 승리자는 조선사람이다!》
백전로장, 그이의 호탕한 웃음소리

대공에 메아리친다
천만대군의 심장의 퍼를 뚫인다
오호라, 우리 울면서 이 길을 왔더니
험난한 길도 웃으며 헤쳐왔나니
지금도 이 땅을 깊이 갈면
근 50년전 미제가 퍼부는
그 폭탄파편들이
벌절게 살아나오는 농토
전후 1만톤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했던
이 나라에 60만톤의
《USA》 폭탄을 쏟아부은 전야에
양수기가 멎으면
한초롱 두초롱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라도
씨를 뿌렸다
피도 같이 뿌렸다
의지의 오펜을 자레웠다

9

자고로 두벌농사는 아니된다는
온대성기후의 이 땅에
두벌농사도 기어코 해서
때아닌 6월에 첫가을을 하였다
어려웠다면
북방의 자강도사람들만큼 어려웠으리
하건만 《강계정신》 펄펄 날리며
제일먼저 락원의 행군길에 들어서
이해엔 벌방아닌 장강땅 돌서덕에
희한한 세벌농사까지 지어놓으니
대흥단 3천리엔 어허- 감자대풍!
강원땅 대평원에는
금나락이 금실금실 파도친다
사람들은 생의 활력에 끓고
나도 전선시초를 쓰려
월비산으로 출장나갔다가
사랑하는 아들에와도 만났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친술병사이노라
아들의 자랑은 이만저만 아니다
나는 딸마저 그리 내세우리라
군복을 입혀 서해 해상전이 있는
용맹한 전대에 무전수로 내보냈다
월미도의 영옥이처럼 잘 싸우라
떠나는 딸을 오래오래 바라워주었다
아들딸이 다 떠나간
나의 집은 텅 빈듯
그렇다고 빈집을 지키고앉을소나
나는 더 일찍 직장으로 나갔고
밤깊어 집에 들어섰다
내 집은 비운들 나라는 비울수 없었으니
나라는 나의 큰집-민족의 큰집이었다

10

이 큰집을 잃고
이 민족의 큰집을 잃고

제 나라의 국호마저 잃고
 나중엔 제 이름 석자마저 잃고
 섬오랑캐의 《속국》
 《황국신민》이 되어
 현대판노예로 살아온 민족
 오, 력사여 말하라
 리완용에게
 15만원과 백작칭호
 리용구에게
 10만원과 자작칭호
 송병준에게
 5만원과 자작칭호
 ...
 이렇게 을사년의 매국노들에게
 《은사금》 30만원을 던져주며
 강도적불평등조약을 날조하여
 삼천리강토를 병합하고
 피로 물들게 한 사무라이들이여
 하거니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적수들에게 넘겨바쳤다손치고
 이 매국노무리는 개도 안먹는
 《은사금》 30만원에
 반만년력사의 땅과
 백의민족을 통채로 팔아버렸으니...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사공
 흘러간 그 옛날의 내 님을 실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 오려나
 ...
 빼앗긴 조국을 그리운 내 님이라
 여울물소리 높은 두만강언덕에서
 목메여 부르며 하소하던
 그 비가의 음절들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피가 맺히게 하구나

11

잊지를 못하노라
 태평양전쟁말기
 남양의 무인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천오백명을
 산채로 각을 떠
 금수처럼 잡아먹은 식인종들이
 찬란한 조선민족의 력사를 없애려
 조선력사책 20만부나
 처처에서 불태워 그 불길
 백일동안의 낮과 밤에 치솟았거니
 그 오랑캐들 일제교형리들
 것처럼 만고대죄악을 저지른
 섬나라 해협우로
 대를 두고 해박야 할
 백년숙적의 머리우로

우리는 보란듯이 씹을렀다
 12시 07분
 《광명성 1》호
 무수단에서 우주으로 진입!
 일본은 창백해지다못해
 기절해 넘어졌다
 조선사람이 그렇게 무서운지
 기절했다 깨어나 미친소리를 쳤다
 수상도 방위청장판도 군부도 《자위대》도
 온 일본땅이 미쳐돌아갔다
 부끄러울 때는
 두덜거리는데 편이 낫다는격인가
 청청한 대낮에 남의 인공위성을
 《탄도미싸일》이라고 고아댔다
 핫하하하...
 아닌 말로
 참 통쾌했노라!
 이 아니 장관인가!
 때맞추어
 평양비행장에 연방 날아드는
 그동안 조선을 겨우로 알았던지
 미국에서 오는
 《조선바로알기대표단》들
 물길러 왔다가 잔치상 받는다더니
 좋다, 일없으니 얼마든지 오라, 와서 보라
 조선사람을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것도
 조선사람을 잘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것도
 싱거운 미국-그네들이거늘
 어서 일본도 오라
 《일본사회운동대표단》도
 먼저 왔다만
 이것만 와서 뭘텐가
 미국을 놀러딜고 선
 일본도 짓누르고 선
 오,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위성보유국의 조선사람이노라!

12

이 나라 유구한
 대동강문화가 창조된
 시원의 강, 어머니강
 이즈음 이 대동강가에는
 아, 가증스럽다
 《푸에블로》호가 한가로이 떠있어
 100여년전 《샤만》호가 불탄 강역에
 미국의 《조선바로알기대표단》이여
 아무리 바쁜들 여기부터 찾으라
 당신네 월가의 나리들이
 야삼경에 떠나보냈던
 무장간첩선의 갑판에도 올라와보라

그리고 저 먼 맨하탄에 서있는
《자유의 녀신》 상쪽을 향해 서보라
과연 어떠한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진보
진실은 누가 짓밟고 썼느냐?
이 땅이 왜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느냐?
그래서 이 행성에 미제를 두고는
잠 못들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이노라
그렇다,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다면
얼마든지 덤벼들라
그러면 이 도적배처럼
모조리 대동강가에 끌어다
이렇게 매놓으리라
아메리카를 통채로라도...
여기다 침략과 위선의 《합중국》
《반미박물관》을 만들려다
세계가 줄을 서서 다 와보도록
우리는 《돈》도 좀 벌면서...
아, 해적선이 떠있기에는
이 강반이 너무도 아름답구나!

13

시인은 진실의 가수
진실을 구가함은 생활을 노래하는것
비록 눈부신 백지는 아니래도 좋다
푸른 잉크가 마르면
혈관을 터치여
차라리 붉은 피를 찍어
검은 종이에다가 쓸지언정
더운 피는 두어서 무엇하리
불멸의 시를 쓰지 못할바에는...
나는 한 인간, 로작가의
불굴한 모습을 본다
50년대에 이르러
젊어서 완전실명, 전신불구
언어장애까지 들이닥쳐
말 한마디 나눌수 없는 인간
하여 구술마저도 할수 없다
오로지 신상에 살아움직일수 있는
그것은 250그램의 심장과
오른손중에서도 두손가락뿐!
안해와 딸의 손바닥에
무언으로 한자 또 한자 써가며
웁긴 원고들
백일동안의 낮과 밤에
왜적이 불태워버린 력사장서를
한장한장 다 찾아서 써낸듯

대장편력사소설군을
길이 5천년력사국에 드리였나니
그대여, 내 아노라
그 뉘보다 생명의 3대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침상의 인간
그대는 영양학으로
생의 고개고개를 넘기었던가
청춘의 아름다운 두눈을 잃고
한밤에도 그이의 영상이 비여와
소리없이 울며 흘린 눈물이어
그이의 영상도 그분의 저작도
그는 보지 못했다만
사상학으로 전생을 엮어온
주체사상론자였다
운명의 그 시각
수령의 초상화쪽을
마음속으로 바라본 그대
자애론 그분의 영상을
최후의 순간에 더 뵈고파
마지막박동을 모아
꺼져가는 심장에 속삭였더라
《아, 내 한쪽의 동공에라도 좋으니
순간의 번개의 섬광이라도
한번만 비치여다오...》
성성한 백발의 인간상
이 계명산천에 력사의 정의를
새겨온 그 불굴한 초상
준엄한 오늘에 더욱 잊지 않고
애국자의 참인생으로
애국렬사릉-영생의 마루에
높이도 내세워준
어머니당이여!
감사하노라!
시련의 시절에 애국자가 많은 나의 조국아!

14

간고한 날에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시를 주시고 정론을 주신
그이는 선률제일주의자
우리는 그이를 닮아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더더구나 어려울 땐 노래가 더 좋아
단일민족의 장단도 좋아
혁명의 시대, 폭풍의 년대기에
노래없이야 무슨 조선사람이라
우리의 찬가 이 땅에서만 울려퍼나
국제콩쿨전에 최우수상을 받은
평양의 아름다운 가수에게
서방기자들 편이어 물었다

어느 음악대학을 나왔는가?
 오스트리아 윈 음악예술종합대학?
 차이콥스키명칭음악대학?
 《아니요. 나는 우리 나라
 음악무용대학을 나왔소》
 《그렇다면 당신의 선생은
 어느 나라 음악대학출신인가?》
 《그도 조선의 음악무용대학을 나왔소.》
 《좋다, 그러면 그 선생의 선생은
 어느 나라 음악원을 나왔는가?》
 《나의 선생의 스승은 **김정일**장군님이시오!
 그분은 위대한 예술의 최고사령관이시오!》
 언제였던가
 대서양 바다물이 모두 황금이 되어도
 조선의 예술과 바꾸기에는
 그 황금이 모자랄것이라 했거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올리는 나의 조국이어!
 우리가 틀어잡은 총검마다엔
 장군님 보위해갈 맹세가 비꼰다
 붉은기 날리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어 결사옹위하리라
 ...

무적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이 노래를 모른다면 조선사람이 아니었다
 그전날 《눈물젖은 두만강》의
 비가속에 울던 사람들
 이 노래 부르며 우리는 강해졌다
 진정 이 노래-《교난의 행군가》였다!

15

진실한 사람들의 조국
 분명 평범해보이면서도
 결코 범상치 않은
 지내보지 않고선
 그 충직성의 대양을 다 알수 없는
 강행군나날의 사람들이여
 날으라, 나의 시어여
 격파솟으라, 나의 시정이어
 나는 이 시편을
 격랑속에 90일이 흘러간
 대양과 일본해역에 부치련다
 으르르, 씹아...
 씹-광, 치절씩...
 캄캄한 해상의 밤, 그믐밤
 길길이 들뛰는 파도
 가랑잎마냥 야공에 떠올랐던 철선
 마침내 풍랑속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바다에 떠도는 알수 없는 시체들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형체를 알수 없는
 시신들을 헤쳐보던

외국무역선원들 경탄에 웨쳤다
 -조선사람들이다! 평양사람...
 그네들 보았더라
 인민군병사들이 가슴에 고이 품은
 한방울의 물도 습새여들지 않은
 위대한 수령들의 초상화
 그 영상은 조선의 상징!
 세상에 조선사람임을
 존엄높이 증언하는
 영원한 **김일성**민족의 국적이었으니
 썬빌라의 하늘가에도
 람홍색기는 나뭇기였다

16

이 나라를 잃은
 《국치일》, 《시일야방성대곡》이 터진 날
 조선의 처녀 천상의 녀신마냥
 태양을 향해 솟아올랐다
 내 생애에도 처음 보는
 세계 《마라손녀왕》!
 한뼘 평보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인생의 105리를 달리라고
 인생의 결승선을 향해 달리라고
 손저어주는
 그대는 조선로동당원이었다
 마라손시인이었다
 그대와 동시대인으로 산다는것만으로도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인생을 살려가던 그대처럼 살라
 나라가 어려울 때 조국을 떨친
 100만의 환호를 받는
 세계가 아는 조선사람으로!
 원썬들이 다 굽어쓰러졌다느
 북조선의 나어린 낯선 처녀
 초당 5메터를 질주하며
 유럽땅에 백화마냥 향기를 진동시킬제
 그제야 알아보기 시작한
 772번-
 국적표식없는 선수를
 20세기 황홀한 《녀왕》을
 세계는 다 내다보았다
 금메달을 쟁취하기전엔
 국적도 밝히지 않으리라
 가슴엔 기발도 달지 않은
 평양의 철녀-정성옥
 출발선주로에서 그는 웨쳤더라
 《세계는 아직 나를 모른다
 그러나 2시간 이후에는
 전세계가 나를 알게 될것이다
 나의 국적

김정일장군의 조선을!»

그렇다, 그이를 마음속에 그리며
105리, 그는 달렸다
오, 지구를 한바퀴 돌았다

17

내 이제는
진실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노라
나는 다 읽지 못했던
벗의 편지를 마저 펼친다

...

친우여!

이날 나는 다는 몰랐었네

《그렇단 말이지...

책을 달라, 일감을 더 달라?!

힘이 나는 제기입니다

정말 책을 보면 해를 보는것 같고

일을 하면 락원을 보는것만 같습니다》

그이의 말씀에 나도 대답을 드렸네

《그렇습니다 장군님!

책을 봐야 수령의 사상을 알고

일을 해야 수령의 뜻을 받들수 있으니

그 말씀 길이 받들어 살겠습니다》

...

나의 벗이여, 시인이여

언젠가 벗도 그이를 만나보오려니

내 이날에 미처 다 올리지 못한

생각도 같이 말씀드려달라

수령의 사상이 빛나고

수령의 위업이 불멸하고

수령의 노래가 있는 한

이런 《고난의 행군》을

필요하면 열번, 백번도

우린 더 할 각오가 되어 있노라고...

옛벗의 편지는 끝났다

전우의 편지를 덮으며

나는 그리움에 뵈고싶어 펜을 달린다

드디어 곁봉에 정중히 쓰노라

《최전선에 계시는 그리운 장군님께》

...

18

이것은 보통날에

보통사람들의 편지

이 평범한 날에도

그이는 얼마나 큰 사업으로

고귀한 생을 태양처럼 불태우시는가

태고의 밀림에 눈보라 우는

백두산에서 맞이한 빨찌산의 아들

오늘도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는 그이

쫓는 해 지는 달이 어이 다 알라

김일성민족의 번영을 위해

천신만고하시는 그이를

아침이면 백두산에 해가 솟고
저녁이면 구월산에 해가 지는
금수강산 내 나라

그 이름으로 빛나는 이 강산에

그 이름 부르며 사는 행복아

아, 해가 뜨지 않는

이 세상 생각할수 없듯이

그이 계시지 않는

이 세계 생각 못하거니

그분은

우리 행복의 태양

인민을 위한 사업으로 온 한해

온 하루 24시간을

100프로 불같이 사신다

사람들이여!

우리가 몇끼 굶으며 밤밝혀

무슨 일을 좀 했대거나

우리가 병상의 동지를 위해

자기를 좀 희생했다거나

우리가 남모르게 무슨

소행을 좀 발휘했다거나

우리가 어떤 명예나 공로를

좀 세웠대거나 해도

크게 말하지를 말자

우리가 고생스러웠다고

자기를 희생했노라고

우리의 수고로움과 헌신을 말하기엔

아, 단신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시는

아버이의 천만고생이

너무나도 눈물겨워...

19

그래선가

안변의 청년군인건설자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받들어

백리물길쟁 600메터아래서

그 뉘도 모르게 바치였더라

뜻밖에 방출되는 가스구간

이 구간에서 생명의 보존시간은 48시간!

하나, 병사들 이 사실을

깡박에 일체 말하지 않았다

하나 둘 병사들 쓰러지고

이 사태는 끝내 알려져

모든것은 비상중지상태!

즉시 내려온 화학검출차

《가스가 나오면

어쨌다는건가?

비키시오!

비켜서지 못하겠는가?

소대 당원들은 대렬 3보앞으로 갓!》

척-척-척-

세발자국앞에 나서는 청년당원들

뒤따라 또 삼보 앞으로 나서는

병사들
 그들은 청년동맹원병사들이었다
 가스구간으로 이렇게 뛰어들
 그대들, 100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오, 더는 묻지 말라
 그들은 《고난의 행군》 참가자들이었다!
 이 고난의 시기 더 많았다
 우리 당에 영예롭게 입당한
 그 청춘들은
 더 많았다
 여기 안변땅에는
 희생된 장병들에게 수여된
 영웅칭호가, 그 고귀한 금별메달이...
 참으로 많았다
 생사를 같이한 사람들이
 자폭영웅, 육탄영웅들이
 동지위해 청춘으로
 작렬하는 수류탄도 덮었다
 이 나라의 처녀들이여
 내 이 시의 앞에서 너인들이야기를 했다만
 어쩔수 없어 또 읊조리니 용서를 비노라
 서사시도 여기서 끝내려 했으나
 끝낼수 없는것이 《고난의 행군》시로구나
 끝없는것이 영웅조선사람들의 이야기로구나
 그러니 시가 엇갈린다 해도 어찌랴
 용서를 빌면서라도 또 써야만 하겠으니
 그대들 전선영예군인들에게
 청초한 시절을 다 바쳤고
 자기의 푸른 공민증 가족란에다
 제 아들딸이라고 등록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처녀어머니》란 낱말이 생겨난
 이 땅의 1900년대가 아닌가...
 그러하였다
 동해의 그 처녀도
 광명성제염소건설장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나니
 그의 첫딸 《류소금》이
 귀엽게 생겼다고
 이름도 잘 지었다고
 우리의 장군님 안아주실 때
 금야만에 만경창과가 솟았다
 이렇듯 청춘남녀들 희한스런 《지참품》이 아니라
 사랑의 《지참품》만을 나누며
 떠들썩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어려운 날에 사랑을 맺은 청춘들
 우리 수령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걸어온 이 년대에
 우리 하나라도 잃은것이 있더냐
 잃었다면, 배신자들일텐데

역신들은 우리가 결별한것이니
 그것은 내버린것이고
 하다면 잃은것은 없다
 전세계를 얻었다
 그렇다, 《고난의 행군》은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의 행군이였다!
 인간사랑의 대행진이였다!

20

오, 어렵게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강하게 살수 있으랴
 오늘의 시련은
 오늘의 조선사람들을 백배로 더 강하게 했다
 이것은 진실이노라
 우리의 령장, 그이는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희천땅을 찾아
 력사의 새 시각을 열어주시었노라
 락조가 비긴
 크레플리성벽우에 흐르던
 그 19시 35분을
 영원히 지워버린 이 시간!
 이는 천년에 한번 맞는
 신화적시간
 10진법의 최고수자 아홉으로
 분초와 달과 달을 이어가시는
 그이의 그 시간으로
 새 세기를 마중가노니
 오, 그이는 두세기의 령마루에 서계신다!
 그이는 두세기를 거느리시였다!
 그이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따라
 현대력사는 흐른다
 밝아오라, 21세기여
 너는 **김정일**시대로 찬연한
 황금조선의 세기
 이 새 세기에도
 사시절 흰눈을 띄이고 솟은
 백두산밑에서
 3대장군이야기 끝없이 하며
 자자손손 살아갈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진정, 조선땅 령토에서 태어났다고
 조선사람이더냐
 민족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참다운 조선사람이다!
 수령을 잘 모시여 행복한 민족아
 이 민족이 사는 동녘에서
 해는 조선에서 솟는다
 아, 지구는 조선의 태양을
 중심으로 돌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지동설》 이거니
이는 진리이노라!

21

이 세월의 평마루에서 내 굽어보노라
흘러간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다가올 래일을
20세기, 1900년 1월의
아침이 어떻게 밝았더냐
대기근이 휩쓴 인디아에서
30여만명이 절명할 때
25개 국을 식민지화한

《대영제국》의
빅토리아너왕은 력설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라고
봉건중국에선
9살나는 부위황제의 즉위식이 있었고
오, 이 땅에서는 조선정복을 위한
일제의 《경인선》 철도부설공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장장 100년사에
이 나라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체험했던가
말하노니

《우리 이 세상 저 세상에서
다 살아보았다만 뭐니뭐니해도
수령님의 세상-**김정일**장군님의
세상이 제일 좋았다》고
아, 우리는 20세기에
만고의 령장-**김정일**장군을 맞이했다!
허나 이 땅의 사람들
천만의 념원은 이루지 못하고
새 세기에로 가누나
이 좋은 로동당세상을 베풀어주신
김정일장군의 거룩한 동상을
20세기의
가장 높은 언덕에 모시지 못하고 가는것
그 일만은 그이 백번이고 천번이고
결단코 불허하시니
-나의 동상을 세우려거든
수령님의 동상을 더 높이 세우라
인민의 군상을 더 많이 세우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맞아야 하는가?
두 세기의 상봉과 작별이여!
오, 그럴수 없노라
그이의 동상을 모시지 못하고선
20세기여, 너는 못가리
이 세월아, 그렇게 간다면
오는 세기에 하늘의 해는 떠도
인간행성엔 구심점이 있으랴
나는 본다

광막한 행성의 중심에
붉은 지시봉을 들고
새 시대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신화의 영걸-**김정일**동지를
선군혁명령도의 불패한 최고사령관을
정의와 진리의 최고수호신을
하저늘 21세기
그이의 집무실은
이 행성전체이리라!

22

날이 밝는다
수려한 강산에
또 하루 새날이 동터온다
나는 수도의 대통로에 나서
이 하루도 시문학분과로 출근한다
당의 새로운 지시를 받으려
그이는 오늘새벽에도
우리가 올린 시를 보셨으리
무릇 한해 365일치고
이틀이나 사흘엔 꼭꼭 한편씩
시가를 지도하여주시는분
그이는 시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시는 곧 혁명의 기발
열정의 노래 사랑의 미소
인민의 감정...
오, 시는 곧 그이의 생활이기에
우리의 시는 그이의 숨결
그이의 사상 그이의 감정
그이의 철학 그이의 기쁨과 아픔...
벽차도다, 그 생의 서사시를 읊조리며
나는 또 하루 충만된 새날을 맞는다
저기 40층 고층살림집창가에선
보천보전자악단의 새 노래가 울린다
또 저 늑가의 공원에서는
물동체조가 시작되고
거리의 고성기에선
우리의 수령께서 아득령을 넘어
지난날 승냥이수풀이라 하여
랑림이라 불리우는
심산유곡 랑림땅을 찾으신
새날의 보도가 울려퍼진다

×

문득
려명이 비껴흐르는
고층산원의 창가를 흔들며
우렁찬 고고성이 울려퍼지누나
환희로와라
슬기론 민족의 후손들
조선사람들이 또 태어나는구나!

짧고 아름다운 너인들의 순산이
저 붉은 기폭이 나뭇기는
우리의 당중앙에
하루의 첫 일과로 보고되는 아침이여
저 후손들에게
우리의 오늘이 과거가 될
조국은 또 얼마나 번영할거나
오늘날 《고난의 행군》을
부디 력사책들에서 보려니
좋다, 내 나라의 앞날이여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이여!

가사

제 2 의 천리마대진군의 노래

류동호

진격의 북을 쳐라 붉은 기발 휘날려라
천리마대진군에 우리는 나섰다
락원행 준마우에 인민을 태워주신
장군님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하자

시대의 영웅들이 앞서달린 그 한길로
대고조 불길높이 대오는 나간다

정녕, 어려워도 울지를 앓다가
아버이를 뵈오면
그만 목메여 행복에 흐느껴우는
간고한 나날에
그 강함을 더 알게 되는 민족이
오늘날 금수강산의 조선사람들이거니
내 이 땅에다
또 한번 태를 묻을수만 있다면
저 산원의 새 아기처럼
김일성민족의 조선사람으로
두번다시 태어나
살고싶구나!

최후의 승리로 조국을 불러주신
장군님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하자

비약의 나래펼친 천리마의 발굽으로
조선은 사회주의승전고 올리리
태양의 새 세기를 누리에 펼치시는
장군님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하자

가사

나의 아버지

김정철

내 어린날 입어보던 아버지 탄부옷엔
별이 하나 있었네 작은 별 하나가
이 아들과 막장길 함께 가는 오늘에도
그때처럼 변함없네 작은 별 그 하나
아 나의 아버지

짧은 날에 받아안은 고속도굴진소대
그 앞장에 서있네 흰머리 날리며
흘러흘러 세월은 깊어깊어 막장은

그렇지만 변함없네 굴진소대장
아 나의 아버지

한생을 사심없이 돌격의 일선에서
우리 당을 받드는 성실한 로당원
장군님은 그 가슴에 금별메달 달아주고
인민의 대의원 높은 영예 주셨네
아 나의 아버지

2천년대의 명작창작을 선도하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회롭습니다. 가장 격동적인 2천년대 문어구에서 주체문학이 승승장구하여 온 년대와 년대를 돌아보니 궁지와 영예, 자량과 신심이 넘쳐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자책, 각오가 함께 뒤엉키면서 2천년대에는 우리 평론이 새로운 혁신을 해야겠구나 하는 결의가 더욱 강하게 다져집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력사적으로 문학은 평론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어왔다. 인류문학사에 올라있는 훌륭한 작품 가운데는 평론가의 옳은 평가에 의하여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적지 않다. 한때 이름없이 파묻혀있던 작가가 평론에 의하여 세계적인 문호로 이름을 떨친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끌었던 작품이 평론에 의하여 그 진가가 드러나 력사의 버림을 받은 경우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평론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시고 평론가들로 하여금 문학

운동의 전초선에서 창작을 선도하는 척후병이 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어버이장군님의 신임과 기대에 비해볼 때 우리는 너무도 보답하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지나온 세기를 돌이켜보며 새 세기를 마중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주체문학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사상리론적으로, 창작실천적으로 총화분석하고 새 세기의 문학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실리적인 평론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강성대국문학건설과 태양민족문학창작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문제성있는 평론을 써서 명작창작에 펼쳐나선 작가들을 고무하고 떠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실주의 기치가 온 세상에 더욱 세차게 휘날리게 하며 자주시대 인류문학의 휘황한 진로를 평론으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위원장 최길상

2천년대를 맞으며

이 땅우에 바야흐로 2000년대가 밝아왔다.

쉽게는 차레질 수 없는 생의 《행운》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상아릇한 삶의 회열속에 잠기게 한다.

그렇다! 나에겐 다행히도 길지 않은 인생에 1000년대와 2000년대를 다 살아볼 수 있는 《행운》이 차레졌다.

나는 이 《행운》의 의미를 무심히 씹어보고 싶지 않다.

내가 인류력사가 새로이 맞이하는 2000년대에 산다는 것, 세대와 세대가 피줄의 바통을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오래히도 흘러온 1000년간의 인류사를 마감짓는 새해!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어 본다.

《내가 2000년대에 산다!》

하니 이것을 내앞에서 실증이라도 하듯이 나의 집벽우에 새로 걸린 달력장우엔 주체89(2000)년이란 수자가 찍여져 있다.

내가 2000년대에 산다! 내가 2000년대를 맞이했다!

숨이 차오른다, 심장이 뻥다. 피가 끓는다.

아직은 이름없는 이 시인에게조차 머리의 하늘이 어제날의 하늘같지를 앓고 발밑에 밟히는 땅이 어제날의 그 땅같지를 앓다.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것이 새로 시작되는 것만

같고 새로 그 무슨 의미인가를 안고있는 듯만 싶다.

하물며 감정을 가진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에게 있어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더우기는 나도 시인일진대 이 2000년대앞에서 시인이 가져보는 회열을 독자들은 더 의심치 말아 주길 바란다.

2000년대!

2000년대는 분명 우리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의 뜻으로 숨쉬고 존재하고 전진하며 흐를 것이다.

바로 이앞에 나는 시인으로 살것이다.

다시금 숨이 차오른다, 심장이 뻥다, 피가 끓는다.

나는 지금 좀처럼 누를길 없는 이 흥분을 조용히 달래며 지그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2000년대의 첫 눈을 애뜻이 맞고 있다. 나의 집 창가며 거리며 그리고 저기 평양역시계탑이며 그 어데라 없이 내리고 내리는 참으로 생각깊은 하얀 눈송이...

그렇다! 나는 그 하얀 눈우에 새기고 싶다.

2000년대를 맞는 나의 보폭 큰 첫걸음-시인의 첫 자욱을!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

위원장 차영도

류다른 감회, 높은 목표

세기의 분수령우에 올라선 이해는 감회도 류다르고 결의 또한 드높다.

미증유의 역사를 기록한 20세기, 이 세기에 우리 소설문학은 당과 수령을 옹위하고 인민들의 삶과 투쟁의 힘있는 고무자, 친근한 길동무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던가! 이런 뿌듯한 긍지감과 함께 지나온 세기에 소설형상으로 반드시 남겨야 할 의의있는 사변과 사건들, 인간들에 대해 놓친 것이 없음을 가끔 곰곰히 더듬게 된다.

2000년대가 시작되는 이해에 뜻깊게 맞게 되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서 우리 소설문학이 어떤 기여를 할것인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고있는 시대의 영웅들,

시대의 선구자들을 형상한 주옥같은 작품들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을 빛나게 장식할것이다.

또한 이미 진행해오고있는 네번째 큰 형식의 작품 100편 창작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릴것이다.

작가는 작품으로 인민들과 친숙해지며 기억에 남는 법이다. 나도 소설가인것만큼 남보다 잠을 적게 자고 휴식을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짜내어 독자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만한 단편소설을 꼭 창작해낼 결심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문학분과

위원장 장기성

우리 시대의 동심이 흘러넘치는 아동문학작품 풍년을 마련하겠다

추억과 새 결의!

이것은 2000년대가 시작되는 첫째, 당창건 55돐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일것이다.

아동문학작가들의 마음도 다를바 없다.

지난해 장편소설 《조국희소년자위대》(리동섭), 중편소설 《봄은 기와집》, 장편동화 《이상한 나라에 온 세사람》(황령아)을 비롯한 큰 형식의 작품들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은 동시 《그런줄도 모르고》(김학근)와 7편으로 묶어진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상을 반영한 단편소설 《밝은 봄하늘》(리준길)을 비롯한 단편소설들, 우화 《부러진 코》(문영철)를 비롯한 동화, 우화 작품들로 어린 독자들을 기쁘게 해준 아동문학작가들의 새 결의는 대단히 높다.

당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돌격전을 더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장엄하고 벽찬 행군길우에 우리의 어린 독자들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효심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이로부터 청소년 새 세대들의 아동문학작품에 대한 요구는 비할바 없이 높다.

아동문학분과에서는 새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을 따라 작가들의 현실체험을 더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시대의 동심을 작품에 담기 위한

창작조직사업을 짜고들려고 한다.

그리하여 혁명전통주체의 장편소설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리준길), 중편소설 《따뜻한 도시》(김정), 장편동화 《사랑의 집》(김형운), 중편동화 《아름다운 바다》(박상용), 중편실화문학 《구월산의 꽃단풍》(김학근), 단편소설 《희천소녀》(리준길), 단편동화 《은하수》(최충웅), 동시초 《조국과 아이들》, 우화 《슬픈 상봉》(박화준)을 비롯한 아동문학작품들을 훌륭히 창작발표할것이다.

올해 우리는 창작되는 아동문학작품들이 형식이 독특하게 개척되고 동심이 진실하고 생동하게 탐구되며 운동감이 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창작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먼 후날이 아닌 우리의 강성대국에서 주인으로 살게 될 어린 독자들에게 그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만을 생각하는 충효일심을 가슴속깊이 지혜와 슬기의 별빛으로 새겨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더 많은 아동문학작품들을 창작발표함으로써 시대와 력사 앞에 아동문학작가들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아동문학분과

위원장 류영철

세기와 나

현성하

고요한 밤.

방안에는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었다.

나는 벌써 한식경쟁 창문가에 서서 수도의 밤전경을 내다보고있다.

밤이 깊었지만 수도의 밤거리는 새해를 맞는 흥분으로 활기에 넘쳐 들끓는다.

꼬리를 물고 질주하는 승용차들과 버스들, 궤도전차의 불빛, 살림집창문들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들과 곳곳에서 명멸하는 장식등빛들로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다.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물결도 끊길줄 모른다.

이밤, 왜서인지 알수 없는 흥분으로 잠들수 없는 내 마음.

이제 얼마후면 새해 주체89(2000)년이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20세기의 마지막해가 시작된다. 하나의 1000년대가 끝나고 새로운 또하나의 1000년대가 시작되는것이다.

내 머리를, 옆벽에 걸린 전자벽시계는 쉬임없이 채각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재촉한다. 그 채각거리는 소리가 나의 심혼을 때로는 멀리 앞으로, 때로는 또 멀리 아득한 과거로 이끌어간다.

나는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여태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던 만년필의 뚜껑을 뚫었다. 마음속 흥분을 느끼며 만년필을 들었으나 선뜻 글이 나가지 않는다.

이 순간, 아마 나와 다름없이 잠들지 못하고 책상에 마주앉아 그 어떤 사색을 모으며 궁직거리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누구는 벌써 채각거리는 시계의 초침소리에 쫓기듯 몇줄, 아니 몇장 써내려갔을런지도 모른다.

삐익-문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구인가 살금살금 다가온다. 보나마나 일곱살난 손주녀석일것이다. 나는 책상을 마주한채 까딱않고 흠어지려는 사색을 한데 모으려고 애쓴다.

《할아버지, 뭘하시나요?》

포랑포랑 여문 목소리가 바로 겨드랑이밑에서 울린다. 고개를 돌려보니 손주녀석이 머루알같은 눈으로 뻔히 쳐다보고있다.

《왜 자지 않니? 밤이 깊었는데 어서 들어가 자거라.》

나의 지칭구에는 아랑곳않고 녀석이 두번째 손가락을 곧추 세워보이며 묻는다.

《할아버지, 이제 하루밤 자면 설이지요?》

그래그래, 설이지. 한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일곱살난 너도 잠들지 못하고 일흔을 래

일모레로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도 잠들지 못하고...

손주녀석을 내보내고 끊어졌던 사색의 실마리를 또다시 이어간다. 방안에는 역시 채각거리는 초침소리뿐.

해와 해가 마주선 이 시각, 소리없이 물러가는 이 해와 바야흐로 다가오는 새해가 눈에 보이지않는 계주봉을 넘겨주고넘겨받는 이 시각!

아니, 해와 해가 아니라 년대와 년대가 자리바꿈하는 력사적인 이 시각.

사람들은 무어라 형언할수 없는 신비롭고도 숭엄한 감정에 젖어 지나간 해와 년대를 총화해볼것이며 다가오는 새해, 새 년대를 희망에 넘쳐 그려 보며 앞날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것이다.

나처럼 백발을 엮은 로년들은 이 년대에 흘러간 자기들의 생애와 새 년대에도 이어질 자기들의 여생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녀이 깃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자기들의 후대들에 대하여, 그들에 의하여 더욱 강성부흥해질 조국의 태일에 대하여 생각할것이며 젊은 사람들, 갖가지 사회적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터-은화색불물이 끓는 용해장, 수천척 지하막장, 웅- 전류의 노래소리 울리는 발전소, 하얀 눈이불을 덮고 새 봄을 기다려 단잠에 든 협동별, 흰눈 내려쌓이는 천리방선전호가, 검은 파도 출렁이며 밀려오는 해구에서 조국이 준 임무를 다하며 희망으로 가슴부푸는 자기들의 젊은 생애에 대하여, 새 년대에도 계속될 자기들의 보람찬 투쟁에 대하여, 자기들에 의하여 변모될 조국의 새 모습에 대하여, 자기들에 대한 조국과 인민, 전 세대들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것이다.

파도소리 울려오는 바다너머 저 멀리, 이미 20여년전에 떠나온 땅, 수난도 많고 행운도 많았던 나의 전반생이 흘러간 일본땅의 나의 옛 동지들과 친구들도 이 시각 우리와 다름없이, 아니 우리들보다 더 절절하게, 더 뜨겁게 조국에 대하여, 조국이 없어 천대와 멸시 속에 몸부림치던 자기들의 어제날과 조국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자랑높고 긍지로운 생활을 누려가는 오늘에 대하여, 고난을 박차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구보행군을 다그치고 있는 조국인민들에 대하여 생각할것이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간다. 설날 그믐날의 밤이. 그리고 다가온다, 정월 초하루의 새 아침이.

이 시각 나는 격동적인 이 세기와 그속에 속하여 살아온 《나》라는 보잘것 없는 한 인간의 한생애

대하여 생각해본다.

지구의 동쪽, 북에서 남으로 길게 누운 조선반도의 남쪽끝에 자리잡은 제주도의 부속섬 우도에서 《식민지반도인》의 설움에다 《소의 후예》라는 우도사람의 불행까지 겹쳐안고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다섯살때 아버지와 어머니, 형님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식민지렬등민족》, 《소배때기에서 기여나온 상놈》이라는 천대와 멸시가 싫어 남부너대하고 건너간 그 저주로운 섬나라 일본땅에서 매일, 매시각 당한 민족적수모와 학대는 또 얼마나 설움에 겹고 눈물에 젖은것이었던가.

지금도 눈을 감고 귀기울이면 낯설은 타향의 긴긴밤 해어진 홀이불속에 쪼그리고 누워 귀동냥해 듣곤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듯하다.

《여보, 고향으로 가자요. 이놈의데가 죽기보다 싫어요.》

애원하듯 간청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는 무뚝뚝하면서도 침통한 어조로 대답하곤했다.

《못가! 그 섬이 우리 섬이 되기전에는!》

그러면 마음 여리고 어진 어머니는 더 말없이 돌아앉아 울기만 했었다.

드디어 조국해방을 맞이하자 아버지는 우리 식솔을 거느리고 맨 선참으로 고향섬을 찾아 건너갔다. 그때의 환희에 찼던 심정이란...

했으나 희망을 안고 찾아간 고향섬 우도는 이미 우리의것이 아니었다. 왜놈들을 대신하여 온 남조선땅을 타고났은 미국놈들의것으로 되어있었다.

해방되기전이나 다름없던, 아니 그보다 더했던 미제의 폭압정치에 더는 참을수 없어 아버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다.

제주도에 건너가 5. 10망국단선을 반대하는 4.3 인민봉기에 참가했던 아버지는 수배령이 내리자 그것을 피해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우리 형제 역시 6. 25전쟁이 터지자 리승만역도의 강제징집을 피하여 밀선을 타고 죽어도 가기 싫던 일본땅에 두번째 발을 디디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반동들의 조선인적대시정책속에서 조그마한 조선음식점을 경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던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총련이 결성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보람차고 긍지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나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과학기술지도위원회 책임지도원으로까지 자라났으며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열어주신 귀국의 배길을 따라 그림고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지나온 나의 생애를 돌이켜보는 이 시각, 나는 조

국에 대하여, 조국의 운명과 력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조국의 운명속에 나라는 한 개인의 운명이 있고 나의 생애는 조국의 력사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인것이다.

자주를 위한 인류의 장구한 투쟁끝에 출현한 사회주의의 장엄한 탄생으로 시작된 20세기, 온 지구를 피비다에 잠기게 한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크고작은 전쟁들이 기록된 동란의 20세기, 인류의 생활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최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룩된 문명의 20세기,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대립과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 날카로웠던 투쟁의 20세기, 눈부신 변혁들과 경이적인 사변들, 놀라운 기적들로 충만된 20세기.

이 세기에 우리 조국은 과연 어떠했던가.

반만년 오랜 력사와 유구한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 조국은 20세기 초엽에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는 비극을 당하였다. 허나 우리 인민은 굴복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였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독립을 지켜냈다. 그후 재더미만 남은 폐허우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였다.

지금 우리 조국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바다속에서 거연히 다시 일어나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고난의 행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불과 한세기동안에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락후를 털어버리고 우주정복의 길에 날아오르는 문명하고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으니 5천년 민족사에 있어보지 못한 커다란 변혁을 한세기동안에 이룩한 우리 조국.

하다면 나는...

나는 이 세기에 무엇을 했는가. 조국이, 세기가 나에게 맡겨준 의무를 다했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가.

그 세기가 자기의 과제를 다했다고 하여 그 세기에 산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몫을 다한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 시대에 조국이 자기의 과업을 다했다고 하여 조국의 품속에 안겨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다했다고는 말할수 없다. 누구는 넘쳐하고 누구는 못다하고...

위대한 이 세기에 어머니조국앞에,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두배, 세배, 열배, 스무배로 넘쳐한 사람들, 그들은 력사의 갈피갈피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혁명투사들, 영웅들, 유명무명의 애국충

신들인것이다.

허나 나는 부끄럽게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
했다. 제나름으로는 자기 의무를 다하느라 애썼건
만...

은은하게 울리는 전자벽시계의 종소리가 나의 상
념을 깨뜨린다.

드디어 새날, 아니 새해가 온것이다.

한번, 두번... 시계종소리를 세여가는 나의 마음
속에 회오의 감정이 그들먹이 차오른다.

2000년, 20세기의 마지막해.

이제 한해를 보내면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가 시

작된다.

이 한해를, 한해 365일을 3650일로 곱잡고 살아
이 세기에 다하지 못한 나의 의무를 다하자.

분발해야겠다. 구보로 달려야겠다. 아니 습보로
달음박질쳐야겠다.

내 비록 머리엔 흰서리가 내리고 몸도 늙었지만
마음만은, 넋만은 젊게 가지고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살아야겠다.

하여 이 세기를 깨끗이 마무리짓고 떳떳한 마음
으로 21세기의 문어구에 들어서리라!

새별

김정일

그이는 영광의 성스러운 상징

그이는 희망의 성스러운 상징

새별

혁명의 불길속에서

백두에 솟아오른 새별

그이는 찬란한 미래와 희망의 상징이시여라

새별

위대한 주체리론을 완성하시고

주체위업을 이어나가시는

그이는 현시대의 위대한 영재이시여라

새별

지혜롭고 지칠줄 모르시는

완강하고 세련된 령도자

가사

구내에 설레는 한그루 나무에도

내 한생의 추억이 어리어있네

어머니조국에 사랑을 바치며

걸어온 삶의 자욱 여기 있어라

아, 나의 공장 정든 나의 집이여

기쁨도 아픔도 조국과 함께 하며

다정한 한식구로 우리 사는곳

무쇠마치 틀어잡고 우리 땅을 옹위하는

마마두 까누때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이시여라

새별

전체 인민의 행복을

언제나 마련하고계시는

김정일 동지

새별

향도의 별

조선인민에게 영광을 주고

모든 진보적인류에게 영광을 주나니

노래하자 위력하고 빛나는 조선

주체의 조국의 령도자를

노래부르노라 김정일 동지는

인민의 경애하는 지도자이시라고

(필자는 말리작가임)

나의 공장

김영철

계급의 큰 심장을 여기서 키웠네

아, 나의 공장 정든 나의 집이여

부강조국 래일을 로동으로 꽃피우며

내 삶의 닳을 내린 정다운 품아

장군님 높이 모신 강성대국 내 나라

내 한생 끝까지 여기서 받들리

아, 나의 공장 정든 나의 집이여

언어생활과 성구

김수성

언어는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다.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파악이 없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할줄 모르면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거나 표시하기도 어려우며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우리는 흔히 언어생활과 문학작품들에서 성구를 쓰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오랜 역사적시기를 통하여 전해오는 성구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나니 성구의 의미와 그와 관련한 고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습관상으로 쓰거나 레사로운 생활속에서와 문학작품들에서 띄여지는 성구의 의미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스쳐지나는 경우도 있다.

성구는 두개이상의 단어들 이 결합되어 하나의 단일적이고도 통일적인 뜻을 나타내는 공고한 단어결합체이며 언어표현수법의 하나이다.

성구는 비록 몇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지만 거기에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 교훈 등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많은 성구들을 대상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적중하게 활용하심으로써 문장의 간결성과 론리성, 포괄성과 함축성을 보장하시면서도 깊은 뜻과 풍부한 내용을 담으시여 혁명적문풍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여기서는 성구에 대한 이해에 일정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있는 몇개의 4자성구에 대한 의미를 주고 여러 측면에서 해설하였다.

古今東西 (옛 고, 이제 금, 동녘 동, 서녘 서)

이 성구의 의미는 시간적으로는 옛날과 지금, 지역적으로는 동쪽과 서쪽이라는 뜻으로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어디에》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즉 《동서고금에 없다》는 말은 이 세상 그 어느때, 그 어느곳에도 없다는 뜻이다.

沙上樓閣 (모래 사, 옷 상, 다락 루, 집 각)

모래 위에 지어놓은 다락집이라는 뜻으로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한것 같지만 밑바탕이 든든치 못하여 허물어지기 쉽게 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空理空談 (빈 공, 리치 리, 빌 공, 말씀 담)

빈 리치와 빈 말이라는 뜻이다.

다시말하여 실천이 없는 이론, 내용이 없고 쓸데 없는 말이라는 의미로서 현실적가치와 의의가 없는 문제들을 론하는 상황을 이룬다.

同苦同樂 (한가지 동, 쓸 고, 한가지 동, 즐거울 락) 피로움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라는 뜻으로 고생과 피로움,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눈다는 말이다.

虎視眈眈 (범 호, 볼 시, 탐낼 탐, 탐낼 탐)

범의 눈초리로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것을 먹여치우거나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욕심을 품고 날카롭게 형세를 살피며 기회를 노리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天人共怒 (하늘 천, 사람 인, 함께 공, 노할 노)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그 어떤 행위와 사건에 대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분노하며 치를 떠는 의미이다.

伸縮自在 (펼 신, 줄일 축, 스스로 자, 있을 재)

늘었다줄었다 하는것이 아무 구애됨이 없다는 뜻으로 조건과 환경에 맞게 움직이는것이 여유가 있고 구속이 없다는 의미이다.

自畫自讚 (스스로 자, 그림 화, 스스로 자, 칭찬할 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스스로 자랑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스스로가 칭찬함을 이르는 말이다.

五里霧中 (다섯 오, 마을 리, 안개 무, 가운데 중)

사방 5리나 되는 넓은 범위에 낀 안개속이라는 뜻으로 그 어떤 일의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수 없는 묘연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우의 성구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4자성구들은 대체로 두개의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이루어졌으며 매개의 글자는 자기의 고유한 독자적인 의미들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모든 4자성구들이 구를 이루고있는 매개의 글자가 다 자기의 독자적인 뜻을 나타내는 글자들로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간혹 어떤 성구들에는 자기의 뜻을 가지지 못하고 어조의 순탄성이나 구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끼여놓은 글자들도 있다.

啞然失色 (병어리 아, 그러할 연, 잃을 실, 빛색)

병어리가 되고 얼굴색을 잃었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서 낮빛이 질리거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놀라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渾然一體 (흐릴 혼, 그러할 연, 한 일, 몸 체)

섞인것이 하나의 몸체로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섞이었으나 온화하고 고르로와 한물체 같거나 한사람처럼 숨쉬고 행동하면서 한덩어리로 굳게 뭉치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이 두개의 성구들에 쓰인 《그러할 연》자는 자기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 쓰인것이 아니라 품사조성의 뒤불이로 쓰이면서 번역은 하지 않고 다만 어조의 순탄성을 보장하며 구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었다.

搖之不動(흔들 요, 갈 지, 아니 부, 움직일 동)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그 어떤 상태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끄떡없거나 움직안하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 쓰인 《갈 지》자 역시 구를 맞추고 어조의 순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었다. 그러나 글자가 놓인 구조에 따라 앞에서 제시된 대상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적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어떤 4자성구들에는 구를 이루고있는 글자들에 일부 글자를 끼워넣음으로써 구를 맞추거나 어조의 순탄성을 보장하며 우리 말 토의 의미를 나타내는것도 있다.

이밖에도 4자성구들에는 고사와 관련된 성구들도 많다. 이러한 성구들은 거기에 담겨진 고사 즉 어언적유래를 모르고서는 그 의미가 전혀 안겨오지 않고 단순히 앞뒤말과 문장내용과의 연관속에서만 어렵듯이 그 뜻과 의미를 느낄수 있다.

실례로 《결초보은》이란 성구는 일반적으로 꼭 은혜를 갚겠다는 의미로 알고 습관상으로 써오지만 자기가 죽은후에라도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는 진의미와 어언적유래를 정확히 알고쓰는 현상은 그리 쉽다.

때문에 이러한 4자성구들의 유래를 알아야만 그 뜻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의 특성과 주어진 환경, 조건에 맞게 옳바로 활용할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어 흔하게 쓰이는 성구 몇개와 그에 대한 유래를 주었다.

咸興差使(다 함, 일 흥, 어긋날 차, 하여금 사)

함흥에 보낸 차사(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주어 특별히 파견하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심부름 같은 것으로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성구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봉건왕조의 초대왕 태조가 자기의 둘째아들(만아들은 죽었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본궁이 있는 함흥으로 내려갔다. 이때 정권욕이 남다르게 강하고 야심이었던 다섯째아들 방원이 형은 왕위를 이을 재목이 못되며 태조가 정권을 잡을 당시 자기가 큰 공적을 세웠다는 명목아래 형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아 자기가 왕으로 되었다.

이 소식을 함흥에서 들은 태조는 대노하여 옥새를 넘겨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는 태조의 노여움을 풀어보자고 방원이 여러 차례 차사를 임명하여 함흥으로 보냈으나 그때마다 태조는 그 차사들을 모조리 죽어버렸다.

이로부터 《함흥차사》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漁夫之利(고기잡을 어, 지아비 부, 갈 지, 리로울 리)

어부의 리익이라는 뜻으로 량편이 서로 다투고 있는 사이에 다른 제삼자가 리익을 보게 된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어부지리》라는 성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유래되었다.

먼 옛날 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황새와 조개가 싸움이 붙은것이다.

긴 부리로 순간에 먹이를 쏘아먹는 묘기를 가지고있는 황새가 입을 벌리고있던 큰 조개의 살을 노리고 공격을 단행하자 그 순간 조개는 두터운 조가비로 황새의 부리를 힘껏 물었던것이다.

거만한 황새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듯 조개는 더더욱 강한 힘으로 황새의 부리를 압박했고 부리를 잡히운 황새는 그것을 뽑으려고 무진애를 썼다.

서로 적수가 되어 물고 물리워서 모지름을 쓰고 있을 때 어부는 생각지도 않았던 황새와 조개를 손쉽게 잡을수 있었다.

四面楚歌(넋 사, 낮 먼, 초나라 초, 노래 가)

한자들을 해석하면 사망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울린다는 뜻이다.

옛날 중국의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움을 할 때 한왕 류방의 군사들이 초왕 항우와 그의 군사들을 공격하여 해하에서 완전히 포위하고 성안에 몰아넣었다.

무모한 공격으로는 초나라군사들을 쉽게 격파할수 없다고 생각한 한나라군사들은 한가지 계책을 생각하고 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있는 자기의 군사들로 하여금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한밤중에 성안에서 초나라의 노래 그것도 민요를 부르는 한나라군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항우는 초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한나라에 항복한줄 알고 완전히 사기를 잃게 되었다.

항우는 자기 장막에서 마지막주연을 벌리고 《내힘은 산을 뽑아버리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한데 때가 불리하기때문이다》고 한탄하고는 800여기의 군마를 이끌고 성남쪽으로 패주하였다.

《사면초가》라는 성구는 이런 력사적인 사실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오늘날 사면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거나 도움이 없이 고립무원한 상태에 있음을 《사면초가》에 비겨 말하게 되었다.

臥薪嘗膽(누을 와, 씹 신, 맛볼 상, 쓸개 담)

쉴나무(떨나무단)우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

으로 제 몸을 스스로 괴롭혀서 기어이 원쑤를 갚고 야말 굳은 결의와 투지를 키워가는것 또는 원쑤를 갚거나 보복하기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마음속으로 격려해나가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은 중국의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시 생겨나게 되었다.

월나라와의 싸움시에 아버지를 잃은 오왕 부차는 기어이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 일념으로 잔등을 찌르는 쉼나무우에서 불편하게 자면서 들어오는 부하들로 하여금 《부차야, 월나라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것을 잊었느냐.》라고 말하게 하면서 복수의 맹세를 순간도 잊지 않게 하였으며 마침내 월왕 구천을 회계산에서 사로잡게 되었다.

한편 퇴물을 먹은 오왕 신하의 도움으로 겨우 살 아난 구천은 자기 나라로 돌아와 앉거나 눕는 자리

우에 쓰디쓴 쓸개를 매달아놓고 그것을 맛보면서 《너는 회계산의 수치를 잊었는가》고 스스로 원쑤칠 마음을 격려하였으며 백성을 키우고 군사를 단련시켜 끝내는 오왕 부차를 사로잡아 죽이였다.

이렇게 《와신》과 《상담》은 원쑤를 치고 복수하기 위한 투지와 의지를 키워가는데서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것이 《와신상담》이라는 한개의 성구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4자성구들은 비록 몇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담고있는 뜻과 내용이 풍부하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우리는 한자로 이루어진 4자성구들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히 가지고 오늘의 언어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언어생활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상식

마음의 로화를 막자면

-나이가 많아져도 정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정열의 원천은 관심에 있다. 흥미있는 일을 해제 끼면 황홀감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마음의 정열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으로 된다.

-생활에서 고립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젊은이들과 자리를 같이하며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생활하는것은 마음을 젊게 하는데 대단히 좋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

매일 머리를 쓰는것을 계획적으로 정규화하여야

하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멍하게 지내면 더욱더 로화를 촉진시킨다.

-정신적자극을 피하여야 한다.

발끈 성을 내거나 충격을 받아 우는것은 뇌세포를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서나 대범하여야 한다.

-신심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자신과 결부시키면 로화만 촉진시킨다는것을 잊지 말고 《아직 더 일할수 있다》는 신심과 희망을 가지고 구상과 계획을 세워 실행해나가야 한다.

《OK》의 유래

제일먼저 《OK》란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한 체신부문에서 일하고있던 오베드 코리였다.

오베드는 매일 수많은 우편물들을 다루었는데 이 우편물들에는 그가 검사했다는 수표가 있어야 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오베드는 수표할 때 자기의

성과 이름의 첫 영문자모를 따서 《OK》라고 썼다. 그후 미국체신국에서는 전보검수의 확인을 나타내기 위해 《OK》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점차 《OK》는 옳다, 좋다, 된다, 동의한다 등의 뜻으로 광범히 사용되었으며 사회생활의 류행어로 되었다.

천세봉의 인간상과 소설세계를 더듬어

박용학

소설가 천세봉은 생전에 10여편의 장편소설과 2편의 중편소설, 31편의 단편소설을 창작 발표한 현대조선의 저명한 작가이다.

소설가로서의 그의 이름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장편소설인 《석개울의 새봄》과 중편소설들인 《싸우는 마을사람들》과 《흰구름 피는 땅》 그리고 《옥이》를 비롯한 단편소설들이 이전 소련과 중국, 일본과 월남 등에서 출판되었다.

작가 천세봉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재능 있는 소설가로서 그의 창작과 생활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천세봉은 자기의 소설창작으로써 당을 받든 충실한 작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론적인 평론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창작적개성과 창작경험을 깊이있게 분석한 작가론은 작가에게 영예감과 자신심을 줄수 있으며 창작에서 이룩된 독창성과 개성화의 모범을 일반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지난 시기 평론계에서는 천세봉의 창작과 관련하여 새 작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서평(작품평)을 주로 했을뿐 소설가로서의 그의 작가적개성과 특기, 창작수업과 작가에로의 성장, 한마디로 말하여 이 작가의 창작과 생활, 인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연구한 글은 얼마 내놓지 못하였다.

천세봉의 창작에 대한 작가론적인 평론은 오늘의 우리 작가들은 물론 문학을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서 여기에서는 다만 몇가지 측면에서만 천세봉의 작가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작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작품을 알려면 작가를 알아야 하고 작가를 알려면 그의 생활과 인간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것은 문학작품은 작가의 세계관, 미학관의 반영인 동시에 그에는 인간상이 비끼기때문이다. 작가와 작품은 뿔레야 뿔수 없는 혈연의 관계에 있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소설가 천세봉의 소설세계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그가 문단에 진출하게 된 간단한 경위와 그의 인간상에 대하여 잠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알려진바와 같이 천세봉은 주체4(1915)

년 2월 10일 함경남도 고원군 금수리(지금의 덕지리)에서 부친 천도하의 외아들로 대대로 내려오는 빈농의 집에서 출생하였다. 작가의 큰아버지는 물론 삼촌과 아버지 그리고 작가자신도 농민이었다. 극빈농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했고 버림받은 묵은 땅을 두저가면서 난알을 심어 연명하기에 애썼다. 그런데 지주는 피땀들여 일군 그 개기숯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빼앗아내었다. 그리하여 삼촌은 정처없이 금수리를 떠나게 되었고 작가의 일가는 다시는 땀배인 벌로 나오지 못하였다.

어릴적부터 남달리 향학열에 불타던 천세봉은 여섯살되던 해에 마을서당에 들어가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9살까지 여기에서 천자문을 비롯한 옛날 책들을 읽었다.

집안은 날이 갈수록 형세가 어려웠으나 외아들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하나 공부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그의 아버지는 천세봉을 가까스로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힘들게 들어간 학교였으나 다섯달이나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천세봉은 결국 4학년에서 쫓겨나고말았다. 보통학교 4학년 중퇴, 이것이 작가 천세봉의 학력의 전부이다.

이때부터 천세봉은 어지러운 세파에 부대끼면서 인생체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쪽배를 타고 풍파사나운 인생의 난바다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그는 철머슴도 살았고 나무장사도 하였다. 15리나 되는 읍에 가서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래다리가 매시근하여 덕지강의 맑은 물에 발을 잠그며 다리쉬를 했고 책보를 끼고 큰길로 오가는 학생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다.

천세봉은 당시 덕지강하천공사장, 수리조합공사장을 찾아다니며 밀차를 밀기도 했고 평원선철도 공사장에 가서는 1년나마 힘겨운 막로동도 하였다.

한편 이무렵 천세봉은 문맹소년들을 위하여 야학을 개설하였다. 그는 야학에서 주로 천자문과 산술을 가르치고 글짓기도 했는데 그자신도 동요와 노래를 지었다. 이때부터 천세봉의 독학이 시작되었다. 옛날소설들과 신소설들을 닥치는대로 읽었고 잡지들과 신문들도 빠짐없이 읽었다.

작가 천세봉의 독서와 문학수업에서 전환적계기로 된것은 결혼이었다.

그는 스무살되던 해에 장가를 들었는데 안해로

말하면 보통학교때의 은사의 딸이었다. 그가 은사(유창민)의 딸 유무옥과 결혼하게 된다는 그저 넘길수 없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장인 유창민은 고정한 민족주의자로서 식자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에게는 세계문학선집, 뿔스프이선집, 고리끼선집을 비롯하여 우리 말과 일문으로 된 문학도서들과 역사서적들로 꽉 찬 한방이 있었던것이다.

미래의 작가는 책꽂이에 그꼴나게 꽂혀있는 이 책들에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저 많은 책들을 어떻게 하면 죄다 볼수 있겠는가. 그는 앉으나서나 이 생각에 골몰하였다. 책 빌리러 선생의 집을 찾아가면 은사는 또 무슨 책을 보겠는가 하고 하면서 친절히 책을 손에 쥐여주었으나 천세봉은 그때마다 미안한 감을 금할수 없었다. 계속 선생께 그런 식으로 수고를 끼쳐드릴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가져올 때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사의 딸은 소리없이 자기의 보자기를 내어 정성들여 짜주곤했다.

저 처녀와 결혼하면 저렇게 많은 책을 죄다 볼수 있지 않겠는가. 책 빌리러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머리를 스쳤던것이다.

한편 은사는 그대로 깊은 생각에 잠기곤하였다. 저 청년(천세봉)과 딸을 짝무어줄수는 없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우선 청년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보였다. 무서운 항학열과 탐구심, 문학에 대한 소질과 뛰어난 감수력... 공부만 하면 무엇인가 성공할것만 같았다. 그런데 짜지게 가난하다.

머칠을 두고 아니 달포가까이 생각을 굴린 천세봉은 마침내 용단을 내려 친척되는 사람을 내세워 은사에게 청혼의 뜻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그것이 성사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다.

혼사가 되던 날 유창민은 《...내 딸은 남들처럼 육신이 성한것도 아닌데 일없겠는가》고 하면서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직 문학수업 책밖에 안중에 없었던 천세봉은 유무옥과 결연히 인연을 맺었고 주체75(1986)년 4월 18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1년동안 의좋게 지냈던것이다. (사실 작가의 안해는 유년시절에 치료를 잘못한 후환으로 하여 그만 한쪽다리를 약간 전다.) 그러니 유창민의 걱정도 공연한것은 아니였다. 장가를 든 20대의 청년 천세봉으로 말하면 보기 좋은 키에 검은 눈썹이 붓을 댔다가 펜젯처럼 두드러지게 건너가고 류달리 영채도는 눈길로 하여 처녀들의 호감을 끄는 나무랄데 없는 총각이였다. 웃은 비록 허술하게 입고 머슴은 살았으나 남야다운 기품은 감출수 없었던것이다. 얼마나 서운했으면 천세봉의 손아래 녀동생이 어느 하루 결혼전에 총각의 집에 왔다가는 래일의 울케가 걸어가는데를 보고는 《오빠는 무엇이 모자라서...》하면서 어머니 보는데서 저고리고름으로 눈물을 찍었겠는가.

천세봉의 류다른 결혼, 여기에 그의 문학도로서의 아니 래일의 큰 작가로서의 참모습이 비껴있고 인간상이 비쳐져있다.

세상에는 정략결혼이라는 말은 있어도 천세봉과 같은 문학결혼이란 어휘는 없다. 그의 결혼을 과연 무엇이라고 명명해야겠는지 책들과 사전에는 그것이 없다.

세월은 흘러 그는 《석개울의 새봄》(1, 2, 3부), 《대하는 흐른다》(1부), 《고난의 력사》(1부)와 같은 큰 장편소설들을 련이어 세상에 발표하였으며 소설들은 나오자마자 독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널리 애독되였다. 당시 이 소설에 그려진 배명희나 통이를 비롯한 녀성들의 아름다운 형상에 매혹된 호기심이 많은 청년독자들은 작가의 안해도 필경 미모의 녀성일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논으로 확인할 심산밑에 작가의 집을 방문까지 하였다고 한다...

인간으로서의 천세봉은 한마디로 말하여 소박성과 선량성, 진실성과 겸허성으로 특징된다고 말할수 있다.

《정말 훌륭한분이였지요. 오직 창작밖에 모르는 참된 인간이였지요.》

나는 이번에 천세봉의 창작과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하여 현재 문단에서 활동하고있는 판록있는 여러 선배작가들과 작가의 고향에 가서 여러 연고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듯이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름있는 작가로서의 티를 낼줄 모르고 자기를 언제나 평범한 문학도, 작가의 위치에 세우고 생활하고 창작한것이 천세봉이였다. 그는 성과작을 내어 동년배의 작가들과 벗들이 진심으로 축하하면 그것을 오히려 면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허허...》웃는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는 새해축하장도 제자들에게 먼저 보내곤하였다고 한다.

그는 고향에서 창작할 때에는 두말할것도 없었고 평양에 올라왔을 때에도 작가라기보다 그저 소박한 농민에 지나지 않는 생활을 하였다.

그는 글쓰러 어디에 출장갈 때에도 특별한 준비품이 없었다. 있다면 고추장단지와 담배, 학습장(때로는 원고지) 이것이 준비품의 전부였다.

그는 초대소나 휴양소 같은데 가서 창작할 때에도 그전날 관습대로 강냉이숙에 짜리코짬이를 쪄온 잔등굽개를 가지고다녔다 한다. 그래서 작가들이 《아니, 이게 뭐니까. 농촌할아버지처럼...》하면서 버릴것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이것이 제일 좋다면서 그것을 늘 리용했다고 한다.

담배이야기가 났으니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사실 천세봉은 기호나 취미에 있어서 특별히 지적할것이 없다. 한것은 그에게서 무미무취다싶이 할 정도로 이렇다할 남다른 취미나 기호를 찾아보기 어렵기때문이다. 그는 애주가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친구들을 찾아다닌것은 아니였으며 우정 술좌

석을 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에게는 술친구가 없었다. 그는 다만 반주를 무척 즐겼을 따름이다.

천세봉은 지독스러운 애연가였다. 그는 원고를 쓸 때에는 노상 담배를 놓지 않았다. 하루에 한갑이상 아니 어떤 때에는 두갑에 가까운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그래서 작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십년 작가의 뒤바라지를 했으며 평생의 고락을 같이한 그의 안해는 남편의 명구에 생전에 그가 그렇게도 즐겨 피우던 담배 한갑과 물부리를 넣어서 보냈다고 한다.

천세봉은 선량하고 의리가 깊었으며 처세를 몰랐다. 그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사심을 몰랐고 모든것을 바쳤다. 그가 한고향 작가가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없는 세간살이었으나 온갖 정성을 다 바쳐 도와나섬으로써 마침내 그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작가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천세봉이 제일 증오하고 참지 못해한것은 처세술이었다.

결혼후 천세봉은 그전처럼 자기가 직접 은사의 집에 책 빌리러 가지 않아도 되었다. 한주일에 한번씩 그의 안해가 한보따리씩 책을 날라왔던것이다.

천세봉은 우리 나라의 고전작품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문학선집에 수록되어있는 작품은 물론 력사, 지리, 철학 서적들을 열독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그는 견문을 넓히게 되었고 문학예술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으며 창작적충동에 사로잡혀 시도 쓰고 회곡도 써보았다.

8.15조국해방은 천세봉의 생활에도 새로운 전변을 가져왔다.

해방직후 천세봉은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농민조합을 조직하는데 발벗고나섰고 그자신이 한개 면의 농민조합조직을 책임지고 각 부락으로 돌아다니며 농조를 무었다.

이 시기 천세봉은 군자치위원회 재정과장도 했고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자 군내면이라는 한 지역에 나가 토지개혁사업을 직접 말아하기도 하였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1,200평의 땅을 분여받았다.

천세봉은 주체35(1946)년 8월 이후 고원군당문화인부장으로 사업하다가 주체36(1947)년 봄 위병으로 앓아눕게 되자 병도 고치고 창작을 할 일념밑에 사업을 인계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천세봉은 고원인민유격대에 들어가 《유격대통신》 편집사업도 했고 적을 죽치는 전투들에도 참가하였다. 이때의 공로로 하여 그는 주체40(1951)년에 공로메달을 수여받았다.

마음이 해방되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야수적만행을 감행한 악질치안대놈들을 처단하는 등 밤낮이 따로없이 뛰여다녔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후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협동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천세봉은 마을에 협동조합을 내오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자신도 준비위원회 성원으로 되었다. 그때 천세봉의 집은 모임장소로 되었다고 한다. 처음으로 조합을 묶는것만큼 애로와 난관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 안타까울 때마다 마을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스스럼없이 사업을 의논하곤하였던것이다. 이것이 대체로 직업적인 작가로 되기까지의 천세봉의 생활사취이다.

천세봉은 작가로 되기까지 고향에서 농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생활한 실제상의 농민이었다.

그는 고향에서 머슴살이와 고용로동으로 잔뼈가 굳어졌고 새 조국 건설과 조국해방전쟁, 농업협동의 직접적참가자였으며 투쟁과 생활의 정로를 걸은 이 나라의 훌륭한 공민이었다. 이러한 사이에 그의 몸에서는 저도 몰래 흙내가 배이게 되었고 고향과 땅에 대한 사랑이 깊어갔다.

고향, 땅, 천세봉, 소설가는 이렇게 련결되었다. 고향을 떠나 천세봉이 없고 땅을 떠나 작가로서의 그가 없다. 그는 생활적으로 아니 운명적으로 이렇게 깊이 련결되었다.

천세봉은 투쟁과 생활의 관조자가 아니라 그 직접적참가자, 적극적인 창조자였기에 농촌주체의 소설을 쓰는데서는 따로 그 무슨 취재가 필요되지 않았다.

생활의 풍부한 체험을 거친 진보적인 작가중에는 로씨야의 고리끼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로씨야에서의 정권쟁취를 위한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한것은 아니었고 그자신이 직접 투쟁의 와류속에 뛰어들면서 작가수업을 했거나 창작을 한것은 아니었다.

작가 천세봉은 해방전 머슴살이와 고용로동을 통하여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과 고통을 사무치게 느꼈고 해방후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누리면서 아버지수령에 대한 고마움을 심장으로 느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총을 메고 원쑤를 치는 싸움에서, 농업협동화시기 역시 그 직접적참가자, 집행자의 소중한 체험속에서 혁명의 진리,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배웠으며 그속에서 작가수업을 했고 소설가로 자라나게 되었다.

현실은 그에게 있어서 진정 선생이였고 대학이었다. 이 생활과 투쟁속에서 인간수업도 쌓아나갔다. 천세봉은 책상물림의 작가가 아니다. 그는 생활의 대학을 나온 작가이며 생활체험에 온몸이 절은 작가이다.

작가는 생활속에서 나온다.

생활을 떠나 문학이 없고 체험을 떠난 창작이 없다. 취재수첩이나 뒤지면서 인상을 더듬어가며 쓰는 글은 생활의 진리를 담을수 없고 독자들을 절대로 감동시킬수 없다.

창작은 생활체험의 산물이다.

정규대학을 나온 재능이 반짝이는 문학도라 해도 체험이 없이는 큰글, 깊이있는 글을 쓸수 없고 그 재능도 종당에는 인차 시들고만다.

작가의 몸에는 생활이 배이고 그것이 풍겨야 한다. 그래서 작가에게는 《창작기지》가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창작기지》도 없고 정통한 생활분야도 없으면서 창작을 하겠다는것은 이발이 나지 않았는데 콩밥을 먹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작가에게서는 천세봉처럼 흠냄새가 나든 윤세종과 같이 기름내가 나든 어쨌든 생활체험의 보물고야 있어야 한다.

작가는 생활의 철학을 푸는 인간정신의 기사이다. 작가는 생활의 철학을 예술적형상으로 해명한다. 철학이 없거나 빈곤한 작품, 생활이 없는 작품처럼 메마르고 따분한것은 없으며 그러한 작품은 예술적 감흥을 불러내지 못한다.

생활을 알고 인간을 알아! 알되 지식으로써가 아니라 생활적으로 알고 체험으로 터득하자!

바로 이것이 작가에로의 가는 길에서 누구나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될 외나무다리이다.

지금 농촌물을 다룬 일부 장중편소설들이 분명히 무대는 농촌을 하고있으나 향촌의 정취가 없고 농촌고유의 생활과 인간이 안겨오지 않는것은 다 작가들에게 체험된 농촌생활이 없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어떤 장중편들에서는 외진 산촌의 생활에 대하여 쓴다고는 하나 산촌이란 단어만 빼면 별방 지대에 무대를 옮겨도 무방한 그러한 작품들이 버젓이 나오고있는것도 다 체험된 생활은 없고 취재노트나 뒤지면서 안일하게 창작한 결과인것이다.

소설가 천세봉은 고향, 땅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어있다. 천세봉에게 있어서는 고향을 떠나 그가 없고 땅을 떠나 그의 작가적존재가 없는것이다.

천세봉의 경우 고향과 땅은 그것이 곧 생활이고 《창작기지》이며 아무리 퍼내고퍼내어도 끝을 모르는 생활의 무한한 저수지이다.

이 생활의 무한정한 바다를 가지고있기에 그는 농촌물을 다루는데서는 경쟁자가 없는 작가로 되었고 바로 그 농촌생활을 통하여 8.15해방과 조국해방전쟁, 농업협동화와 같은 거대한 사회력사적사변들을 변두리에서가 아니라 정면에서 그릴수 있었고 그것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절대적우월성을 본질적측면에서 보여줄수 있었으며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힘있게, 그것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할수 있었던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작가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고향과 땅이거나 어촌 아니면 공장지구, 산관이 아니면 군대생활 등으로 혈연적으로 련결된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어쨌든 현실

생활과 밀착되어야 하며 그것을 체험한 작가가 되어야 하는것이다.

작가는 현실속에서, 체험된 생활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참된 인간에게서만 진정한 인간학이 나온다. 이것이 천세봉의 인간상과 생활로정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주되는 결론의 하나이다.

고향, 땅, 생활 속에서 퍼낸 문학

천세봉의 소설에서 땅냄새, 흠냄새가 물씬물씬 나고 농민들의 숨결과 입김이 확확 안겨오는것은 그의 문학이 생활속에서 퍼낸것이기때문이다.

작가 천세봉은 자기가 정통한 농민들의 생활속에서 소재를 잡고 등장인물들을 설정하였으며 자기의 소설창작을 통하여 그 생활을 깊이 파고든 작가였다.

천세봉의 소설에는 허구가 없고 뜬 이야기가 없다. 그의 작품에는 작가가 직접 체험한 생활이 아니면 그 주변에서 실지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여기에 그의 소설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천세봉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간 성격과 생활이 이처럼 진실하고 생동한것은 모두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진실성과 생동성이야말로 천세봉의 소설이 사람들을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작품세계에 끌려들어가게 하는 비결의 하나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설이라는 관념을 잊어버리고 실지 생활을 눈앞에서 보는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것이다. 여기에 또한 그의 소설의 거대한 감화력과 견인력이 있고 생활력이 또한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작가의 수기 한 대목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한다.

《<석개울의 새봄> 1, 2부가 련재되어 나가기 시작하자 나는 갑자기 많은 독자들과 련계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독자들은 한결같이 작가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대하여 작가와 론쟁을 걸어왔습니다. 편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느날엔 우리 마을의 관리위원장이 원산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 감사하우다.>

그는 밀도끝도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나의 두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군.>

<내가 별일 다 겪지 않았소. 허허허.>

그는 입이 헤벌어져 마당이 들썩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를 마루에 앉히고 무슨 일인가고 물었습니다.

<내 말하겠수다. 선생, 난 창혁이가 됐수다.>

<허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내가 이상해하자 그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전 원산에서 관리위원장들의 무슨 회의가 있어서 나갔었다는것입니다. 회의에는 관리위원장들이 수백명 모여왔는데 두루두루 인사소개가 오가다가 고원에서 금수리관리위원장이 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이튿날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회의장에 앉았던 사람들이 사회측에 제기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제기인즉 석개울에서 김창혁관리위원장이 왔는데 그를 주석단에 올려앉히고 회의를 하자는것이였습니다.

사회자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얼떨떨해있다가 금수리관리위원장이 왔는데 그가 김창혁이가 틀림없으니 그를 주석단에 앉히자고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제기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내에 박수가 터지고 관리위원장동무는 옆사람들에게 떠밀려 주석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뛰어올라와 그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는것이였습니다. 그는 그날 주석단에 올라앉았을뿐만아니라 사람들의 독촉에 못이겨 조합의 력사에 대해서 토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창혁>이가 되어서 술한 잔을 받기도 하고 려관방으로 모여오는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밤잠도 못잤노라고 했습니다.

<허허허, 감사덕에 비장이 호강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선생이 우리 조합을 위해서 큰일을 했수다.>

그는 이러며 내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변변치 않은 작품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들앞에 머리가 숙어지고 감사한 생각이 울컥 치미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현실과 문학이 밀착되고 작품이 진실했으면 금수리(오늘의 덕지리)관리위원장을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주인공 창혁이라고 했으며 그를 공식회의 주석단에까지 앉히였겠는가.

현실에 발붙인 문학, 생활을 진실하게 그린 주체 사실주의문학은 이처럼 견인력있고 생활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석개울의 새봄》에 그려진 인물들과 생활은 다름아닌 금수리의 생활 그대로이고 그 사람들이였으며 바로 그렇게 독자들에게 인식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책상물림의 작가의 창작에서는 상상할수 없고 오직 현실생활의 바다를 헤쳐온 작가의 창작에서만 있을수 있는 감동적인 일화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활에 뿌리박고 거기에서 솟아난 문학, 현실생활을 가식없이 진실하게 그린 주체

사실주의문학의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에 대하여 새삼스러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천세봉의 첫 장편소설이며 대표작인 《석개울의 새봄》(1, 2, 3부)과 첫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대하는 흐른다》(1부)와 《고난의 력사》(1부)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도 다 이 작가의 체험속에서 나온 소설들이다.

작가 천세봉이 세계적인 작가, 대가로서의 역량과 재능을 유감없이 과시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1, 2, 3부)은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천세봉은 농업협동화의 새 력사가 펼쳐질 때 그 자신이 직접 이 운동에 발벗고나섬으로써 력사의 증견자가 아니라 그 투쟁과 생활의 앞장에 선 기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작가는 이 방대한 소설을 쓰면서 소재의 빈곤이나 생활재료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거의모두가 실제의 원형이 있었으며 지형지물도 다 고향땅에서 취한것이였다.

나는 지난해 10월초에 작가의 고향에 직접 가서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이 작가의 소설들이 그의 고향과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대하여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온바 있었으나 나는 그의 고향땅을 밟아보고서 그것을 제논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달래강, 비룡강, 금사강으로 의칭되어 그려진 덕지강은 강으로서의 손색없는 200리 장강이였다.

강 량안에 구축된 제방과 제방사이의 거리는 500메터가 실히 되었는데 장마가 저 물이 불어나면 강은 마치 바다처럼 보였다.

이 강으로는 철따라 황어, 련어, 송어가 올라와 그것을 잡는 고기잡이군들로 하여 강의 운치가 돋구어졌다 한다.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수정같이 맑았고 바람이 일면 흰갈기를 날리였다. 이 강기슭에서 작가는 유년시절 자맥질을 하면서 자랐고 청운의 뜻을 품게 되었으며 깨끗하고 순결한 정서를 키워갔다.

덕지강의 자랑의 하나는 안개이다. 이 강에는 자주 안개가 자욱히 낀다. 아침해살을 받으며 강우에 낀 안개가 서서히 걷힐적이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일대 장관이다.

천세봉이 자기 작품들에서 안개에 대하여 것처럼 자주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있는 까닭도 나는 심분리해할수 있었다.

작가가 자기 장편소설의 제명을 《석개울의 새봄》이라고 한것도 머리속에서 고안해낸것이 아니다. 석개울이란 원래 마을이름이 아니고 돌이 많은 개울이란 뜻에서 기원된것이다. 덕지강에는 아름다운 돌이 많다. 오랜 세월을 두고 비에 씻기우고 씻겨서 그런지 아름답리 돌들은 희디흰 빛을 내였다. 큰 바위를 토막쳐낸듯한 이 돌은 덕지강상류를 따

라 그 옛날의 금수리 가까이에 올라가면서 특히 많았다. 그래서 덕지강을 그 마을사람들은 특별히 석개울이라고도 다정스럽게 불렀는데 작가는 그것을 장편소설의 제명으로 하였던 것이다.

나는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날밤 읍에 간 창혁의 신상이 못내 걱정되어 《관리위원장동무》라고 부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룡이가 건넌 덕지강의 하류도 보았고 창혁이가 산림보호원과 달구지를 타고가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 인상깊은 산책길도 걸어보았고 삼봉산의 채석장도 가보았으며 룡이 어머니로부터 자기 딸을 제발 잊어달라는 《선고》를 받고 쓰린 가슴을 부여안으며 창혁이가 터벅터벅 걸었던 그 언덕밭이길도 밟아보았다.

그러나 《석개울의 새봄》(제2부)에 있는 《마음을 울리는것》의 장면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면서 새삼스러이 소설의 세계에 묻히었다.

《결별》의 선고를 받은 창혁은 쓰린 가슴을 달래려고 인삼을 한병을 통채로 마셨으나 마음의 아픔은 더하기만 하였다.

처음엔 분격을 느끼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룡이 어머니가 리해가 되었고 괜히 자기가 분격했다는 뉘우침이 들었다. 애지중지 키워온 제 딸을 후실로 주기 좋아할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다면 룡이를 잊어야 한단 말인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이니 잊을수도 없지 않는가.

사랑하면서도 잊어야 하니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괴로운 시각에 운명의 희롱인가 금란이가 나타난 것이다. 창혁이는 《홍, 초상난 집에 복새군까지 나타났군. 어디 사람을 실컷 녹여봐라!... 어렵다.》내심 이렇게 다짐했으나 꽃같은 청춘이 시들어버린 금란에 대한 애뜻한 동정심의 불길이 치밀어올랐다.

금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창혁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씻어주었다.

그들은 사랑할수 없는 서로의 처지였으나 감정적으로는 사랑하고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창혁은 이성적으로 자기를 지켜냈다.

창혁이가 가버리자 금란이는 그만 풀밭에 쓰러져 울었다.

하늘중천에 뜬 달만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여기에는 인간심리의 변증법이 있고 철학이 있다.

폭탄 《선고》를 받아 쓰린 가슴을 부여안고있던 창혁이었으나 금란에게 애정을 느끼고있으면서도 자기를 억제해 지켜낸 그, 허지만 사람의 심장은 돌이 아니어서 이성으로서의련정을 체험하게 되는 창혁, 여기에서 우리는 원칙이 강하면서도 다감한 참된 인간으로서의 창혁이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엿보게 되는 것이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생활이 있고 철학이 있다. 철학이 있고 생활이 있는것이 아니다. 생활의 풍부한 묘사, 인간과 생활의 진실한 사실주의적묘사속에 철학도 있고 정서도 있다.

천세봉의 소설에서의 철학성은 이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진실성에 있다. 그는 소설에서 선언하기를 싫어하고 잔사설질을 하길 좋아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엄정한 생활의 진실을 담는데 심혈을 쏟아부었고 거기에서 철학성도 보여주곤 하였다. 천세봉의 소설에는 생활이 있고 철학이 있었다. 현실생활그대로의 풍부성, 랭혹한 생활반영의 진실성에 의하여 철학도 밝혀졌고 사색과 여론도 조건지어졌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인물성격들은 모두가 실제의 그 고장사람들을 원형으로 하였다.

주인공 김창혁의 원형은 당시 제대군인으로서 금수리관리위원장이었다. 조씨성을 가진 그는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원칙성과 전개력이 대단하였다 한다.

룡이의 전형은 관리위원회적으로 칭찬이 자자한 조씨성의 처녀조합원이었다. 그는 대바르고 의리깊은 처녀였으며 인물도 깨끗하였다 한다.

작가는 이들을 원형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매혹적인 전형을 창조하였다.

소설의 주요인물인 역삼이와 탁수일도 실제의 원형에 기초하여 그려진 인물이었다. 역삼이의 원형은 《곰반장》으로 불리운 사람으로서 성격이 과격하고 일밖에 모른 사람이었다.

마음씨 바른 조희모와 조형모 역시 원형에 의하여 창조된 인물이었다. 마령감이 작가의 백부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부정인물들도 다 원형에 의거하고있다.

강덕기의 원형은 해방전 지주이며 청부업자로서 수많은 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소작주여 고혈을 짜냈다 한다.

서기표의 원형은 정씨성을 가진 투전군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딸까지 팔았다. 그가 한창 돈을 긁어모을 때에는 100리에 하나씩 애첩을 두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고 한다.

박병천도 원형에 기초한 인물이다. 박병천은 식민지사회에서 건달을 부리고 협잡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버릇된 전형적인 건달군, 협잡군이다. 건달군, 협잡군으로서의 놀라운 기질은 그의 사고방식과 일거일동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높은 경지에서 개성화됨으로써 부정인물 전형으로 되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의 이야고는 자본주의 초기기 간사하고 교활한자의 세계적전형이라면 박병천은 외래침략자들이 살판치는 식민지사회에서 상전을 등에 업고 남을 등쳐먹으며 살아가던 악습을 버리지 못한 건달군, 협잡군의 세계적전형이다.

박병천의 원형은 금수리 조 아무개로서 제이를 석자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는데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치안대》대장을 하였다고 한다.

작가는 이 실제의 인물에 기초하여 박병천이를 건달군, 협잡군의 전형으로 창조하였던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석개울의 새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현실에 실재한 원형에 기초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역시 작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였으며 또 잘 알고있는 그 생활속에서 자기 장편소설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려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단순히 작가가 자기가 잘 알고있는 현실, 고향, 땅에서 벌어진 생활을 원형으로 하여 소설을 창작하였다는데만 주목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작가가 고향마을에서 소재를 잡고 실제의 원형에 기초하여 수많은 인물들을 형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의 생활도 그 어느 한 인물도 향토색은 진하면서도 지방적국한성을 띤 그러한 인물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우리 나라 농촌이면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가진 인물로 그려졌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을 돌려야 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이 작가의 전형화의 원숙한 경지가 있고 뛰어난 작가적 재능이 있기때문이다.

사실 작가 천세봉은 해방전에 바다 건너의 일본은 물론이고 압록강이나 두만강너머의 나라들에도 가본적이 없다. 그는 덕지강을 벗삼아 산 작가이다. 그러한 천세봉이 어떻게 되어 자기 작품의 인물들을 것처럼 거대한 판도에서 그릴수 있었고 우리 나라 어느 농업협동조합에서나 만날수 있는 김창혁과 룡이로 그릴수 있었고 서기표나 박병천으로 묘사할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인간과 생활의 본질을 파고드는 작가의 관찰력과 투시력, 시대의 사회력사적사변의 본질에 침투하고 육박하는 작가적자세,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며 열, 백을 하나의 사실속에 집중시켜 보여주는 일반화와 개성화의 솜씨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작가는 고원군의 덕지리라는 한 농촌마을에서 벌어진 사변들을 자기 작품의 소재로 잡고 그 지방사람들을 원형으로 하였으나 김창혁이와 룡이, 역삼이와 조희모 그리고 강덕기와 서기표, 박병천은 덕지리에서만 볼수 있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으며 온 나라 농촌의 그 어디에서나 쉬이 만날수 있는 낮은 인물들로 전형화함으로써 인간과 생활, 시대를 이처럼 심오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여줄수 있었던 것이다.

중편소설 《짜우는 마을사람들》이 조국해방전쟁시기 작가의 생활체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유격대생활의 산 체험이며 《대하는 흐른다》와 《고난의 력사》가 해방의 감격을 안고 작가가 밤낮이 따로없이 뛰어다니면서 토지개혁법령을 실시 집행하면서 느끼고 보고 들은 그 소중한 생활체험의 소산이고 일제통치시기 고난의 력사속에서 자라난 자기 생활의 예술적 반영, 자서전적인 소설이라는데 대하여 여기서 루루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소설가 천세봉은 고향, 땅, 생활과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작가이며 그 사랑하는 고향, 땅이라는 글을 모르는 생활체험의 바다에서 창작의 세계를 탐구하고 거기에 문학의 원천을 둔 작가이다.

하루 200 매의 원고를 쓴 《러명형》의 작가

천세봉은 창작밖에 모른 사람이였다.

독서와 창작, 이것이 천세봉의 생활의 전부였다. 그는 창작을 위하여서는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말 그대로 희생적이었다. 그는 창작에 들어가서는 정녕 무서운 사람이였다.

천세봉은 늘 창작적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작가로서의 그의 생애를 더듬어보면 그는 특별한 휴식이 없었고 공간시간이 없었다. 그는 읽고 사색했고 구상했고 썼다.

천세봉은 창작에 자기의 몸과 마음, 온몸을 내던 작가였다. 그는 모든것을 초월하여 창작하였다.

위병과 치질은 그의 고질적인 질환이었다. 이것으로 하여 그가 쓴 아스피린만 해도 한마대는 실히 잘될 것이다.

그는 몇십년동안 아스피린을 복용하였으며 그것없이 어느 하루도 편히 지낼수 없었다.

천세봉의 자기희생적인 창작태도와 무서운 열정, 그것은 작가로서의 그의 시대적사명감에 대한 높은 자각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그는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를 어엿한 작가로 키워준 당의 고마운 품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 신심을 받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 밑에서만 작가로서의 생애를 깨끗이 마무리할수 있었고 충성으로 빛내일수 있었다는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세상은 완성된 인간이란 없다. 작가도 때로는 궤도에서 탈선할수가 있고 풍파를 겪을수도 있는 것이다. 작가들의 창작생활은 대양 순풍에 돛단 배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못할수도 있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천세봉은 자기의 창작생활에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작가가 용기를 내어 창작하도록 귀중한 교시와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고무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세봉과 관련하여 우리가
키운 작가이니 아끼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시며 크
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고 위대한 장군님께
서는 그가 쓴 혁명소설들의 원고들을 일일이 보아
주시면서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부
어주시었다. 하기에 작가는 자기는 이것을 눈에 흠
이 들어갈 때까지 잊을수 없다면서 당과 수령의 고
마음에 항시 목메어하였던것이다.

믿음과 사랑에 덕으로 보답하는것은 사회적존재
로서의 인간이 가져야 할 초보적인 도덕이며 의리
이다.

하물며 수령과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이야말로 피가 끓고 심장이 뛰
는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과 의리가 아니겠는가.

천세봉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활동과 생활로써
인간이 지녀야 할 의리와 량심을 지킨 성실하고 순
결한 인간이었고 작가였다.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을 취급한 첫
혁명소설 《혁명의 려명》을 쓸 때의 각오와 흥분
은 이룰데 없이 컸다.

지금까지 주로 농촌물만 다루던 작가로서는 실로
아름찬 일이 아닐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혁명의 원리들을 학습해야 했고 우선
은 길림지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했고 지형지물을
손금 들여다보듯해야만 하였다.

작가는 길림지구를 비롯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에
가본적이 없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작가는
결심하고 달라붙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했고 당시 출판물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지도작업을 하였다. 어느 기
판은 어디에 위치했으며 거기에는 어떤 큰 나무가
서있었으며 학교와 음식점은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일일이 표시해나갔다. 그리하여 손색없는 하나의
지도가 만들어졌다. 《정말 용습니다. 아주 신통합
니다. 어떻게 가본듯이 이토록 생동하게 그렸습니
까.》 하고 작가들과 항일투사들이 감탄을 금치 못
해하면 《허허,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까.》 하던
서 미소를 짓곤하였다.

천세봉은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를 창작
할때도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자료작업을 했고
지도를 그렸다.

그는 창작에서 요행수를 바라지 않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것이 없었다. 그는 창작앞에서는 끝없이
검손했고 요구성이 높았다. 작가라면 누구나 다 그
러하다고 하겠지만 천세봉은 정녕 창작에 온 넋을

바쳤다.

이것은 비단 혁명소설을 쓸 때뿐만이 아니었다.

전쟁의 불비가 쏟아지던 나날 천세봉은 집에서부
터 얼마 멀지 않은 뒤산에 방공호를 만들어놓고 거
기에서 밤낮이 따로없이 창작을 했다.

이 방공호에서 그는 두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
사람들》과 《흰구름피는 땅》을 완성하였다.

주체42(1953)년 5월의 어느날이었다.

첫 중편에 이어 《흰구름피는 땅》을 탈고하여
평양의 출판사에 올려보낸 작가의 마음은 저으기
가벼웠다. 한낮이 되어서야 그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안해가 아침밥을 날라오지 않았
다. 여러날 만나보지 못했던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
니를 만나려고 내려갔을 때 뜻밖에도 어머니는 눈
물이 글썽해서 《이사람, 은주가 죽었네.》 하며 아
들을 쳐다보는것이였다.

부엌에서 숨어 울고있던 안해가 달려나오고 큰
아이들이 모여와 울음판을 터뜨렸다.

그제야 그는 딸애가 한 스무날전부터 설사를 하
며 배를 끌어안고 뱅글뱅글 돌아가던 생각이 났다.
그런데 아버지되는 사람은 그애가 더하지 않는지
알아볼 경황도 없이 방공호안에서 밤낮 글만 썼던
것이다.

창작에 전념하다보니 그는 딸애의 병이 그사이에
나아가는지 더해가는지도 모르고있었으며 집에서
는 온 심혼을 바쳐가며 창작을 하는 천세봉에게 알
리지 않았던것이다. 이렇게 되어 다섯살되던 둘째
딸 은주는 갔고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천세봉에게 있어서 창작은 말그대로 전투였고 혁
명사업이였다.

그는 창작에 들어가는는 일체 자기자신과 가정을
잊었다. 오직 작품세계에만 몰혀 사고하고 생활하
였다. 위병이 도져 배를 끌어안고 신음소리를 내면
서도 글을 썼고 치질이 심하여 바로앉을수 없을 때
에는 엎디어 창작을 하였다.

천세봉의 이러한 창작자세, 무서운 열정은 그의
창작속도에서 잘 나타났다.

저명한 작가 천세봉은 하루 200매의 원고를 쓴
《려명형》의 작가이다. 《려명형》의 작가란 주로
새벽에 쓰는 작가를 이르는 말이다.

작가들의 창작상 관습의 면에서 보면 어떤 작가
는 천세봉처럼 주로 새벽녘에 많이 쓰는 《려명
형》의 작가인가 하면 한밤중에 주로 쓰는 《심야
형》의 작가도 있으며 또 어떤 작가는 대낮에만 붓
을 달리는 《백주형》의 작가도 있다.

천세봉은 창작생활 전기간 주로 새벽에 창작하는
《려명형》의 작가였다.

천세봉은 새벽이야말로 고요한 때여서 창작하기 제일 좋다고 늘 이야기하곤하였다. 천세봉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많이 썼다.

세가지 류형의 작가중에서 어느 형이 제일 리상적인가고 물으면 작가들은 물론 제 나름대로 대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느때 쓰는것이 가장 능률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것은 작가들의 창작관습과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이다.

천세봉은 어쨌든 새벽에서도 주로 2시부터 5시 사이에 많이 썼고 한평생 이 시간을 어긴적은 거의 없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주체59(1970)년 4월의 어느날.

넷째아들의 결혼식이 있어 평양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과 출장차로 평양에 올라왔던 고원에 사는 친척이 집에 모이게 되었다. 결혼식이라야 오전부터 벌린것은 아니고 퇴근시간에 맞추어 간단한 폐식을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밤늦게까지 이야기판이 벌어지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노래부르면서 신랑신부를 축하해주었다.

집은 전실까지 네칸이었으나 신랑신부가 한방을 통채로 차지하다나니 천세봉은 가족, 친척들과 함께 한자리에 눕지 않으면 안되었다. 밤도 깊었고 또 모두들 피곤해하는것만큼 그의 안해는 남편더러 오늘밤은 불을 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선선히 동의했다.

그렇지만 남편의 창작적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안해는 그가 또 일어나 책상에 마주앉을것 같아 먼발치에서 그에게 시선을 자주 주게 되었다.

아니다나를가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릴 때 안해는 부엌문밖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는것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해가 부엌에 나가보니 남편은 자그마한 앉은 밥상을 마주하고 한창 글을 써내려가다가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주춤하다가 손을 입에다 대면서 조용하라는것이였다. 밥상우에는 벌써 여러장의 원고 가 덧놓여있었다.

창작은 그 누가 시켜서 하는것이 아니다. 창작처럼 정신적으로 고된 로동은 아마 세상에 없는것 같다. 창작은 그야말로 온 정신력을 집중할것을 요구하며 주인공과 같이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할것을 요구한다.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이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기쁨과 환희에 잠길 때엔 작가도 그러한 환희의 세계에 잠기지만 작중인물들이 시련을 겪고 비분에 잠길 때엔 작가도 함께 울고 슬퍼하며 시련의 길을 걸으며 그것을 자기의 사상감정으로 체험한다. 이것으로 하여 창작이 그처럼 정신적으로 고도의 긴장을 요구하고 정신력을 소모하는지

도 모른다.

그러나 작가는 창작에서 겪게 되는 그 모진 고민과 안타까움, 모태김도 즐겨 감수한다. 아니 환희와 락으로 감수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작가가 스스로 하는 일이며 심장이 가리키고 량심이 가리키는 일을 하기때문이다. 작가는 작품을 쓸 때에는 온 세상을 잊고 녀을 원고지우에 쏟아부으며 고된 로동을 하지만 일단 원고가 끝날 때엔 그런 적이 언제 있었던가싶게 그것을 잊고만다. 원고탈고의 기쁨을 어디에 비기랴.

어느 나라의 이름난 작가가 원고를 끝낸 즉시에 캄캄한 밤이었으나 자기 애인한테 달려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일화도 우연치는 않은것 같다. 창작은 심장으로 하며 량심으로 한다. 심장이 뛰지 않고 순결한 량심이 없이 못하는것이 창작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갈피마다에는 그 작가의 피와 땀, 심장의 박동이 스며있게 된다.

따라서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의 심장의 박동을 들을줄 모르거나 피와 땀이 스며있는것을 볼줄 모르고 감수할줄 모르는 평론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론가라고 할수 없다.

천세봉은 심장으로 문학을 했고 순결한 인간적락심, 당적량심으로 창작의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간 작가였다.

천세봉의 심장은 항시 당과 함께 고동쳤고 당과 수령의 고마움으로 늘 심장이 뜨겁게 맥박쳤다. 그는 수령을 칭송하고 당의 위업을 옹호하는 작품을 쓰는것을 어길수 없는 량심으로 여겼다. 그렇다. 그는 심장과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창작을 하였다. 그러니 어찌 그의 심장이 잠시인들 뛰지 않을수 있으며 열정에 불타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천세봉은 창작적열정으로 온몸을 그대로 불태운 정열의 작가였다.

뿌쉬긴은 가을에 주로 썼고 발자크는 졸음을 쫓기 위해 대야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 발을 잠그고 창작을 했으나 천세봉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림없이 매일 쓰고 또 썼고 늘 창작적열정에 심장을 불태움으로써 졸음을 모르고 붓을 달리었던것이다.

창작에서 그의 미증유의 속도도 이렇게 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자기의 창작실천으로써 작가가 창작적열정에 불타기만 하면 놀라운 속도를 창조할수 있으며 그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있다는 진리를 현실로 확증한 작가였다.

그는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를 60일이 못되어 2,000여매의 원고를 끝내였고 부피 큰 장편소설들인 《고난의 력사》와 《축원》은 6개월동안에 다 집필하였다.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은 한달반사이에 마무리했고 《흰구름피는

땅》은 《싸우는 마을사람들》을 쓸 때 이미 구상을 무르익히었기에 첫 중편을 편집부에 올려보낸지 30일도 못되어 탈고하였다. 천세봉의 경우에는 아무리 큰 장편이라 하더라도 6개월을 넘겨본적이 없었다.

천세봉은 명작인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1, 2, 3부)을 창작할 때 하루 200매의 원고를 썼다. 믿기 어려운 원고매수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하루 200매의 원고를 작가가 직접 제손으로 쓰기에겐 어려운것이다.

소설가 천세봉은 《석개울의 새봄》의 원고를 불러서 썼다. 다시말하여 그는 구술하는 방법으로 창작하였다. 그가 소설을 서서 썼다는것도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작가는 마치도 명주실꾸리를 풀듯 머리속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문장을 방안을 왔다갔다하면서 불러주었고 그것을 《속기원》이 그대로 받아썼다. 이때 작가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진것이 없었고 다만 담배가치만이 손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이럴때면 그는 줄담배를 피웠다. 방안에는 파르스름한 연기가 자욱하였다.

눈보라가 뿔뿔 휘몰아치는 밤이건 7월, 8월의 열기가 지글지글 끓는 밤이건 략엽이 훑날리는 밤이건 작가의 집 방에는 밤새 불이 켜져있었고 《속기원》은 진땀을 빼면서 팔목이 아프도록 부지런히 써나갔다. 이렇게 되어 《석개울의 새봄》을 비롯한 여러 장편소설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작가가 이무렵 성과적인 장편소설들을 연이어 발표하고있는데 대하여 저으기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력사물주제의 다부작장편소설 《림격정》의 작가로 널리 알려졌던 고령의 홍명희선생은 어느 한 편집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사람이 무서운 사람ियो!...》라고 감탄한것을 어찌 우연하다고 하랴.

속기는 원고지에 직접 하지 않고 학습장에 주로 하였다. 천세봉은 많은 원고를 원고지에가 아니라 학습장에 썼는데 처녀작을 비롯한 단편소설들을 창작할 때에는 백지에 연필로 원고지를 그려가지고 썼다.

작가는 《석개울의 새봄》을 창작할 때에도 학습장에 썼다. 그는 학습장에 쓰면 분량도 잘 가늠이 가고 추고하기도 좋은것 같았다.

학습장에 속기한것을 추고하고서는 원고지에 다시 옮겼는데 소설가는 추고를 매우 세밀하고도 엄격히 하곤하였다.

고원군 덕지리에 있는 작가의 고향집뜨락에는 두그루의 감나무와 한그루의 배나무가 우뚝 서있다.

세월은 흘러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어느날 한 작품을 탈고한것을 기념으로 하여 심은 과일나무들에는 감과 배가 풍성하게 열렸다.

사연깊은 감나무와 배나무에 탐스럽게 열린 누런 과일들이 향기를 풍기고 빛을 뿌리듯 우리의 사랑하는 작가 천세봉의 소설도 세월을 두고 빛을 잃지 않을것이다.

병사여 얼굴을 들라

한창우

단잠든 깊은 밤
병실의 고요를 깨치며
되알지게 울리는 소리
-장탄 끝!

잠귀밝은 대원들 일어나보니
젊은 병사 김동무 잠꼬대소리
자면서도 훈련을 하였구나
꿈속에서도 장탄동작 익혔구나

그 마음 기록해서인가
병실엔 때아닌 웃음꽃 피는데

전우들 단잠깨운 송구함으로
젊은 병사 머리숙여 얼굴 붉히네

오 병사여 얼굴을 들라
꿈속에서도 훈련장을 안고사는 네 마음은
언제나 싸움마당을 안고살라신
장군님의 뜻이거니

네 지금은 머리숙여도
승리의 그날
금별메달 번쩍일 네 모습을
온 나라 눈빛들이 쳐다보리라

오후 5시

림화원

《전화받습니다.》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대뜸 아는체를 하였다.

《아, 주인공이 마침 있었구만!》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다. 어찌나 웅글은지 빈항아리주둥이에 입을 맞대고 중얼대는것 같았다. 성희의 교제권에는 그런 목소리의 입자가 없었다.

《저, 뉘신지요?》

《아, 목소리를 듣고도 모르겠나? 난 즉시로 알아맞혔는데... 자, 감격적인 상봉을 하자구! 허허허...》

상대방은 제김에 좋아라 웃음통을 터뜨렸다. 역시 항아리속에서 울려나오는듯한 웃음소리였다. 할 일 없는 싱검둥이가 아침부터 별나게 지분거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성희는 송수화기를 탁 내려놓고말았다.

성희네가 평양역근방의 이 세칸짜리 고층살림집으로 옮겨온지는 사흘밖에 안된다. 성희자신은 지방에 나가서 약초를 캐다가 어제저녁에야 이 낯선 집에 들어섰다. 원래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광복거리로 이사갔다고 하는데 한가지 남겨놓은것이 있었다. 그것은 성희네가 그대로 넘겨받은 전화번호였다.

감격적인 상봉?... 혹시 이사간 집을 찾는 전화는 아니였을가? 어머니는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은 온다고 하였다. 거기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다니! ... 나는 왜 이렇게 덜통할가?

부엌으로 내려간 성희는 가마뚜껑을 열어제끼고 폭 익은 팔을 남비에 퍼담기 시작하였다. 송편속을 할 팔이다. 떡가루는 어제저녁에 망질을 해서 내놓았다.

성희의 일요일계획은 치차처럼 맞물려있다. 그 계획들은 다 오후 5시를 위한것이다. 그것이 어느날의 레사로운 오후 5시라면 무엇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하루 받아가지고 100여리나 되는 길을 허둥지둥 달려왔겠는가. 오후 5시!... 성희만이 알고있는 오후 5시의 시원은 한해반전의 그날에 뿌리를 두고있다.

...김만유병원... 사람들이 주사실앞 복도에서 붐벼대고있었다. 성희는 때를 놓칠세라 주사실로 얼른 빠져들어갔다. 밖에서 간호원의 안타까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거 무작정 밀고들어오려고 하면 어쩔니까. 그 마음들은 다 알겠습니다. 이젠 돌아들 가보십시오!》

채혈의사앞에서 팔을 걷어올리며 성희는 미소를 지었다. 자기도 남을 위하여 피를 바치는 행복한 사람으로 된것이다. 마지막번이면 뭐라나...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회색내의 팔소매를 걷어올린 청년의 굵직한 팔뚝이 성희의 섬약한 팔을 옆으로 우악스럽게 밀어제졌다.

《동문 왜 끼여들면서 그래요?》

회색내의는 무례하게도 픽!- 하는 코웃음으로 대답하였다. 눈이 부리부리한 청년이었다.

성희는 방조를 청하는 눈길로 의사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늙스그레한 그 의사는 거기에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들의 분쟁을 어물쩍 덮어놓으려고 하였다.

《다같은 O 형인데... 아무나 뭐...》

회색내의가 의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눈길에 위압을 느껴서인지 의사가 돌연히 새치기군의 편역을 들었다.

《어떻게 한다?... 처녀동무가 양보하지 뭐...》

《어째서요? 남자의 O 형이 녀자의 O 형보다 더 우월한가요?》

성희는 흥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말마디에 힘을 또박또박 박았다.

채혈의사와 회색내의는 어리둥절한 눈길로 서로 마주 바라보다가 흐앗흐앗하며 폭소를 터뜨렸다. 땀살스럽게도 회색내의의 웃음소리가 더 높았다.

심한 모멸감을 느끼며 밖으로 빠져나온 성희는 병원 뒤마당 울타리결에 놓여있는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성희는 살결이 맑고 코날이 유순해서인지 사람들에게 매우 아련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마음은 불같은 처녀였다. 한번 결심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해내고야말았다. 때문에 그 불줄기같은 지향이 꺾어질 때에는 가슴을 굽어내리는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몸시도 괴로와하였다.

고개를 수그리고있는 성희의 손등에 물방울같은 것이 똑 떨어졌다. 큼직한 구두 한쌍이 그의 시야에 들어와 멈춰섰다. 성희는 머리를 들지도 않았다.

《하어튼 미안합니다.》

회색내의의 그 사죄는 오히려 성희의 부아를 더 돌구어주었다. 췌, 고소한 모양이지... 회색내의는 흥겨운듯 구두발로 땅바닥에 방아를 툭툭 찼었다.

흥, 나같은 처녀한테나 《승리》한것이 무척도 즐거운 모양이지. 내가 도전해나서면야 그저!... 참는다! ... 비록 속으로나마 이렇게 비양거리고나니 가슴이 얼마간 후련해지는것 같았다.

《자요!-》

희색내의가 성희열에 무슨 자그마한 봉지를 놓아 주고나서 슬그머니 물러났다. 봉지안에 들어있는 여라문개의 사랑알이 눈에 띄었다. 성희는 참을수 없었다.

《서라요!》

자리에서 발짝 일어나며 날카롭게 내쏘았다.

용약 도전자로 떨쳐나선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대방의 머리우에는 검은색의 둥근 모자... 성희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린 그의 옷깃에서는 소성두 알의 노란 명장이 빛나고있었다. 해군중위였다.

《리해해주시오.》

꼭 꺼져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중위는 그 부리부리한 눈길로 성희를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두볼이 또한 처녀에들처럼 발기우리하게 물든것으로 보아 마음은 실상 여린것 같았다.

성희는 어째서 중위를 보고 서라고 소리쳤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불러세워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던가?...

그때로부터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성희자체의 운명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학졸업실습생이었던 그가 그 병원의 의사로 배치된것이다.

성희는 자기가 철진중위를 어째서 사랑하게 되는지 지금도 딱히 짚지 못한다. 명백한것은 사랑의 그 우스는 계기뿐이었다. 사랑의 감정은 사랑하는 대상의 언어와 행동, 용모와 육체에 다 잇닿아있는 이를테면 다변수함수와 같은것이다. 그 복잡한 감정수학은 컴퓨터도 풀어내지 못한다.

성희와 철진은 보름이 멀다하게 서로 주고받은 편지로 사랑을 무르익혔다.

어제 오후 약초밭에 나타난 조제과 과장은 대뜸 성희를 찾더니 빙긋 웃으며 쪽지편지 하나를 전해 주었다.

《귀. 유. 나는 지금 강습차로 평양에 와있습니다. 친철하게도 과장선생이 동무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구만요. 내가 동무의 일에 지장을 주는것이냐 아닌지... 일요일 오후 5시에 그때의 그자리에서 만납시다. 나는 래일밤중으로 떠나야 하오. 강철진.》

그때의 그자리란 6개월전 철진이가 평양출장을 왔을적에 서로 만났던 통일역앞 공원의 왼쪽 두번째 의자를 말하였다. 시내에는 공원도 많고 의자도 많았지만 성희는 바로 그 공원, 바로 그 의자에 남다른 정을 두게 되었다. 통일역근방을 지날 때에는 의례히 공원에 들어가 그 의자에 한참씩 앉아보곤 하던 성희였다.

한번은 지하전동차를 타고가다가 통일역에서 일부러 내려 한식경이나 그 공원을 거닌적도 있었다. 철진이에 대한 그리움이 류달리 가슴에 끓어오르던 봄날이었다. 공원의 의자들은 뜻밖에도 청색으로 일매지게 단장되어있었다. 봄날의 신록과 더불어 이전날보다 더 산뜻하게 변모된 공원이었으나 성희는 그 청색뽕끼가 의자에 배인 철진이의 체취를 몽

땅 삼켜버린것만 같아 서운한 감정을 금할수 없었다.

철진은 성희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마다 꼭꼭 《귀. 유.》라는 두글자로 시작하곤했다. 《귀. 유.》란 《귀여운 유치원생》이라는 두 단어의 첫 글자들을 각각 따낸 성희에 대한 애칭기호였다. 그것은 성희열에 사랑봉지를 슬그머니 놓아주던 그때 철진이가 속으로 유치원생같은것! 하고 생각하였다는 데로부터 유래된것이다.

또 《귀. 유.》!...성희는 이렇게 외우며 철진이의 쪽지편지를 울렁이는 가슴에 꼭 가져다대었다...

오후 5시! ... 성희의 일요일은 그 시각을 기다리는 하루이기도 하였다. 상봉을 한후에는 철진이처럼 밤중으로 약초밭에 또 가야 한다.

성희는 남비에 퍼담은 팔을 숟가락으로 꼭꼭 눌러놓고나서 뚜껑을 덮어놓았다.

이제부터는 뽕이처럼 돌아가야 한다. 계획은 크게 3가지!...

우선 미용원에 가야 한다. 거기서 파마를 한 다음에는 달포전 문수거리의 이모한테 만들어달라고 맡겨두었던 조선치마저고리를 찾아와야 한다. 이 두가지 계획을 수행하고나면 한것이 다 지나갈수 있다.

오후에는 철진이가 좋아하는 송편을 빚을 계획이었다. 한가지 장난을 할가?...

대학시절 모내기전투장에 나가서 성희는 동무들과 함께 송편을 먹다가 그만 불덩이를 삼키는것만 같아 눈을 똑 부릅뜬적이 있었다. 입에 넣은 어느 한 송편에 고추가루가 《장약》되어있은것이다. 동무들은 《복》이 차례졌다고 좋아라 박수를 쳤다.

성희는 그런 《복》송편을 하나 슬쩍 빚어놓을 심산이었다. 철진이가 부대의 동무들과 함께 자기가 빚은 송편을 먹는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웃음이 절로 났다.

내가 이렇게 꾸물거리고있으면 어떻게 하나... 성희는 미용원으로 가려고 외출복을 열른 갈아입었다.

전화종이 다시금 울렸다. 첫 통화에서 실패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수화기의 진동판을 왕왕 뒤흔들었다.

《여보시오! ... 야, 경미야... 왜 전화를 끊으면서 그래?... 답답하구만!...》

야, 경미야? ... 놀랍게도 상대방은 성희를 자기가 것처럼 허물없이 하대할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믿고있었다. 성희는 그에게 집주인이 바뀐 사정을 설명해주었다.

《뭘라구?! ... 경미!... 무슨 연극이야?》

《연극이라니요. 전 경미라는 녀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텔레비존장치라도 있으면 좋겠구만!... 그게 사실이요?》

《여보세요... 정말 답답해라, 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세요?》

상대방은 그제서야 자기가 오관하였음을 깨달았는지 《믿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왜요?》

《아, 됐습니다… 참 이거 일이 별스럽게 됐구만요. 오늘낮차로 귀한 손님이 평양역에 도착하는데 그 집에서는 깜깜 모르고있으니 난사가 아닙니까.》

알고보니 정주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성희는 그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담?…

문득 그 난사해결의 열쇠를 바로 자기네 집에서 쥐고있다는 생각이 났혀왔다. 어제저녁에 성희는 어머니가 이사간 그 집의 전화번호를 받아두었다고 하는 소리를 피끗 들은적이 있었다. 그 집에서는 만약 이전주소로 자기네한테 편지 같은것이 오면 좀 알려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였다고 한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가만, 그 집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전화를 다시 할수 있어요?》

《아 할수 있다마다요. 전화번호를 압니까?》

《잠간 기다려주세요.》

성희는 전화번호책을 열른 펼쳤다. 어머니는 그 전화번호를 맨 앞장에 있는 기입란에 적어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눈에 띄이지 않았다.

《여보세요, 찾자니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은데 제가 그 집에 전화해드리면 안되겠어요?》

《그렇게 해준다면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신의주-평양 급행열차로 도착합니다. 오후 4시!… 감사합니다.》

《필요. 그쯤한 일을 가지구…》

《그럼 믿겠습니다.》

다짐을 받아내는듯한 어조였다.

전화를 끝낸 성희는 전화번호책 갈피갈피를 싹 훑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전화번호는 나지지 않았다.

장본인인 어머니가 오늘아침 고향친구네 집에 갔으니 물어볼수도 없었다. 어머니가 그 집과 전화하는것을 한두번 본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화번호는 역시 몰랐다. 안다면 그 집이 통일거리 단고기국집 뒤쪽 살림집의 5층인가 6층인가에 있다는것뿐이었다.

아버지라도 집에 있으면 물어보련만… 하긴 큰 공장을 책임지고있어서 일요일도 따로 없이 노상 공장에 나가살다싶이하는 아버지가 알게 된가. 어머니 찹찹하게 집안에 숟가락이 몇개이고 바늘이 몇개인가 하는것까지 꿰들고있는 남동생이라면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는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에 가있다.

대수색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다. 성희는 온 집안을 발각 뒤집어놓기 시작하였다. 책상, 책장, 옷장, 이불장, 침대, 경대, 텔레비존락… 집안

의 모든 물건들이 다 수색대상으로 되었다. 하지만 다 허사였다. 대수색전은 방들을 온통 수라장으로 만들어놓았을뿐이었다.

벌써 9시 30분… 문제는 어머니한테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녁녘에야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믿겠습니다.》

정주사람의 그 목소리가 귀전에 울려왔다.

성희는 난처한 립장에 빠지고말았다. 아까 정주사람과 전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원래 그는 미용원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파마를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시간은 흘러갔다....

10시 50분, 성희는 통일거리의 그 단고기국집뒤쪽 살림집에 들어섰다.

《아니, 그 전화번호는 달력에 써놓았는데!...》

성희의 급작스러운 방문의 사유를 알게 된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장판을 하던 그 풀물은 손으로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소리쳤다.

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역시 나는 덜통해...

어머니는 이사간 그 집에서 아직 전화를 미처 놓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 전화번호는 열집 전화번호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번호를 기억하고있지 못해서 여기 전화를 리용할수도 없었다.

성희는 점심을 먹고가라고 불드는 그 집 안주인의 손을 꼭 쥐여주고나서 다급히 되돌아섰다.

11시 57분, 성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마에 땀 한 뼛방울을 씻을사이도 없이 전실에 걸려있는 달력부터 살펴보았다. 한쪽구석에 어머니가 수지연필로 또렷이 써놓은 글 《광복거리의 그 집 721-6484》.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은 성희는 온통 뒤죽박죽이 된 집안을 맥없이 둘러보았다. 전화를 걸어주고나서는 이 험악한 사태부터 빨리 수습해놓아야 했다. 그 다음에는 미용원?… 이제는 틀렸다.

성희는 송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환단추를 꼭꼭 눌러나갔다. 721-6484... 그쪽에서 누군가가 송수화기를 쳐든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반응이 없었다. 조무래기들의 옥작옥작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여보세요! ... 여보세요!...》

수화기에서 킁킁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세요!》

이윽고 응답하는 소리...

《죽제비대장각하! ... 들쭉1호올시다!》

조꼬마한 총각애의 장난에 들뜬 목소리였다.

성희는 그만 아연해졌다.

《애, ... 애야! ... 집에 어른들이 없느냐?》

《몰라!》

《모르다니?...》

《모르올시다.》

저런 철부지장난꾸러기들과의 대화를 성립시키자면 자기자신도 동화세계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희는 목소리를 일부러 굵게 내며 울려대었다.

《들쥐1호! ... 족제비대장이 묻는다.》

《각하!》

총각애는 재미가 나는지 히히닥거렸다. 애들이 재잘거리는 소리가 더 커져서 귀가 다 솔았다. 모두 전화기 주변에 오구구 모여든 모양이었다.

《어른들을 찾으라!》

《몰라! ... 모르올시다.》

《너의 집이 광복거리 어디쯤이냐?》

《원통식올시-...》

전화가 문득 끊어졌다. 성희는 번호단추를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받아주지도 않았다. 《족제비네부대》가 다 어디론가로 기동해간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10분간격을 두고 호출신호를 계속 반복해서 보냈다. 하지만 역시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희는 점점 불안스러워졌다. 오후 4시가 다 될 때까지도 그 집 어른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믿겠습니다.》

정주사람의 목소리가 성희의 고막을 다시금 두드렸다.

12시 39분. 그는 또다시 집을 나섰다. 문수거리의 이모네 집에 가서 옷을 찾아오려던 계획도 다 포기하고 광복거리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들쥐1》호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경미네 집은 원통식살림집에 있다.

동성교쪽으로부터 대형전동기와 변압기, 전선통구리들을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려오고있었다. 맨 앞차와 뒤차에는 《강성대국전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이라는 글발들이 각각 나붙어있다. 자동차행렬은 역전앞 도로를 에돌아가지고 대극장쪽으로 빠져간다.

《성희야!》

반가움에 가득찬 목소리... 영광역 바깥계단쪽에서 몸이 실박한 처녀가 손을 흔들며 궤도전차정류소쪽으로 달음박질해왔다. 성희의 중학동창 해련이었다.

《해련아!》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돌아갔다. 1년반만에 이루어진 상봉이었다.

《성희야, 이제는 어엿한 의사선생님이시라면서? 더 고와줬다야. 고 매출한 다리를 또 좀 보지... 난 똥보가 되고... 자, 나하고 가자!》

《어딜?》

《성희야, 나한테 조카가 생겼단다. 오늘이 그애 돌이야. 고계 얼마나 귀여운지 아니? 고거!... 고거! ... 너도 보면 막 미칠게다. 가자, 집은 저기 천연색 사진판살림집이야!》

《미안하구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일요일에 급한 일은 무슨 급한 일... 왕진은 아니겠지?》

성희는 해련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주었다. 해련은 눈을 잔조롭게 뜬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성희의 손을 꼭 싸쥐었다.

《성희야, 넌 마음까지도 더 고와줬다야!》

《앤, 쑥스럽게...》

성희는 해련이를 밋지 않게 흘겨보았다. 그 의미를 잘 알수 없는 미소가 해련이의 얼굴에 그려졌다.

《난 너의 그 행동을 지지한다. 딱 한가지경우!... 네가 나서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상봉이 영영 파탄되고 생활에서는 비극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해. 그러나 내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닌것 같구나.》

제품생산을 할 때에는 원가타산부터 한단다. 로력, 설비, 자재, 동력은 자동차를 생산할만큼 들었는데 정작 나온 제품이 팔다리 같은것이라면 어떻게 되겠니. 망하고말지, 망해!...》

회계부문에서 일해서 그런지 해련은 원가요, 타산이요 하는 말마디들을 곧잘 외우곤하였다.

《인간생활에 원가론을 적용한다는것은 좀 별스럽지만 무시해서는 결코 안돼. 네가 오늘 동분서주하는 목적은 우스울 정도로 단순하지 않니. 그게 뭐 인간의 운명문제나 큰 생산문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냐. 너도 생각해보면 맹랑할거야. 이 좋은 일요일에 이게 뭐니...》

정주손님은 마중나온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집을 찾아가긴 가겠지? 물론 마중해주면 좋다는거야 누가 모를가.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말이다. 거기에 들이는 너의 공수는 얼마나 막대한것이냐. 말하자면 자동차를 생산할만 한 원가라고 할수 있지.》

해련이의 그 어마어마한 원가론에 압도된 성희는 아무런 반론도 가하지 못하였다. 머리가 다 뻥해졌다.

《귀한 손님이 온다고 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손님이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역시 원가를 타산하는것처럼... 극단한 경우에는 그 집에서 귀찮아하는 손님일수 있어. 생활에 무슨 일인들 없겠니. 그렇게 되는 경우 너의 그 성의의 <제품>은 <팔다리>도 못돼!》

해련이의 일장연설은 리치적으로 틀리는데가 하나도 없는것 같았다. 그 리치는 너무도 정확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감은 잘 가지 않았다. 성희는 그 이유를 명백히 말할수 없는것이 또한 이상스러웠다.

《그럼 믿겠습니다.》

정주사람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다시금 성희의 귀청을 울려주었다. 해련이의 장광설을 듣는 사 이에 궤도전차는 벌써 여러대나 지나갔다.

《결론은 무엇인가? ... 나와 함께 우리 조카애보

러 가자는거야. 좋지, 잉?)

해련이는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성희의 팔을 슬쩍 끼었다. 결국 조카애자랑을 하고싶은 해련이의 욕망이 광복거리로 가는 성희의 앞길에 원가론의 묵직한 차단봉을 내리우려 한것이다.

《아니, 난 가야 해. 후날 내 그애를 목마태워 줄게. 좋지, 잉?》...

13시 41분. 광복백화점앞 정류소에 내린 성희는 《들쥐1》호의 통보자료가 얼마나 막연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광복거리에 원통식살림집이 한채만 있는것이 아니라는데 생각이 미쳤기때문이었다. 거리를 따라 나란히 3채나 솟아있는것이다. 순서대로 쪽 훑어보는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첫 살림집에 이르고보니 역시 난감하였다. 수백세대나 살고있는 이 특대형살림집의 어느 현관을 찾아들어간단 말인가. 성희는 경미네 집에 대해 아는것도 전혀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덜 통한것만 하는것일까? 확실히 부실해... 떠나올 때 인민반장이나 옆집에 물어보기만 했어도 되는건데.

그 집을 찾으려면 역시 전화통에 매여달릴수밖에 없는노릇이었다. 성희가 공중전화소쪽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조잘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족제비대장 안할래!》

《내가 할래!》

《족제비대장 나빠!》

《맛아. 못된놈이야!》

《족제비네부대》가 와해상태에 직면한것이다. 여하튼 그 《부대》를 찾게 된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성희는 얼른 그쪽으로 가서 만화영화에 나오는 족제비대장처럼 팔짱을 척 지르고 애들에게 엄엄하게 물었다.

《들쥐1호가 누구인가? ... 내가 바로 족제비대장이다. 대렬 1보 앞으로 나왔!》

난데없이 나타난 《족제비대장》을 쾅해서 바라보던 애들이 와!-하고 환성을 올리며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가까운데서 딸따리 끄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아까 너희들 어느 집에서 놀았니?》

그중 제일 커보이는 애가 나서서 대답하였다.

《정길이네 집에서 놀았어요.》

《누가 정길이니?》

《갠 집에 들어갔어요.》

딸따리가 푹 멎었다.

《정길인 왜 찾아요? 내가... 그애 엄만데...》

한 서른댓살가량 되어보이는 딸따리임자가 성희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체구가 웅장한 녀자였다. 딸따리에는 파철이 가득 실려있었다.

성희는 찾아온 사연을 그에게 이야기하였다. 알고보니 경미는 어느 화초사업소에서 관리공으로 일하는 처녀였다. 그 집 딸따리라고 한다.

《12층 3호예요. 참 지금은 비였지... 인차 들어들 오겠는데... 야, 처녀의 목소리! 어쩌면 경미의 목소리와 그리도 똑같을가. 눈을 감고들으면 경미가 말하는줄 알겠네.》

성희는 정주사람이 자기와 전화를 하면서 경미가 다른 역을 놓고있지 않는가 해서 자꾸 의심하던 생각이 났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럼 꼭 전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는 정주사람의 부락을 깨끗이 실행해준셈이었다. 정주사람이 아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성희는 《별요, 그췌한 일을 가지구...》라고 대답했는데 실상 그 《그췌한 일》이 얼마나 어렵게 꼬여들었던가. 그는 일요일의 만나절을 쟁그리 빼앗겼다. 그 보람은?... 순간에 벌어질 역전에서의 상봉, 그것이 전부였다. 성희는 그 상봉자들의 얼굴도 그 상봉의 가치도 다 모른다.

딸따리소리가 점점 멀어져간다.

딸따리! ... 해련이가 원가론을 격렬하면서 그 반증대상으로 사용하였던 딸따리... 해련이는 성희가 기울이는 그 성의의 《제품》이 《딸따리》도 못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성희자신도 그런 경우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자기의 노력이 그 집의 행복에 한줌의 밀거름으로라도 되었으면 하였다. 그 귀한 손님이란 누구일까?... 그 손님의 방문이 12층 3호 집에 커다란 경사로 된다면 얼마나 기쁘랴...

오후, 3시 10분. 성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곧로에 불을 지피고 떡반죽을 가마에 안쳤다.

송편을 빚는것은 오후 5시를 앞두고 성희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계획에 속하였다. 비록 첫번째, 두번째 계획은 다 그르쳤지만 그게 무슨 대수인가. 세번째 계획이 기본이다. 나머지 계획들이야 사실대로 말해서 수행하나마나! ... 송편을 만들어 가지고가서 기뻐하는 철진이의 모습을 보는것은 오늘 성희가 누리게 될 행복의 절정을 이루고있었다. 그 이상 뭘 더 바라랴... 시간이 좀 뻗뻗한데 다그치자!

떡반죽이 익는 사이를 리용하여 성희는 온통 란장판이 된 방들을 대강 치워놓았다.

전화종이 울렸다.

《전화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정길이 어머니 찾아왔던저...》

《예, 옳아요. 나예요.》

《정말... 수고했어요. 내가... 김경미예요. 어쩌면 그리도...》

성희는 경미의 전화를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아! ... 난 임성희라고...해요.》

《저... 정주에서 전화는 누가...》

《모르지요 뭐... 목소리는 아주 우렁우렁한데 무

손 감격적인 상봉을 하자고 그래요.》

《아... 그럼 알겠어요.》

경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면서 스르르 잦아들었다. 숨결이 어찌나 높은지 수화기에까지 미쳐왔다.

《지금 어디서 걸어요?》

《저, 옆집...》

성희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3시 41분이었다.

《아니, 왜 아직 거기에 있어요? 기차가 4시에 도착한다는데 ...》

《난 방금... 난 지금 거기를 믿구 전화를... 저 ...》

경미의 말마디들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토막토막 끊어졌다.

《아니,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해요?》

《저... 내가... 올 때까지...》

성희는 경미가 무엇을 호소하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을 일시에 깨달았다. 평양역에서 광복거리가 어디인가. 거기서 평양역까지 오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알겠어요. 내가 대신 마중하지요. 집에서 멀리도 않은데... 역전공원에서 기다리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손님을 어떻게 알아보다?》

《일행은... 두명일거예요... 남자와 여자... 너자는 할머니...》

수화기에서 불현듯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경미가 울고있었다.

《아니, 왜 그래요? ... 경미동무!...》

《미안...해요... 남자는... 참... 아마 오늘아침에 그 집으로 전화를 건... 분일거예요. ... 정주군 대산리... 사무장이저씨...예요...》

경미의 이야기는 흐느낌속에서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다. 낮모를 손님들을 마중하려면 경미와 그들 사이의 관계도 알아두는것이 필요하였지만 성희는 그 애처로운 흐느낌을 짓누르며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칫하면 경미의 아픈데를 더 헤집어 놓을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알겠어요... 그만하면 찾을수 있을것 같구만요.》

《고마...워 ...요...》

《고맙긴... 빨리 떠나요!》

송수화기를 내려놓고난 성희의 머리에 의문의 실타래가 엉켜들었다. 그들의 상봉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기에 경미가 그토록 울기까지 한단 말인가? 그 할머니와 대산리 사무장은 경미와 무슨 관계에 있을가? ...

문득 가마에 안쳐놓은 떡반죽생각이 났다. 부리나케 부엌으로 가보니 가마는 증기기관처럼 김을 썩썩 내뿜고있었다. 어떻게 한담? ... 파마같은것은 하지 못해도 좋았다. 새옷도 꼭 입어야만 멋인가. 하지만 송편만은... 성희는 속이 알알해왔다. 그러

나 달리는 행동할수 없는 그였다. 철진동무, 미안해요!...

성희는 역으로 달려나갔다. 열차에서 내린 손님들이 거의다 역사를 빠져나간뒤였다. 어디서 찾는담?... 거리의 인파에 묻혔을가?...

그때 중앙홀쪽에서 울려나오는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번쩍 뛰어들었다.

《신숙선생님!... 나가서 기다립시다.》

그 어떤 음향의 대파도속에서도 표식원자처럼 자기의 존재를 절대로 숨기지 못할 정주사람의 목소리였다.

얼굴도 목소리와 어울리게 둥글넓적한 신살가량의 사람이 랑손에 묵직한 손짐을 거머쥔채 어떤 할머니와 함께 역사정문으로 스틱스적 걸어온다. 선생이라고 불리운 그 할머니는 일흔살이 다 된것 같았다.

《사무장, 임자하고 다니면 좀 망신스러워...》

《어째서 말입니까?》

《에이, 그 방송나팔통같은 소리!...》

《그렇다고 마스크를 끼고 말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구 뭐구... 저 처녀도 우리를 자세히 보지 않나.》

뜻밖에도 할머니는 정문 한쪽에 비켜서있는 성희한테 눈길을 보냈다. 어딘가 모르게 매우 다심스러운 인상을 주는 할머니였다. 사무장도 성희를 힐끔 쳐다보더니 멋적은듯 피식!- 하고 웃었다.

성희는 두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눈을 일단 내리 깔았다. 그리고는 그들이 앞을 지나쳐간 다음 조심스레 말을 건넸었다.

《저, 말씀 좀 물읍시다. 정주에서 오시는분들이 아십니까?》

성희의 물음은 그들에게서 놀라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몸을 흠칫하며 거의 동시에 성희쪽으로 고개를 돌린 사무장과 할머니의 눈길은 피하기 그지없었다. 한눈으로는 성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다른 눈으로는 성희 뒤쪽의 그 어디인가를 살펴보는듯해서 그들은 다 두눈이 서로 향방없이 따로 돌아가는것처럼 보였다. 나와 경미가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는 목소리의 그 완전한 동질성이 그런 인상을 빚어놓은것은 아닐가...

《처녀동문 누구요?》

사무장이 성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저...》

《가만,... 가만있자. 오늘아침에 내 전화를 받았던 동무가 아니요?》

《그렇습시다.》

성희는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였다.

《야, 반갑소. 성희동무! 난 정주군 대산리사람이요. 이름은 박정래... 신숙선생님, 이자 이 동무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그러니 내가 왜 삭갈리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어안이 병병한 상태였다.
《난 딱 꿈을 꾸는것 같네. 경미가 변장을 하고 나타나건 아니겠지?》

성희는 미소를 머금고 그들에게 인사치레를 다시 금 하였다.

《오시느라 수고들하셨습니다.》

사무장이 말을 받았다.

《급행인데 뭐... 참, 경미는?...》

《지금 경미동무도 급행으로 달려오고있을거예요.》

성희는 자기가 대신 마중나오게 된 사정을 대충 이야기해주었다. 사무장은 들고있던 손집 두개를 다 바닥에 툄령 툄구더니 성희의 손을 나누쳐여 막 흔들어주었다.

《야, 이거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소!》

할머니가 성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었다.

성희는 바닥에 떨어져있는 손집 하나를 끄당겨 들고 그들을 공원으로 안내하였다.

《경호야, 엄마 백화점에 열른 갔다올게 여기에 있거라. 응?》

《혼자 싫어... 같이 갈래.》

《야, 큰아버지가 이제 오시겠는데 우리가 다 없으면 찾지 않겠니.》

공원입구근방의 긴 의자앞에서 어떤 젊은 녀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예닐곱살의 아들에게때문에 애를 먹고있었다.

할머니가 웃음을 지으며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경호야, 이 할머니하구 놀가? 엄만 열른 갔다 오라구 하구...》

녀인은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아들을 구슬려 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럼 신숙선생님은 여기서 그애와 노십시오.》

사무장의 이렇게 말하고나서 성희를 돌아보며 맞은편 의자를 눈짓하였다.

《성희동무, 오늘아침에 내가 동무한테 전화를 하면서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지 않았소. 바로 저 할머니요.》

사무장이 성희와 자리를 나란히 하면서 하는 말이었다.

《그래요? ... 경미동무와는 어떤 사이인데...》

《내 얘기해줄가... 듣고싶소?》

《들려주세요.》

사무장은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여 옆자리에 내려놓았다.

《저 신숙선생님의 남편은 전쟁때 군대에 나가서 전사하였소. 그때부터 선생님은 내내 홀로 살아왔소. 그러나 외롭지는 않았소. 술한 애들속에 파묻혀 있었으니까.》

성희동무도 들었겠지만 저 할머니의 이름은 오신숙이요. 선생님은 대산인민학교에서 근 40년동안

이나 교편을 잡고있었소. 군대에서 제대된 내가 고향 대산리로 돌아왔을 때에만 해도 신숙선생님은 아직 팔팔한 중년나이였소.

그런데 세월의 흐름이란 어쩔수 없는것이 아니겠소. 신숙선생님도 교단과 작별하게 되었소. 그때부터 그에게 외로움이 달려들었소.

그러자 한 제자가 그 외로움을 막아주려고 나섰소. 자기네 집에 모시자는것이였지. 그 제자가 바로 경미의 아버지였소...》

담배를 피워문 사무장의 입으로 삼단같은 연기가 쏟아져나왔다. 성희는 어쩐지 그것이 이제 계속될 이야기의 거대한 의미를 시사해주는것처럼 느껴졌다.

《성희동무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경미의 아버지는 박사였소. 그가 향촌을 떠난지 몇십년만에 다시 찾아와 스승에게 인사를 드린것은 박사의 학위를 받은뒤였소.》

신숙선생님은 제자를 정말 힘들게 알아보았소. 한참동안 갑자르고서야 어스크레한 방공호교실 한쪽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꾀다리연필에 침을 바르곤 하던 그 소년을 생각해냈소. 너무도 모가 난데없이 그저 조용하기만 해서 기억에조차 희미한 제자였소. 신숙선생님은 그애를 특별히 사랑하거나 남달리 돌봐준적도 없었소.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해살처럼 골고루 비쳐든 선생님의 그 사랑은 제자의 가슴에 한생 지울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놓았소.

미국놈비행기들이 마을을 폭격할 때 제자는 멋도 모르고 길가에서 허둥거린적이 있었소. 쏜살같이 달려온 신숙선생님이 그애를 자기의 몸으로 덮쳐서 가리워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큰 변이 났을거요. 폭격이 끝난뒤 자기주변 2미터안팎을 마구 헤집어놓은 그 무수한 총탄자리들을 보고서야 제자는 자기를 꼭 부둥켜안고있던 선생님의 심장이 왜 그토록 세차게 뼉뼉였는가 하는것을 비로소 깨달았소.

물론 신숙선생님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있었소. 전쟁때 그런식으로 보호해준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박사는 잊을수 없었소. 자기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였던 선생님을 어찌 잊을수 있었겠소.

<선생님, 제가 받은 박사메달은 합금이랍니다.>

제자의 말에 신숙선생님은 의아해졌소.

<합금인줄 누가 모르나.>

<선생님의 그 사랑이 합금되었던 말입니다.>

신숙선생님은 그만 울었소.

그때 중학교에 다니던 나어린 경미가 아버지를 따라왔댔소. 그애는 박사인 자기 아버지에게도 스승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소. 신숙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그애의 가슴속에 소리없이 스며들었소...》

사무장의 손가락뺨에 끼워진 담배가 길다란 새 꼬치를 남기며 그냥 타들어갔다. 사무장은 옆에 있

는 휴지통에 담배를 부벼끄고나서 손을 툭툭 털었다. 이야기가 어서 계속되기를 기다리는 성희로서는 그 동작이 얼마나 곱뜨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그후 신숙선생님이 교단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사는 안절부절하였소. 그러다가 신숙선생님을 다시금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을 어머니로 모시렵니다.>라고 하였소. 하지만 신숙선생님은 그런 쓸데없는데 머리를 쓰지 말고 연구사업이나 착실히 하라고 엄하게 꾸짖기만 하였소.

신숙선생님이 왜 그랬는가? 제자에게 부담을 지우고싶지 않다는데도 그 이유가 있었을거요. 하지만 그게 기본은 아니었소. 그에게는 제나름의 생활철학이 있었소. 교단에 섰던 사람은 그 교단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제자들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었소.

제자한테 없혀살 때에도 과연 그의 거울이 될 자신이 있는가? 신숙선생님은 이런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고 거기에 자신이 없다는 답을 얻게 된거요. 차라리 외롭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생활의 거울은 손상없이 간직하고싶었소.

박사는… 신숙선생님을 모셔오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살다가 지난해에 뜻밖에도 뇌출혈로…》

사무장의 이야기는 《예?!》 하는 성희의 부르짖음으로 하여 중단되었다.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하듯 물었다.

《저… 경미동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무장이 머리를 끄덕였다. 경미에 대한련민의 정이 성희의 가슴에 짝 들어찼다.

《줄지에 아버지를 잃은 경미의 슬픔은 말할수 없이 컸소. 그저 일밖에 모르던 아버지였소. 경미는 그래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였소. 그런데 아버지는 하던 일을 다하지 못하고 갔소. 새로 맡은 연구과제도 마무리짓지 못했고 2명의 학사를 더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실행하지 못하였소. 물론 경미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해줄수는 없었소.

하지만 대신해서 할수 있는, 아니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소. 경미는 그 참기 어려운 슬픔속에서도 대산리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소. 사망하기 바로 전날에도 아버지가 <내 이번 연구과제만 끝내면 대산리에 또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신숙선생님에 대해서 자꾸만 외웠기때문인지도 몰랐소.

그래도 나에게는 집에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또 군대에 나간 오빠가 있다, 일생을 약속한 다정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없는 외로움을 사무치게 느끼고있다, 그러니 일점혈육 없는 대산리의 할머니는 얼마나 외로울까, 그 할머니를 우리 집에 꼭 모시자! …

경미는 장차 자기네 집에 들어와 살게 될 애인과

도 이런 결심을 나누고나서 신숙선생님을 찾아갔소.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은 숨겼소. 그 충격적인 소식이 모든 일을 그르칠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요. 그러느라니 경미의 가슴속에 눈물인들 얼마나 고여들었겠소. 신숙선생님은 물론 경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소.

그후 경미는 신숙선생님을 또 찾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고백하였소. 신숙선생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소.

<제자가 먼저 가다니!… 내가 너무 오래 사는가 보다…>

<아니예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지만 외롭게 사시면 절대로 안돼요! 우리 나라는 외로운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나라가 아닌가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 사시면 우리 아버지도 무척 기뻐할거예요…>

제자의 딸이 기울이는 그 눈물겨운 정성에 신숙선생님이 어찌 무심할수 있었겠소. 그는 경미를 부둥켜안고 함께 목매여 울었소.

<경미야, 고맙다, 고마워… 하지만 이해해다오. 난 못가!…>

하긴 제자가 살아있을 때에도 가지 않았던 집이 아니요. 하물며 이제는 제자도 없는 집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선뜻 갈수 있겠소…》

경미에게도 신숙할머니에게도 제각기 다 아름다운 진심이 있다고 성희는 생각하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마음을 돌려주어야 옳지 않았을가.

《여기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나.》

할머니가 총각애의 손목을 이끌고 앞에 나타났다. 총각애의 어깨우에는 고무풍선이 뚱뚱 떠있었다.

《허, 이거 큰일났군. 신숙선생님 흉을 보냈는데…》

사무장이 능청스레 말하자 할머니는 《나보고 고집불통이라 했겠지. 경호야, 가자!》라고 하면서 총각애와 함께 본래의 자리로 물러갔다.

《음! 고집불통이라…》 사무장은 할머니의 말을 되받아넘기고나서 씩!- 하고 웃었다.

성희가 재촉하였다.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제 경미의 남편될 사람이 신숙선생님을 찾아왔소. 별로 잘 생긴건 모르겠는데 무척 무뎠해보였소. 농업과학원 연구사였소.

그는 신숙선생님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소.

<할머니, 남자로서 좀 창피한 말이지만 하겠습니다. 경미는 할머니를 모셔오기전에는 약혼도 결혼도 다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를 생각해서라도 생각을 바꾸어주시시오. 제가 경미와 함께 할

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나도 곁에서 그 말을 들었소. 신숙선생님은 눈을 꼭 감고 아무 말도 안하더군. 그 연구사가 <그럼 믿고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 갔을 때에야 나보고 <이지 야단났군.> 하지 않겠소. 내 그래서 화를 벌컥 내었지.

<선생님고집두 참... 아, 제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제자가 찾아와 그다음에는 고인의 딸이 찾아와 오늘은 또 새서방될 사람까지 찾아왔는데 야단났군 하면 답니까? 어쩌면 사람이 그리도...>

신숙선생님은 그제서야 <그럼 가야 하나?>하더군.

<가야 하잖구요. 가서두 거울이 되도록 살면 되지 않습니까. 별 까다로운 철학을 다 생각해내가지구... 래일모레 나도 평양출장을 가는데 함께 가십시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숙선생님이 여기에 오게 된거요. 할 이야기는 다했소. 신숙선생님은 경미네 집에서 인생말년을 행복하게 보낼거요.》

성희는 저쪽 맞은편의자에 앉아서 총각애의 입에 무엇인가를 넣어주고있는 할머니에게 눈길을 보냈다. 먼발치에서 보아 그런지 몸이 아주 체소하게 안져왔다.

성희는 오늘 대산리할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참으로 감동적인 생활의 편채고리를 찾아보게 되었다. 이미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의 스승... 그 스승을 모시고 함께 살려는 제자의 딸...

성희는 그들의 그 감격적인 상봉에 한줌의 밀거름이나마 고일수 있게 된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해련아, 나는 오늘 《원가》 이상의 작품을 냈단다. 얼마나 귀한 손님인줄 아니?... 하긴 손님이 아니지. 경미네 한집안식구야...

의자에서 일어난 사무장이 광복거리쪽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성희에게 눈길을 돌리며 젖어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경미는 신숙선생님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아마 올었을거요. 너무 기뻐서... 신숙선생님을 그처럼 모셔오고싶어하던 아버지생각도 했겠지...》

아까 경미와 전화를 할 때 전류를 타고 흘러들던 그 흐느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성희의 눈곱이 축축해졌다. 아, 경미!... 얼마나 마음씨 아름다운 처녀인가. 정녕 감동의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성희는 웃고름을 눈곱에 가져갔다. 자기와 목소리가 똑같은 처녀... 그는 마음도 경미와 똑같아지고싶었다. 경미처럼 생활을 아름답게, 진실하게 가꾸어가고싶었다.

《신숙선생님, 여기에 앉으십시오. 성희동무옆

에...》

어느새 할머니가 앞에 와있었다. 총각애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제 어머니에게 인계해준 모양이었다. 성희는 할머니를 열른 옆자리에 모셨다.

얼마후 흰 저고리에 깡장주름치마를 받쳐입은 몸매 갈람한 처녀가 혈떡이며 공원입구쪽에 나타났다. 공원안을 성급히 둘러보는 그의 얼굴은 홍당무우처럼 빨갛게 달아올라있었다. 어쩌나 숨차하는지 어깨가 다 들먹거렸다.

《할머니!》

처녀는 이렇게 목메여 부르짖으며 할머니한테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자리에서 미처 일어날사이도 없이 어푸러지듯 그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 처녀가 경미라는것을 직감한 성희는 자리에서 열른 일어나 옆으로 비켜섰다. 심장이 이상하게 뛴뛰었다.

《경미야, 내 손녀야!...》

할머니도 경미를 와락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사무장은 흐느끼는 그들에게 미소를 보냈다. 고개를 쳐든 경미가 울먹거리며 손수건으로 할머니의 눈곱을 닦아주었다. 눈빛이 아주 그윽한 처녀였다. 성희는 그의 고상한 지성세계가 그런 눈빛을 만들 어주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할머니방은 해빛이 제일 잘 드는 방에 잡아놓았어요.》

경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긋 웃었다.

《그래?... 참, 어머니는 잘 있느냐?》

《지금 할머니 맛을 준비로 콩당콩당 튀고있어요. 영미와 함께...》

《음...》

경미는 벌떡 일어나 옆에 서있는 사무장의 팔을 부둥켜잡았다.

《사무장아저씨, 고마워요!...》

《고맙다는 인사는 저기 의사선생한테나 해라.》

사무장이 맞은편에 서있는 성희를 손으로 가리키자 경미는 그쪽으로 머리를 천천히 돌렸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생활의 바다, 그 바다의 레사로운 설레이속에서 문득 나란히 뛰어오른 2개의 수정같은 물방울- 경미, 성희... 그들은 서로 다가가 두손을 꼭 모아진채 다정하게 속삭였다.

《성희선생, 우리때문에 일요일의 하루를 고스란히 바쳤군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자꾸 그러지 말아요. 거북해요.》

두 처녀는 똑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고있었다. 물론 그것은 자연의 우연적인 조화였다. 하지만 그들의 그 똑같은 마음은 아름다운 우리 생활의 필연적인 조화가 아닐가...

《성희선생, 나는 오늘 성희선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것을 배웠어요.》

성희는 얼굴이 붉어지는것을 느꼈다. 내가 무슨 선생이란 말인가. 경미동무... 동무는 자신이 피워가는 꽃처럼 생활도 그토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처녀야... 동무야말로 생활의 훌륭한 선생이다. 나는 학생이구...

《경미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난 오늘 또하나의 귀중한 인생체험을 한것 같아요.》

평양역사의 시계탑쪽에서 종소리가 울려왔다. 성희는 반사적으로 그쪽에 눈길을 돌렸다. 아, 정각 5시!... 나는 지금 어디에 와있는것인가? ... 지금 이 시각 철진이가 통일역앞공원의 왼쪽두번째 의자에 앉아서 자기를 기다리고있을것이라는것을 성희가 자각한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성희는 조금해졌다. 하지만 받아안은 흥분은 좀처럼 가실수 없었다. 그는 경미일행이 탄 광복거리행 궤도전차가 멀리로 사라져갈 때까지 손을 그냥 흔들어주고나서야 영평역쪽으로 달음박질해갔다.

성희가 통일역을 나설 때 역사의 벽시계는 5시 55분을 가리키고있었다. 엄청나게도 근 한시간이나 늦어진것이다! 가슴이 덜컥해졌다. 공원 왼쪽의 두번째 의자가 텅 비여있는것이 아닌가.

성희는 공원의 여기저기를 돌아가며 일부러 기침소리까지 내보았지만 철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었다. 가버렸단 말인가? ... 그 두번째 의

자결에 나타난 검은 정복차림의 청년이 성희의 눈길을 확 끌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청년은 철도제복을 하고있었다.

연석우에 맥없이 주저앉은 성희는 철도제복이 차지한 그 의자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시간도 기다려주지 않고 가버리다니! ... 결국 성희가 아침부터 고대하던, 아니 반년동안이나 간절하게 기다려오던 그 상봉의 꿈은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는 분초를 쪼개가며 긴장하게 생활해야 하는 군인이다. 오늘밤중으로 떠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더 기다려줄 형편이 못되어 하는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갈 때 그의 마음인들 또 얼마나 허전했겠는가.

철진동무, 미안해요. 그런데 나는 오늘 더없이 훌륭한 처녀한테서 귀중한 인생수업을 받았어요... 이제 약초밭에 가서 다 써보내겠어요. 나를 이해해 주리라고 믿어요! ...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처녀가 쿵쿵쿵 구두발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철도제복앞에 와 멈춰섰다. 그런데 철도제복은 시뻘해서 처녀를 본체만체한다. 뽀로통해진 처녀가 에헴! 하는 소리를 낸다. 빙그레 웃는 철도제복...

성희의 얼굴에 미소가 피여올랐다.

시간에 대한 생각

김선지

시간의 귀중함을

우리 어찌 다 알고 산다 하랴

조국의 해방위해 싸워온 투사

한생에 단 하루가 모자라

해방의 날 보지 못했어라

3년간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단 한시간이 모자라

전승의 광장에 서지 못한

무명의 영웅전사도 있거니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에

우리의 정성옥마라손순수

3초를 앞당겨

이 세상 강자들을 짓누르고

하늘높이 공화국기 휘날려

세계 《마라손녀왕》의 영예를 지녔어라

사람들이여

시간의 귀중함을

우리 심장깊이 새겨안자

한시간에 비기면 하루도 긴 시간

1초에 비기면 1분도 긴 시간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혁명전사의 도리를 시간에서 찾자

우리 레사로이 보낸 시간

우리 범상히 보낸 시간 없는가

한생의 하루는 길지 않아도

강성대국건설의 벽찬 진군길에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귀중한것

아, 분과 초도 쪼개가며 살자

순간순간을 한생처럼 살자

한생의 초여름에

김홍익

1

열어놓은 차창으로 불어든 바람은 앞막에 팔굽을 고이고 앉은 그의 온몸을 가볍게 휩쓸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다바람은 시원했다. 렬차의 단조로운 동음도 경쾌하게 울린다. 하늘엔... 가없이 푸르른 하늘가 저 멀리엔 목화송이같은 구름 몇 덩이가 둥둥 떠있을게고 그아래 운무에 잠긴 먼 바다우엔 크고작은 고기배들이 마치 벗은듯이 둥실둥실 떠있을게다. 새하얀 명주필을 길게 늘인것 같은 파도갈기가 츠릉츠릉 밀려오는 가까운 바다엔 양식 공처녀들을 실은 매생이들이 푸른 물결우, 하얀 해빛이 씩없이 부수지는 눈부신 빛의 일렁거림속으로 미끄러져갈것이며 차창을 스칠듯이 가지를 낮추드리우고 철쭉옆에 늘어진 나무들은 따뜻한 초여름별을 담고서 반짝이는 작은 잎새들을 가볍게 흔들며 뒤로뒤로 흘러갈것이다.

그는 이 모든것을 귀전을 울리는 음향으로, 폐부를 적시는 냄새로, 뺨으로 해서 귀밑을 스치는 바람결로 느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어쩔지 불만스러웠다. 무엇인가 모자랐다. 어딘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애, 바다가 어땡니? 무슨 색깔이니? 파도는? 배는?》

그는 몸을 반쯤 돌리며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또 물어봐요? 이자 금방 말해줬는데...》

포랑포랑 여문 소년의 목소리가 코앞에서 울렸다. 불분명한 목소리다. 하지만 시끄러워하는것 같은 기색은 없다. 오히려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는 응석기같은것이 느껴진다.

《글쎄 어땡니? 바다랑? 파도랑?》

그냥 바다쪽으로 얼굴을 향한채 그는 다우쳤다.

《바단...》 하고 조금 갑자르더니 한결 더 쟁쟁여문 목소리가 곧 이어진다. 《푸른색이에요. 파도는 조금 세게 쳐요. 그리고 저기... 바다우엔 배가 세척, 아니 네척 떠있어요. 큰 배가 하나, 작은 배가 셋, 아니 하나 또 생겼어요. 저기 먼데...》

거침없이 울려오는 소년의 맑고 쟁쟁한 목소리를 듣다말고 그는 눈확이 들여다보이지 않으리만큼 짙은 빛의 보호색안경을 벗어들었다. 그래도 눈앞은 그냥 캄캄하다. 푸른 바다도 흰 명주필같은 파도갈기도 배도 구름도 양식공처녀들도 가볍게 손저으며 멀리멀리 뒤로 사라져가는 나무잎들도 없다. 어둠, 어둠이 가득찬 공간뿐이다.

벌써 1년가까이 습관되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오지만 아무리해도 습관될수 없는 그 어둠을 일시에

몰아내려는듯 그는 후- 깊은 숨을 몰아쉬며 벗어던졌던 안경을 다시 껴다.

《아저씨, 왜 그러시나요?》 앞에 앉은 소년이 제법 근심에 겨운 어조로 물었다.

《내가 뭐 어땡니?》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보이며 그는 창너머로 얼굴을 돌렸다.

《아저씨 얼굴 보면...》

《금진아!》

툭 나꿔채는듯한 너인의 목소리가 짧고 낮게 울렸다. 아들을 그의 말동무로 마주 앉혀놓고 여태 별말없이 오던 그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남의 아픈데를 건드릴가봐 아들녀석을 말없이 단속한 모양 그애는 곧 입을 다물어버렸다.

주위는 조용해졌다. 텅텅 쿵 텅텅... 차의 단조로운 구름음소리, 앞뒤의 의자등반이너머에 앉은 러객들의 알아들을수 없는 말소리와 웃음소리만이 멀게 들려올뿐... 옆사람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다.

《이것 보오. 영예군인동무!》

옆에 앉은 사람이 퍼그나 긴(그만이 그렇게 느꼈을런지도 모른다.) 침묵을 깨뜨렸다. 몇정거장전에 온 사람이였다. 둘이 함께 올랐는데 자기 좌석번호에 한우가 앉은것을 보자 조용히 렬차원을 찾아갔다오더니 군소리없이 자리를 좁혀앉았다. 그리고는 이쪽엔 별로 관심이 없는듯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두런두런 주고받고 하더니 처음 그에게 말을 걸어온것이였다.

그는 못들은척 반응하지 않았다.

《동무말이요.》

이번에는 팔꿈치를 툭 건드린다.

《예?! 저... 난...》

그는 말마디가 생각나지 않는것처럼 얼버무렸다.

《허허, 렬차원동무한테 얼핏 들었소. 그리고 거머리같은 모양이 다 말해주고있는데 뭘 그러오.》

《예?!》

그는 얼굴에 손을 올려 바투 깎은 총센 머리칼을 쓰룩쓰룩 쓸어보았다. 집떠날 때 못사람들한테 영예군인이라는것이 알려질가봐 제대되어서도 여직 그냥 입고있던 병사복대신 알쭉한 사복차림에다 지팽이조차 없이 떠난 그였다. 하면서도 군대식으로 늘 바투 깎는 머리생각만은 못한것이다.

《실례지만 이름은 어떻게 부르오?》

《한웁니다.》

《성은요?》

《한자이름입니다.》

《아, 한씨구만. 현대 눈은 언제 그렇게 됐소?》

《지난해 가을에...》

《무슨 일루?》

《그건... 저...》

너무나 돌연히 들어온 질문에 한우는 대답이 궁해져 조금 갑작스럽다. 그러자 자기들은 금성청년출판사 기자, 화가들이라고 겸손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난 상대는 실례될줄 알면서도 직업적인 습관으로 한 질문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한우는 대답을 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낮고 짧게 말했다.

《사릅니다.》

《사고요?!》

동시에 받아외우는 세사람- 기자와 화가와 너인의 놀란듯한 목소리가 열차의 단조로운 동음속에 잣아들자 주위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한우는 옆의 옆에 앉은 화가와 통성을 하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했으나 곧 도리머리를 저으며 그 생각을 령정하게 단념해버렸다.

눈을 잃기전까지만 하여도 그림에 뜻을 두었던 그였다. 유명한 화가들과 그림들에 대해 거의 모르는것이 없고 못본것이 없다. 지금도 그의 집, 그가 메고온 제대배낭속에는 이름난 작품들을 묶은 화첩들과 그 자신의 습작품들이 그대로 보관되어있다. 하지만 뜻밖에 눈을 잃자 그와 그림사이엔 넘을수 없는 어둠의 장막이 가로막혀버린것이였다...

침묵은 오래동안 지속되였다. 한우는 자기와 옆사람들사이에 생기군하는 이런 침묵이 늘 싫었다. 남의 불행을 면전에서 뵈히 들여다보는것은 실례다. 이렇듯 차안이나 역기다림칸 같은데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알갭게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원심을 쓸수록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끌려가는것을 어쩔수 없음을 한우는 몸성할때의 체험으로 잘 알고있었다. 지금 말없는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쳐다볼수도 아니볼수도 없어 몹시 불편해할 이 사람들의 시선속을 빨리 벗어나고싶었다. 그속을 벗어나 아무런 주저나 허물도 없이 자기를 쳐다볼 친근한 눈길속으로 한시바삐 달려가고싶었다.

자기의 얼굴을 그렇듯 마음놓고 쳐다볼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전우들밖에 없다고 한우는 믿었다. 아니, 또 한사람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이즈음에는 그 어머니마저도...

그가 두눈을 잃고 제대되어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붙들고 울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설책의 강직한 어머니들처럼 《장하다!》 하고 소리쳐 말하지도 않았다. 중대정치지도원의 손에 이끌려 열차에서 내리는 아들의 손을 넘겨받은 다음 말없이 꼭 잡고 집에까지 이끌고왔을뿐이였다. 그리고는 여직껏 아들의 손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 없이 어디로 가든 그의 《눈》이 되어주었다. 무슨 일로 눈을 잃었는

가는 묻지도 않았다.(하긴 중대정치지도원이 다 이야기해주었을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간혹 누가 물어보아도 못들은척 넘겨버리곤하였다.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것을 아들이 싫어한다는것을 어머니는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멀리로 이사를 간 한우네 옛동창생의 어머니가 고향에 왔다가 잠깐 그의 집에 들린 적이 있었다.

너동생의 도움을 받아 만든 열마당의 조그마한 꽃밭에 사단군의소를 떠나올 때 담담간호원처녀가 준 여러가지 꽃씨를 심은 날이였다. 꽃심기를 끝내고 옷방에 들어오니 꼭 닫긴 사이문너머 아래방에서 동창생의 어머니가 아들자랑이 한창이였다.

(학교때도 그저 아들자랑밖에 모르시더니...)

꽃씨를 찻던 손수건의 주름살을 손다림으로 퍼면서 문너머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한우는 빙그레 웃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사가 된 아들 자랑을 침마르도록 하고난 그 어머니는 결붙여 이제 맞아들이게 될 며느리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인물은 얼마나 고무며 맘씨는 또 얼마나 비단같으며... 아래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우는 이제는 퍼그나 달라졌을 옛동창생의 모습과 동창생 어머니의 말대로 무척 아릿다울 그의 애인의 모색을 그려보려 애썼다.

《참 듣자니 이집 한우가 눈을 상했다던데 지금 어찌고있어요?》

제자식 자랑끝에 문득 생각난듯 불쑥 묻는 말에 한우는 어지간히 긴장해졌다. 아직 가만 앉아 듣기만 하던 그의 어머니도 잠시 대답이 없었다. 한우는 손수건을 포개다말고 숨을 죽였다. 그러다가... 책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한테서 자기가 눈을 상하던 때의 이야기가 자랑스러이 흘러나오기 시작할때문이었다.

《어머니!》

한우는 문계로 다가서며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칼로 베듯 똑 끊어졌다.

《아니, 한우가 옷방에 있었군요?!》

놀람에 젖은 그 너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사고를 친건데 무슨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한우야!》 후려치는듯한 어머니의 목소리.

《사고라면 나라에서 널 영예군인으로 내세워주구 너한테 큰 훈장까지 달아주었겠니?》

당당하게 울리면서도 물에 젖은듯한 그 음조에 가슴이 알알해난 한우는 동창생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 아래방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 아깐 정말 안됐어요. 하지만 어머니, 영

예군인이란 이름은 누구의 자랑에 맞세우자고 있는 게 아니예요.》

《나두 안다. 그저 어쩐지 네가 지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는 말을 맺지 못했다. 말꼬리가 소리없는 울음에 먹히운것 같았다. 한우는 손을 쳐들어 어머니의 눈언저리를 더듬어보았다. 어머니의 눈아래, 손가락끝 감각으로도 알릴만큼 살이 빠진 볼은 젖어있었다. 한우는 가슴이 찢릿이 젖어들었다.

인민학교 3학년때가 도예술전문학교에서 미술지망생들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도 몰래 달려갔던적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조직의 추천없이 왔다고 되돌려보내는 바람에 머리를 축 쳐뜨리고 돌아와 선생님들과 아버지한테 된꾸중을 듣고 풀리지 않은 웅어리를 속에 품은채 술곳이 잠들었다가... 얼굴에 떨어져내리는 후더운 물방울에 잠을 깼었다. 웬 물방울일까? 어둠속 까만 허공을 어루 더듬다가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볼에 손가락이 닿자 《엄마!》하고 젖먹이때처럼 와락 품에 안기던 생각이 불쑥 든것이다. 그때도 어머니의 볼은 지금처럼 젖어있었다. 하지만 매끈하고 보동보동한 살갗에 실주름 하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철없는 자기를 애지중지 키워 인민군대에 내보내느라, 그 다음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애간장 말리며 기다리느라 그리고 집에 돌아온 지금엔 영영 자기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 그 누구에게도 짝지지 말았으면... 남모르게 속쓰느라 것처럼 매끈하고 보동보동하던 볼이 홀쭉 꺼지고 잔주름에 덮였으리라는 생각에 아이적 그때처럼 울음이 터질것만 같아 입술을 옥물었다. 그리고는 자신으로서도 너무나 답답하고 뻥뻥하게 들리는 남의 목소리같은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전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고있어요. 다들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앞으로 달리고있는데 난 이렇게 어머니무릎 앞에 앉아있거든요.》

그는 오열에 묻혀드는 말꼬리를 가까스로 가무리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못다한 말이 계속되고있었다.

《난 큰 화가가 될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내겐 부족한것이 있어요. 재간이랄까, 나도 알수 없는 그 무엇이... 그런들 어떡해요. 그림을 꼭 그리고싶은것을? 병사시절 차를 몰고다니며 본 내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죄다 화폭에 담고싶은 이 꿈은? 제대를 앞두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교원이 될것을 결심하고 대학시험을 쳤던거예요. 미술선생이 되어 고향의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고향산천, 부지런하고 착한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으면서 그들을 키워 내가 오르지 못한 그 높이에 올려세워주려구요. 그러면 전 더 바랄게 없을것만 같

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입학통지서를 받았을 땐 이미... 어머니, 난 이제 무엇으로 이제껏 내가 꿈꾸어오던 그 행복을 얻을수 있을까요? 이자 방금도 집에 가서 꼭 심고 가꾸라며 내가 퇴원하던 날 담당한호원동무가 보낸 꽃씨를 심으면서 줄곧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꽃씨들은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겠지만 난 그 꽃들을 볼수조차 없는 난...》

입밖에 내지 않은 마음속 그 말을 다 새겨들은듯 어머니는 달래듯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한우야, 네가 눈을 잃고왔을 때 난 마음속으로 널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널 보기 괴롭구나. 학교때 뒤산 절벽우에 올라가 그림을 그리다 떨어져 다리를 몹시 상하고도 집에 붙어있을줄 모르던 네가 아니었니. 그래서 이 예비숙을 썩이던 네가 집안에만 앉아있는걸 볼 땐 내 마음이 좋지 않다. 애, 너무 괴로워말아. 여섯달 자라는 곡식도 가물, 장마 다 겪고서야 열매를 맺을라니 하물며 사람의 한평생에 무슨 곡절인들 없겠느냐? 그런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다지구 앞을 내다보야 하느니라.》

...그 일이 있은후부터 한우는 어머니랑 마을사람들의 일손을 도우려 더욱 자주 농장에 나가곤했다. 그러면 마을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그의 등을 떠밀곤했다.

그 진정은 고마운것이였지만 집에 들어와 앉으면 세상밖에 동떨어져 홀로 나앉은것 같은 외로움 감정이 가슴을 들먹이 채웠고 네면이 팍 둘러막힌 어떤 갑속에 들어앉은듯 갑갑한 심경에 사로잡히곤했다. 그리고 그런 때마다 주위세계가 점점 더 어둡어둡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면 한우는 마당의 꽃밭에 나가곤했다.

꽃나무들이 벌써 한뼉은 실히 되게 자랐다.

손더듬으로 꽃밭을 가꾸고나서 한우는 꽃밭옆의 밀둥이 꽤 굵은 백살구나무를 짚고 오래도록 만져보곤했다. 그가 태여났을적에 아버지가 기념으로 심은 나무였다. 그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벌써 봄이면 하얗게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노란 열매가 주렁지곤했다. 가슴속에 그림에 대한 꿈이 움트고 화판을 끼고다니기 시작해서부터는 해마다 꽃필 때마다 꼭꼭 서투른 솜씨로나마 그림에 옮기곤했었다. 그러는 속에 한우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 그가 군대에 나갈 때에는 손아귀가 벌게 줄기가 굵고 지붕과 키겨름하리만큼 푸른 아지가 무성하더니 이제는 아이들 허리통만큼이나 밀둥이 굵어졌다. 지붕과 키겨름하던 상수리도 지붕을 덮으리만큼 무성해졌을 것이다. 지금 한장 초여름이라 새파란 연록색 햇잎 사귀들이 머리우에 높이 떠오른 해빛을 싣고 느슨하게 들어오는 바람결에 가렵게 하느작거릴것이다.

열매들은 푸른 잎새속으로 들여다보일만큼 자랐을 것이고… 한우는 그것을 볼수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바로 이 나무처럼 생명의 즙을 한껏 빨아 올리며 싱싱한 움을 피우고 열매를 자래우며 무성한 여름에로, 풍만한 가을에로 치달아가야 할 자기가 이렇듯 생의 초여름에 집마당가나 맴돌고있는것이 안타까웠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서는…)

그럴 때면 문득문득 중대가, 중대전우들이 그리워났다. 고향도 성격도 취미도 서로 다르지만 피와 살을 나눈 형제처럼 생사고락을 함께 하여온 전우들, 아무런 가식도 구김살도 없이 서로 속마음을 터놓을수 있는 그들이 못견디게 그리워났다. 전우들과 함께 조국산천을 달리며 앞날의 푸른 꿈을 키워가던 병사시절이 그리웠다. 그 시절로 돌아갈수만 있다면… 중대로 가고싶었다. 그리운 전우들과 한데 어울려 그 시절처럼 마음껏 웃고 떠들고싶었다. 그리고 나날이 울먹해지는 속마음도 시원히 터놓으면 무겁던 심정도 한결 가벼워질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는 집안에 가만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가자, 중대로! 전우들 한테로!

하여 문득 길을 떠난온 그였다. 내놓고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랑 마을사람들이 따라나설것 같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것이 싫어 어머니도 모르게 혼자서 떠났다.

앞모 보는 눈으로 그 먼길을 홀로 가낼것인가 하는 근심은 하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옛모교로, 병원으로 새로 생긴 역으로… 몇번씩 오가는 사이 집문앞에서 몇보만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몇백보걸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줄줄거리는 논물소리를 따라 몇걸음 가면… 이런 식으로 남몰래 머리속에 그려둔 《지도》를 따라가면 혼자서도 능히 역까지 갈수 있고 거기서 통근열차를 타고 이백리쯤 가다가 분기역에서 원산행을 갈아타고 종착역까지 가면 부대로 어렵지 않게 갈수 있으리라는 배심이 든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산했다. 불과 오리도 못미쳐 그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린것이였다. 풀벌레소리만 씨룩거리는 북방산골 농촌마을의 인적드문 행길가에 오도가도 못하고 서서 어쩔줄 모르는 그를 역까지 데려다준것은 선나문살쫂 되였을 어떤 어머니였다. (한우는 녀인의 목소리로 그렇게 짐작했다.)

그 어머니한테서 한우를 넘겨받은 산간역의 늙은 출표원은 통근열차의 처녀열차원에게, 그 열차원은 분기역에 당차 마침 흠에 들어서는 원산행급행열차의 상급차담당열차원처녀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상급차열차원은 살뜰하게 그를 맞아서 지금의 이자리에 친절히 데려다 앉혀준것이였다.

(지금쯤 중대동무들은 뭘하고있을가? 혹시 기동훈련을 나가지나 않았는지.)

중대를 떠나올 때 정문밖 멀리까지 따라서며 오래도록 바래주던 전우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귀전을 쟁쟁 울린다.

《다시 오십시오. 부소대장동지!》

《꼭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한우동지!》

역홈까지 나와 힘껏 손잡아주던 사단장동지의 굵고 걸걸한 목소리도 금시 들려오는듯하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부대를, 중대를 생각하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아무때나 오오. 아니, 편지 하오. 그럼 나랑 정치위원동무랑 달려가겠소.》

한우는 부지중 가슴이 후터워졌다. 온 중대, 온 부대, 중대장동지며 정치지도원동지며 사관장이며…전우들모두다 어서 오라고 손짓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어서 빨리 달려가 그들의 넓은 가슴에 품당 뛰어들고싶었다. 그러면…

(빨리 달려주렴. 렬차여, 제발 질풍같이! 내 마음같이!)

2

《아니, 손님, 나가세요. 내리세요.》

앞에서 돌연히 들려오는 어떤 녀자의 성난듯한 목소리에 한우는 얼굴을 들었다.

《안된다는데두요. 어서 내리요.》 거듭 울리는 그 녀자의 단호한 목소리.

(렬차원동무의 목소리같은데…)

순간 눈앞에 언뜻 그러지는 어떤 처녀의 모습.

《안돼요. 못들어가요.》 애원하듯하는 그 처녀의 목소리가 금방 울려온 렬차원의 목소리와 기이한 협화음을 이루며 그 어떤 추억의 메아리처럼 멀리서 울려온다.

《허허, 이젠 차가 떠났는데 어떻게 내리라는거요? 사골 내면 책임지겠소?》

렬차원의 딱딱한 목소리에 응하는 어떤 남자의 침착하고 능글맞은 말소리에 눈앞에 언뜻 나타났던 처녀의 모습이 꿈속처럼 사라졌다.

《그럼 저쪽 일반차칸으로 넘어가세요.》

《이 술한 짐들을 끌구요? 차안이 더 복잡해질텐데요.》

렬차원의 목소리가 팽팽해질수록 상대의 목소리는 더욱 능글맞고 여유작작해졌다.

《도대체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군에서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에 보내는 지원물자요. 우린 그리로 보충되여가는 돌격대구.》

《왜 수화물로 부치지 않았어요?》

《수속할 시간이 없었소. 일부 물자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쨌든 우리 차칸에서 나가주세요. 여긴…》

《상급차표는 우리도 뺏아질 않소?》

상대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조금 높아졌다.

그러자 렐차원의 목소리가 지친듯 농쳐졌다.

《이건 앞서나간 차의것이예요.》

《그 렐차를 놓쳤자질 않소.》

《그렇다고 이 차를 타면 어떡해요? 평양갈 손님이...》

렐차원의 여성이 다시금 날카로와졌다.

대신 상대의 목소리가 또다시 능글능글해졌다.

《고원 가서 내리겠소. 거기서 또 나가는걸 아무거나 잡아타고 나가야지요.》

《이 많은 짐을 끌고 내렸다 또 올렸다... 거, 고생이 많겠구만!》

려객들이 웅성웅성하는 속에서 돌격대원들 가까이 어떤 탁 두드러진 목소리가 동정을 표했다.

《할수 없지요. 군내 인민들이 고속도로건설장에 보내는 지성인데 버리고 갈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렐차원동무가 우릴 쫓아내지 않도록 좀 애길해주시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여행에 방해놓지는 않겠습니다.》

《예, 우린 이렇게 서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보다 펍 애된 다른 목소리가 어쭙게 덧붙었다.

한우는 땀에 젖은 검스레한 얼굴, 입가에 그려진 열적어하는듯한 미소, 그와는 대조를 이루며 열기로 번뜩이는 눈, 턱밑에 방울방울 맺혀드는 땀을 쏙 문다지는 커다란 손, 화확하니 젖어버린 색깔은 보위색작업복의 형용을 보았다.

(저 동무들은 얼마나 보람차고 긍지있는 길을 가는것인가. 구보로 달리는 조국의 큰걸음에 보폭을 맞추고 가는 저 동무들은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런데 나의 이 걸음은...)

불현듯 치미는 가슴을 저미는듯한 아픔에 한우는 대뜸 의기소침해지고말았다.

렐차는 간담없이 달가닥 탁, 달가닥 탁... 레루를 구르며 속력있게 달렸다. 저앞에서는 렐차원과 돌격대원들사이의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서로 주고받는 말소리가 웅- 웅- 벌떼의 소음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유쾌한 웃음소리조차 엿섞여 들려온다.

한우는 차창밖으로 얼굴을 돌리고 앉아 렐차원의 모습을 상상해보려고 사색을 모았다. 눈을 잃은 다음부터 모든것을 눈을 잃기전의 기억에 비교하여 상상해봄으로써만 《불수 있게》 된 그였다. 상상력- 그것이야말로 지금 그에게는 기억력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두눈중의 하나였던것이다.

그런데... 아직 한번도 본일이 없는 렐차원의 모습은 상상되지 않고 아까 렐차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언뜻 그려졌다가 사라진 그 처녀의 모습이 다시금 또렷이 떠올랐다.

《안돼요. 못들어요!》

산뜻하니 다림발을 세운 흰 위생복을 입은 그 처녀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애원하듯 소리치다말고 피곤으로 약간 부르튼듯싶은 도톰한 입술가에 회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세워보이며 조용히 속삭인다.

《쉿, 조용히!》

그것은 사단군의소 담당간호원의 모습이였다.

...사단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우는 중형발전소 마지막 로천물길공사장에서 뜻밖의 일로 중상을 입은 한우가 사단군의소에 입원한지 한달남짓이 흐른뒤의 어느날 저녁무렵, 공사를 마감하고 부대로 철수해가던 온 중대가 몇십리길을 에돌아 군의소에 잠간 들렀었다.

《안됩니다. 어서 물러서십시오.》

확 닫긴 입원실(중환자여서 독방이였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간호원의 뻥뻥한 목소리에 잠을 깬 한우는 까닭없이 흥떡이는 가슴을 손으로 꼭 누르며 귀를 기울였다.

《우린 시간이 없소. 빨리 만나보고 어둡기전에 중대로 돌아가야 하오!》 명령조로 무뚝뚝하게 울리는 날카로운 목소리.

(중대장동지 목소리다!)

한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허리에 입은 타박상때문에 움직일수 없었다.

《사단장동지한테서 두시간을 허가받았소.》

타이르듯 조용조용 울리는 목소리.

(아니, 정치지도원동지도...)

숨이 가빠오르고 심장이 쿵쿵 뛰노는 바람에 다 음 말을 듣지 못했다. 거의 애원조로 울리는 마지막 말만을 들었을뿐이였다.

《그러니 좀 비켜주우. 우리한테 이제 30분밖에 시간이 없소. 응, 간호원동무!》

《안됩니다. 지금... 환자동지가 막 잠들었습니다. 군의동진 환자가 깬 때까지 누구도 들여놓지 말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떠들면 안됩니다.》

간호원의 목소리도 완연 애원조로 넘어갔다.

《젠장, 그 친군 잘 시간이 없어 우리가 오는 시간에 잠을 자?!》

그와 같이 입대하여 지금껏 한중대, 한소대에서 생활해오는 2분대장의 목소리였다.

《여 2분대장, 들어오라구.》

한우는 분명 그렇게 소리치려 했으나 목이 꼭 잡기는 바람에 말을 못했다. 붕대로 꼭 싸맨 눈언저리가 불시에 척척해왔다. 내가 우는구나. 바보 같이... 그는 속으로 자기를 비웃으며 그들이 어서 들어오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안되겠소.》 단호한 결심이 선듯 중대장이 위협적으로 들이댔다.

《우린 조용히 그를 보기만 하고 가겠소.》

저쯤되면 누구도 그를 돌려세울수 없다! 이제 문이 열리고 그다음... 한우는 숨을 딱 멈추었다. 하지만 중대장의 그 무서운 성미를 모르는듯 간호원은 더욱 뻥뻥하게 막아섰다.

《안됩니다. 이젠 군의소규정입니다.》

《규정?!》 여직 말이 없던 사관장의 조금 섹섹 하는 목소리가 격하게 울렸다.

《규정이구 뭐구 한우동문 우릴 보기만 해도 자리

를 털고 일어난단 말이요. 자 비키오! 동무네 군의소의 약보다 전우들의 얼굴을 보는게 한우동무한테 더 좋은 약이 될게요.»

《동진…동진… 알지도 못하면서! 한우동진… 부소대장동진… 못봅시다. 영영…》

뒤이어 흑- 울음을 삼키는 소리, 텅텅… 어디론가 달음박질해가는 발자국소리…

다음 문이 어떻게 열리고 중대전우들이 언제 들어왔으며 말없이 자기를 굽어보다가 어느새 돌아갔는지 한우는 기억에 없다.

(영영 볼수 없더니? 그럼 내가 눈을? 내 눈이? 아니, 아니다. 그럴수 없다. 절대로!)

한편으로는 커다란 의혹과 완강한 부정, 다른 한편으로는 동통같은 아픔이 간단없이 온몸을 누비며 지나갔다.

전우들은 그가 깨여날가봐 저어하듯 말 한마디없이 그옆에 서있지만 했다. 하면서도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듯 그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봉대감은 얼굴을 다정히 쓸어주기도 하면서 좀처럼 떠날줄을 몰랐다. 그래도 한우는 모른체했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깊은 잠에 푹아떨어진듯이 숨죽이고 누워서 그들이 빨리 돌아가기를 모순된 심정속에 빌었다. 얼마후 전우들이 돌아가고… 퍼그나 오래동안 고요, 그의 잠을 지켜주려인지 간호원처녀도 인츰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우는 까딱없이 누운채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간호원처녀가 던진 마지막 말마디가 머리속을 뱅뱅 돌면서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느끼게 되는 그런 어리둥절하고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짝 메울뿐…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해낼수 없었다.

간호원처녀가 조용히 문을 열고 그의 방에 들어선것은 한우가 어느정도 리성을 찾은 뒤였다.

《우리 중대동무들을 리해해주십시오. 운전수들이 돼서 좀 거칠긴 하지만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들었습니까?》

한우의 침대옆에 멈춰선채 간호원처녀는 조금 겁에 질린듯한 음성으로 급하게 물었다.

한우는 듣지 못한것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간호원도 다른 내색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대뜸 활기가 느껴지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도 그들이 좋은 동지들인줄은 압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 우리 동무들이 뭐라고 했소?》

《동질…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리구 동지가 대단한 화가라고 자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에, 됐어요.》

《그래 동문 뭐라고 했소?》

《저도 동질 안다고 했어요.》

《동무가 나를?!》

《예, 언젠가 동진 우리 군의소에 와서 며칠동안 그림들을 그려준적이 있었지요? 우리 소장동지가

거기 중대장동지한테 부탁해서요.》

그런 일이 있었다. 벌써 4~5년전의 일이었다. 만일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예방주사 맞을적마다 애를 먹이군하는 운수중대를 후방부사단장에게 《고발》하여 혼찌검을 내겠다는 군의소장의 엄포에 항복해버린 한우네 중대장이 신수덜쨌던 그를 강짜로 군의소에 태워다 《입원》시켜버렸던 것이다.

《그때 우리 군의소 중앙복도 첫입구에 <췌, 조윙히!> 하고 입에다 손가락을 세워보이는 간호원을 그려놓던 생각나세요?》 생각할 여유를 주느라 조금 동안을 두고 간호원이 물었다.

그렇다. 생각난다. 새빨간 병사령장에 흰 위생복을 받쳐입은 어린 동무를 모델로 세우고 웅근 하루 동안 그렸었다. 밍지 않게 조금 도드라진 되도록한 이마와 날이 선 코마루며 약간 부르트것같이 물기를 머금은 도톰한 입술이며를 단필로 그려냈을 때 군의소의 군의, 간호원, 환자들모두가 그의 등뒤에 몰쳐서서 감탄하던 일도 생각났다.

《그때 모델을 섰던게 바로 접니다.》

《그 얼굴 하얗던 병사가?!》

《이젠 상급병사입니다.》

《아! 하긴 그때 나도 초급병사이였으니까…》

그는 말하다말고 입을 다물었다. 어떤 안타까움같은것이 목을 짝 메운것이였다. 종일토록 눈앞에 붙들어앉혀놓고 그리던 그 애젊은 녀병사, 어깨를 낮추라면 군소리없이 낮추고 눈을 너무 올리뜨지 말라면 큰 잘못이나 저지른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소곳이 눈을 내리깔며 《병사화가》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던 그, 물을 길어다준다, 화판에 종이를 발라준다 하며 보조공일까지 도맡아해주던 그…

《이제 내 나이쯤되면 동문 아주 고와질거요.》

《어떻게요?》

《지금은 그저 귀엽기만 한데 이제 군대된장을 한 뒤둑 축내면 그귀여움이 아름다움이랄가, 거 눈속은 호수처럼 더 깊어지고 불은 붉어지고 코날은 유연해지고…》

《그래요?!》 처녀는 싫지 않은듯 즐겁게 반응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때마다 처녀의 량쪽 입귀에 살짝 패우군하는 귀여운 보조개.

《어마나, 제가 이렇게 몸이 났어요? 저 코랑 볼이랑…》

다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던 처녀는 의아쩍은 눈길로 한우를 쳐다보았다. 그의 룡말이 그림우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림속의 처녀는 눈앞의 처녀보다 좀더 나이든 원숙하게 숙성한 처녀로 되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한우는 빙그레 웃었다.

《이제 이렇게 될거요. 몇년후면!》…

그때는 룡삼아 던졌던 그 몇년이 지나 몇년후면 그렇게 되리란 그 처녀가 지금 그앞에 서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속의 처녀처럼 되었을가? 되도록하던 그 이마는? 날이선 코마루는? 이슬먹은 딸기같은 그 도톰한 입술은? 붉은? 보고 싶었다. 허나 볼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볼수가 없을 것이다. 이 간호원동무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영! 새로운 아픔이 가슴을 저미고들었다.

(아니, 아니다. 그럴수 없다. 나는 꼭 볼것이다. 이 동물 보게 될것이다!)

그는 공하고 힘껏 몸을 뒤채졌다.

《아니,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상처에...》

어깨를 꼭 누르며 황황히 던지는 간호원의 말소리, 그 다음 침묵,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갑자기 활기를 띤 목소리로 간호원은 말했다.

《그때 그린 그림이 지금도 그자리에 걸려있어요.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다들 제가 나이들면서 점점 그림속의 그 처녀처럼 되어간대요.》

한우는 이 처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생각했다. 자기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우정 꾸민듯한 그 활기가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

《동무, 아까 그 말이 사실이요? 내가 영영 볼수 없다던 그 말이?》

한우는 그렇게 묻고싶었다. 그러나 그 말은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 처녀가 그것을 겁내고있다는 생각이 든때문이었다. 한우자신도 그것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달포쯤 지나 병원문을 나설 때까지 그와 간호원처녀사이에 그 말만은 단 한번도 오가지 않았었다...

(그는 지금 뭘하고있을까? 난 그를 만나면 뭘 말할가? 꽃을 심었다고? 동무가 보내는 갖가지 꽃들이 이젠 한뼉쯤 자랐다고 말할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그 처녀가 꽃씨를 싸보내준 손수건이었다.

한우는 아무런 문양도 그림도 색깔도 없는 하얀 그 손수건을 그 무슨 진귀한 보물이라도 되는듯 펼쳤다포갠다 하며 오래도록 정히 쓸어보다가 다시금 안주머니에 넣었다.

3

제법 켹켹 내리쳐는 6월의 별빛으로 기차는 쉽없이 계속 달렸다. 그러다가... 바퀴값히는 소리를 내며 잠깐 멈춰섰다가는 또다시 달리고... 어느 역에선가 소리없이 금방 떠났을 때였다.

뒤쪽으로부터 또각또각 신발뒤축 끄는 소리가 가까와오다가 한우네 옆에 와 멎고 약간 팍팍새를 머금은 녀자의 체취가 몸가까이 풍겨오더니 《이걸 잡쉴보세요.》 하는 렬차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자 역안내원들이 이고장 특산이라며 우릴 먹어보라고 울려보내준 찻물양벚이예요. 얼마 안되지만 맛보세요.》

한우 앞차탁에 양벚꾸레미를 놓고난 렬차원은 미

쳐 사양할 사이도 없이 또각또각 구두발소리를 내며 앞쪽으로 멀어져갔다.

《참 좋은 동무구만!》

옆의 기자가 칭찬하며 양벚 몇알을 한우의 손에 집어주었다.

《그러게말이요. 처음 돌격대 젊은이들을 닦아세울 땐 엄하기 짝없더니 꽤 다정한 동무요.》

기자옆의 화가가 맞장구쳤다.

《렬차원들이야 다 좋은 동무들이지요.》

등반이너머에서 누군가 바스음성으로 받았다.

《웁소. 규정을 어긴 사람들한테 칼날같지만...》

그옆의 누군가의 말에 기자가 반박해나섰다.

《저 돌격대동무들도 사실은 좋은 동무들이지요. 좋은 일로 좋은 길을 가는... 그래서 렬차원동무도 이해한거지요. 아, 그 동무들이 렬차원한테 사과를 권하누만. 고맙다는거겠지. 반소, 렬차원동무! 그건 퇴물이 아니요.》 하고 그는 옆의 사람들이나 알아들을만큼 낮은 소리로 흥에 떠서 웨쳤다.

여럿이서 입모아 무엇인가를 권하는 소리, 사양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점차로 잦아들다가 별안간 왈작 떠들어올리는 환성과 짹자그르르 터지는 박수소리에 이어 손풍금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저 친구들 오락회를 벌리는 모양이군!》

《어디요?!》 앞의 녀석이 벌떡 일어섰다.

《에그, 양벚 떨어진다.》

그에 어머니의 지청구소리가 금시 시작되는 경쾌하고 건드러진 노래소리에 묻혀버렸다.

하늘은 가없이 푸르고

대지는 물결쳐 설레네

노래는 차칸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점점 더 높아졌다.

한우는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밝고 명랑한 음악이 흐르는것을 은연중 느끼며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렬차는 해변가를 벗어나 들판으로 달리는듯 구수한 두엄냄새같은것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오락회는 합창에서 남성고음독창으로 번졌다가 혼성2중창으로, 거기서 다시 녀성저음독창으로 번지고 이어 남성소중창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열기가 고조되었다. 앞의 녀석은 아예 그쪽을 향하여 일어선 모양 야! 야! 감탄하는 소리가 한우의 머리우에서 들려왔다. 옆에 앉은 기자까지도 흥얼흥얼 코노래를 꺼묻어 불렀다.

오락회가 점점 열피고 주위사람들의 관심이 그에 집중될수록 한우는 까닭없이 문득문득 쓸쓸해지는 감을 느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에 휩쓸려들지 못하는 소외감때문인가?

앞쪽에서 별안간 와- 하는 탄성이 터져오르고 박수소리가 물방으로 일어나는바람에 한우는 얼굴을

밖으로 향한채 온몸의 신경을 귀에 모았다.

《허, 그 친구들 렐차원동물 불러냈구만!》

기자의 말에 한우는 몸을 돌려앉았다. 와- 하는 탄성은 갈았고 박수소리가 계속되었다.

《전 노래를 잘 부를줄 모릅니다. 대신 이야길 하면 안될가요?》

홍분에 겨운 렐차원의 목소리가 투박거리는 박수 소리가운데 들려왔다.

《이야기면 이야기, 아무거나 좋소.》

조금 먼곳에서 누군가 흥이 깨질까봐 겁내는듯 얼른 받아엿었다.

《대신 재미있는 얘기여야 합니다.》

그다음 잠시 조용해졌다.

《이것은 어느 한 구분대 발전소 물길공사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렐차원은 조용히 말머리를 뺐다.

《제대를 앞두고 대학시험을 친 사관운전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돌아오자 그는 곧 마지막 물길공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지막발파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순간이 왔습니다. 불을 달고 조금 안있어 쿵 쿵- 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산갈은 언덕이 뭉쳐 떠올랐다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하나, 열둘... 열아홉, 스물을 헤고 기다렸으나 더는 발파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누런 흙먼지와 파아란 연기가 몽게치는 산언덕을 말없이 바라보며 스물한번째, 마지막발파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 15분이 지나고 다시 10분, 15분...

지휘관들은 안타까운 눈길로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맹세한 공사기일을 눈앞에 둔 지금 한초, 한분이 천금같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터지지 않은 발파장약을 찾아내어 해체하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때 문득 지휘관들앞에 나서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학입학통지서를 기다리고있던 그 사관운전수동무였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렐차원은 잠시 숨을 돌렸다.

차안은 아무도 없는듯이 조용해졌다.

한우는 렐차원의 이야기를 듣다말고 슬그머니 긴장해졌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유압식굴착기를 끌고 사단장앞에 나섰던 자기의 모습이 마치 남의 모습을 보듯이 그의 눈앞에 또렷이 그려졌다.

... 《사단장동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동무가?!》

수염터가 거뭇하고 눈썹이 수북한 젊은 사단장은 칼끝같은 시선을 그의 얼굴에 견주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요?》

《굴착기팔을 쪽 펼쳐서 바가지로 버력을 한줌씩 한줌씩 퍼웁니다.》

《그러다 폭발하면?》

《굴착기는 리대식이고 자체중량이 무겁기때문에 웬간한 폭풍엔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팔 끝부터 운전실까지 거리가 있기때문에 별로...》

사단장은 긴장해서 옆에 빙 둘러서있는 지휘관들을 휘둘러보더니 결심이 선듯 한팔을 뻗 내리그었다.

《좋소. 그렇게 하지요. 나도 함께 타겠소.》

《알았습니다.》

힘있게 대답한 다음 차를 향해 씨엉씨엉 걷는 사단장을 한발 앞서 차에 오른 한우는 쿵- 문을 닫아걸었다. 그리고는 누가 어쩔새 없이 발파현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우동무!》

《서라! 세우시오!》

다급한 웨침들이 날아오고 사단장이 큰 몸집을 휘 날려 문앞에 떡 막아섰으나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차를 멈추고 사단장더러 내려줄것을 요구했다. 내리기전엔... 팔짱을 지른채 돌아앉아 버렸다. 탕!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에 얼굴을 돌리자 이윽히 한우를 쏘아보던 사단장이 바위같이 커다란 주먹을 들어 위협적으로 손을 흔들어보이더니 훌쩍 뛰어내렸다. 일을 끝낸 다음 보자는 뜻이였다!

아! 그것이 자기의 눈으로 본 사단장의 마지막 모습, 아니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사람의 모습으로 될줄이야!

그는 굴착기를 몰고 천천히 폭파현장으로 향해갔다. 부서지고 파위집혀진 흙과 돌바위무지로 다가가 그 육중하고도 감쪽한 기계 《손》을 뻗쳐 버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줌》 또 《한줌》 조심스레 파내는데 갑자기 흰 섬광이 번뜩하더니 시커먼것이 그속으로 날아오고 쨍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것이 새까매졌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렐차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폭풍에 그만 두눈을 잃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건강은 쉬 완쾌되어 병원문을 나서던 날, 그한테로 대학입학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품은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우는 더는 그대로 듣고 앉아있을수 없어 움쭉 일어섰다. 이제 몇마디만 더 나오면? 그전에 자리를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간...

그는 의자등받이를 짚고 일어섰다.

《어딜 가려오?》

기자가 그의 팔을 잡으며 따라 일어섰다.

《손님 여러분!》

조용조용 울리던 렐차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 높아졌다.

《그 영예군인동지가 지금 우리 렐차를 타고있습니다. 37번 좌석에 앉아계시는... 아, 마침 일어섰군요. 저 영예군인동지가 방금 이야기한 바로 그 한우동지랍니다.》

만장의 박수소리가 터져오르며 감동의 선풍같은

것이 한우의 몸을 휩쌌다. 그 선풍에 휘말리운듯 그는 휘청하며 도로 주저앉았다.

《동무, 그렇게 큰일을 하고서 사고가 뭐요?》

옆에 앉은 기자가 악의없는 소리로 그를 탓하며 그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군대삼촌!》, 《군대아저씨!》

소년과 어머니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그를 불러놓고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저쪽 앞에서부터 여럿의 발자국소리가 몰려오더니 술한 손들이 그를 붙잡고 술한 목소리들이 그를 에워쌌다.

《동무! 저리로 우리한테로 잡시다.》

《동무들, 이 영예군인동물 목마래워잡시다!》

렬차원한테 능글거리던 목소리가 선동구호나 웨치듯하자 곧 열렬한 호응이 일어났다. 순간 군의소에서 중대로 돌아오던 날 생각이 문득 났다.

그때 중대전우들모두가 십리밖까지 마중나와 사단장차를 타고오는 그를 무작정 내리워서는 목마에 태워가지고 중대로 갔었다. 서로 자기 목에 태우겠다고 길복판에서 《싸움》까지 해대면서... 마치 그 속에 다시 파묻힌듯 속이 물큰해왔다.

《아니, 아니, 동무들!》 옆의 기자가 한우의 어깨를 짊 누르며 소리쳤다. 《이 동문 명실공히 우리 사람ियो. 누구도 여기서 데려갈수 없소!》

상소할수 없는 그 어떤 선고처럼 단호하게 울리는 기자의 단언에 주위가 잠시 조용해지고 돌격대 책임자가 흥분한 어조로 호소했다.

《그럼 우리 이 영예군인동물 위하여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각양각색의 목소리들이 호응해나섰다. 손뼉금이 정서깊은 곡조를 울리더니 노래가 울렸다.

병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총메고 떠나온 산천에 물어보라

...

그들은 한우를 일으켜세워서는 겹겹이 에워싸고 절절하게 노래를 불렀다. 한우는 자꾸만 목이 꺾꺾 막혀와 겨우 따라불렀다.

《저... 미안해요. 승인없이 동지애걸 해서...》

노래 한절을 불렀을 때 언제 다가왔는지 렬차원이 그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다.

《통근렬차원동무한테서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말하지 않을수가 없었어요. 동진 그들을 모르지만 거기 사람들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온 군에 동질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군요. 글썄 그런 영웅이 우리 렬차에 탔다는건 자랑이 아닌가요. 그래 더놓았어요. 아, 손님!》

말을 채 맺지도 못한채 렬차원은 누군가를 다급히 부르며 그의 옆을 떠났다.

멀어져가는 렬차원의 유난스런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한우는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인가. 얼마나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들인가. 내가 무엇이라고, 이들

을 위해 내가 무얼 한게 있다고 이렇듯 어딜 가나 나를 내세워주고 위해주는것인가. 한우는 생면부지의 이 사람들, 앞으로도 영원히 그 얼굴을 볼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릴적부터 함께 지내온 형제처럼, 친우들처럼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불현듯 자기가 한평생 이 고마운 사람들의 부담으로, 짐으로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노래는 더욱 절절하게 울렸다.

그러면 말해주리

구슬땀 배인 전호가 그 흠이

별처럼 빛나는 병사의 눈동자가

4

한우네 좌석은 별안간 복잡해졌다.

맛있는 당과류들을 가져오는 사람, 자기들의 도중식사를 통채로 들고오는 사람, 어떤 나이지숙한 의사선생은 렬행도중 불편한데가 있으면 자기를 불러달라고 우정 찾아와 좌석번호까지 알려주고 그래도 안심치 않았던지 손수 맥박을 재어보고서야 돌아갔다.

《참 좋은 사람들이거든. 훌륭해!》

그들이 들고온것을 일일이 받아들이며 감동에 겨운듯 감탄하던 기자가 사람들이 뜸해진 틈을 타서 은근한 말투로 한우에게 물었다.

《그래 동문 결혼을 했소?》

한우는 별썬 웃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애인은 있소?》

《...》

《이제 처녀들이 찾아올거요. 모르지, 이 렬차안의 어떤 처녀가 곧 따라설지도. 안그렇소?》

화가가 기자에게 자기의 말꼬리를 밀어붙였다.

《그럴수도 있지. 참 말이 났으니 말할가?》

기자가 화가에게 동의를 구했다.

《뭘?》

《이번에 바다가에서 목격한건데... 참 멋있기란!》

화가의 반문에는 아랑곳없이 한우를 상대로 넌지시 말머리를 때놓고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대여섯개의 의자너머로 짐작되는 먼 웃음소리만이 간단없는 차구울음소리와 엇갈리며 들려올뿐이다. 한우네 좌석사람들은 금방 운을 떼다만 기자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한우도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 이기에 감란부호를 톱 쳐놓고는 잊지 못하는가.

《저녁무렵이었소.

북변의 대야금기지에 대한 우리의 취재길은 해변가로 이어졌소. 어로공들을 찾아서말ियो.

활동처럼 구뭇하니 안으로 휘여든 백사장을 훑으며 파도는 쉽없이 기슭을 때리고있었소. 조그마한 만을 이루며 쑥 들어온 바다너머로 멀리 바라보이

는 해안도시의 상공에 비낀 붉은 저녁노을을 비껴 안은 기슭의 바다는 마치 이글이글 끓는 쇠물처럼 보였소. 도대체 눈길을 땔수도 그냥 바라볼수도 없는 그 신비로운 빛의 조화를 흐뭇이 바라보며 발이 푹푹 빠지는 백사장을 걷던 우리는 모래불우에 넋 떠 올라앉은 자그마한 전마선앞에 웅기중기 모여서 있는 여라문명의 사람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소. 그들이 자기네 옆을 지나가려는 우리앞을 황급히 막아섰던거요. 의아해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말없이 저녁해빛과 저녁바다가 빛의 조화를 일으키는 바다기슭을 말없이 가리키는 것이었소. 바라보았으나 여기로 오면서 황홀한 심정으로 바라본 흰 모래불로 끝없이 밀려드는 황금빛 바다물과 그 우에서 끝없이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황금빛 저녁해살! 그것이 전부였소.

<저기서 지금 우리 마을 영예군인동무의 새색시가 수영훈련을 하고있소.>

그들중 한사람이 말했소. 그제서야 찬찬히 보니 은빛백사장우엔 바다를 향하여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이, 금빛바다물우엔 물이 출렁거리는데 따라 물속에 들었다 드러났다 하는 검은 바위같은것이 보였소.

<지금 새색시가 두다리를 잃은 남편한테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있소. 저 영예군인동무를 따라 전연군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동무요. 뭐, 주둔리 리당비서의 딸이라던지... 바다없는곳에서 여기 바다기슭으로말이요. 그리고 바다를 정복하는 양식공이 될것을 희망했다누만. 남편되는 영예군인동문 온 나라가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들구뛰는 판에 앉아있을 멋이 없으면서 정식 양식작업반성원으로 등록하고 그물이라 각종 어구들을 손질해주고... 그런데 새색시가 아직 헤엄칠줄 몰라 저렇게 배워주려 나와선 물속에 들어갈수 없으니 말로 배워주고있구만. 허허.>

이야기를 들으며 우린 앞에 펼쳐진 그 화폭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었소. 백사장우의 남자는 물가까지 나갔는데 두팔을 내저으며 뭐라고 열성껏 설명하고 물속의 녀자는 물밑에 뛰어들어 자맥질하다가는 숨이 찬듯 벌떡 일어서곤하는데 그때마다 황금빛물방울들이 그의 몸에서 눈부신 빛발을 마구 뿌리며 쇠물같이 번쩍거리는 바다물우에 흩어지곤 했소. 그러다가 지쳤는지 남자쪽이 모래불우에 털썩 누워버리자 녀자쪽도 힘이 진한 모양, 이편을 등지고 서서 한손을 들어 뒤머리를 빗어올리는데 아, 저녁해를 마주하고 선 그 모양이란... 지금도 막 보이는것만 같소.>

그는 숨이 찬듯 이야기를 그쳤다가 곧 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될 그 무슨 신성한것앞에선듯 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서 우린 생각했소. 몸은 비록 상해서 왔지만 젊고 아름다운(아름답지 않을수가 없지요.) 안해와 더불어 육체적시련을 딛고 일

어서 저 영예군인보다 더 행복한 인간은 없을것이다! 그의 가슴속엔 인생의 참다운 행복에 대한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있을것이다! 이렇게 말이요.》

그는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옆의 화가도 더 보충하러 하지 않았다.

모두들 잠자코 앉아 제나름의 생각에 잠긴듯 조용했다. 아니, 한우는 지금 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고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낸 옆사람의 의도 역시 눈물겹게 젖어왔다.

조국에 아낌없이 바친 희생에는 다함없는 사랑이 따르기마련이라는 뜨거운 격려가, 그보다는 뜻밖으로 닥쳐온 인생의 난관을 용감하게 박차고 일어나 새로이 정한 삶의 목표를 향하여 이 기차마냥 완강히 돌진해나가고있는 그 영예군인동무의 불굴의 모습 그자체가 주는 의미였다.

한우는 들먹이 차오르는 흥분에 몸을 떨며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차곡차곡 포개여넣은 손수건이 잡혔다. 순간 쿵쿵, 흥벽을 때리는 심장의 박동이 손수건을 꼭 움켜잡은 손에 느껴졌다.

《옥영이!》

그는 저도 모르는사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렀다. 그러자 입가에 손가락을 세워보이는 그림속의 처녀- 담담간호원의 모습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어째선지 힐난하는듯한 눈매로 한우를 쳐다보며 처녀는 가만히 속삭였다.

《췌, 조용히! 흥분하지 마세요.》

...그 처녀는 침대옆 의자에 앉아있었다.

한우는 비스듬히 몸을 일으키고 마주앉았다. 얼굴에 감았던 붕대를 풀지는 오래 되었다.

눈을睜떳던 붕대도 얼마전에 풀었다. 대신 사관장이 구해다준 색깔 짙은 보호색안경을 꼈다.

방안엔 그윽한 향기가 흘렀다. 창턱에 놓인 꽃병의 꽃에서 풍겨오는 향기였다. 천우들이 왔다간 다음날 아침부터 처녀는 매일 새 꽃을 꺾어다 창턱에 놓아주는것을 일과처럼 지켜오고있었다.

《한우동진 꽃을 무척 좋아한다면서 머리맡에다 매일아침 향기로운 꽃을 꺾어다놓아달라고 사관장동지가 부탁하더군요.》

처음 꽃을 가져다놓으면서 처녀는 말했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한우는 류달리 꽃을 좋아했다. 이른봄날부터 늦은가을까지 그는 훈련과 수송전투의 바쁜 여가에도 우연히 마주친 꽃나무앞을 그냥 지나치는 법을 몰랐다. 시간이 있을 때엔 속사철에다, 그렇지 못할 때엔 마음속으로 그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서야 자리를 뜨곤하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때마다 매번 저같이 시꺼먼 흙속에서, 또 저처럼 투실투실한 나무줄기속에서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모양의 꽃이 생겨날가 하는 신비로운 생각이 들곤하는 것이였다. 누군가 그것은 꿀벌, 나비를 유혹함으로써 후대를 남기기 위한 생명활동의 산물이라고 그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렇다. 꽃! 한우에게 있어서 그것은 영원으로, 영원을 지향하는 생명의 줄기찬 투쟁, 바로 그것이였다. 영원을 위한 못생뎡들의 투쟁은 언제나 그렇듯 아름다웠 것이다!

꽃들이 한창 지는 가을철이었지만 간호원처녀는 매일아침 새로운 꽃들을 꺾어다놓고는 곧 자리를 피해주곤 하였다. 그러면 한우는 향기를 맡고 꽃송이를 만져보는것으로 그 꽃들의 모양을 눈앞에 선히 그려보며 입속으로 꽃의 이름들을 외워보곤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간호원처녀가 꽃을 가져다놓고서도 인침 나가지 않고 이렇듯 앞에 와 앉아 그 무슨 내기를 하자고 자못 신중히 말한다.

《무슨 내길?》

《제가 오늘 꺾어온 꽃들을 만져보지 않고 무슨 꽃인지 알아맞춰보세요. 할수 있지요?》

《글쎄...》

《대답해봐요. 알아맞히면 래일 퇴원할 때 제가 마련한 기념품을 드리겠어요.》

《래일 퇴원하게 되오?》

《군의동지가 그러더군요. 자, 알아맞히세요.》

다른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듯 처녀는 의자를 바투 끌어다 앉으며 다긋는다.

《내가 알아맞히지 못하면?》

《할수 없지요. 기념품을 다른 동지한테 주는수밖에.》

《다른 동무한테?!》

처녀의 기분에 어쩔새 없이 휘말려든 한우는 흥하고 코날을 벌름거리며 꽃향기를 식별해내려고 했다. 하지만 아침랭기를 머금고 류달리 질게 풍겨오는 장미꽃향기를 내놓고는 자신없었다.

《곤란한데... 이렇게는 자신있소. 동무가 꽃이름을 대면 보지 않고 그 모양을 말할수는...》

《아니, 아니, 이렇게 하자요. 여기엔 지금 한창 피는 꽃들을 꺾어왔어요. 어디 꽃모양을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그럼 제가 이름을 댈게요.》

한우는 처녀의 밝고 랑랑한 목소리가 샘물같이 가슴속에 찰랑찰랑 고여드는것을 뿌듯이 느끼며 바로 지금, 군의소주변에 필만한 꽃들을 눈앞에 그려보려고 사색을 모았다. 지금은 9월... 추석도 지났으니... 그렇지, 그때도 가을이었어. 군의소로 들어오는 길옆으로 선명한 가을해빛속에...

《길옆에 무리로 피는 꽃인데 줄기도 일도 가느다랑소. 허리높이만큼 자란 가지끝에 흰빛, 연분홍빛, 적분홍빛 꽃들이 애들손가락을 짝 편모양으로 활짝 폈소. 꽃잎은 여덟 혹은 아홉잎.》

《우리 군의소로 들어오는 길옆에 핀 코스모스, 여기 있어요. 그다음?》

처녀는 회한한듯이 소리치며 더욱 다가앉는다.

《다음... 산기슭이나 들가에 피는 꽃인데 키는 작고 가지를 많이 쳤소. 흰보라빛의 외침꽃이요. 진록색의 나무잎과 노란색의 꽃술이 보라빛의 꽃잎과 유난한 대조를 이루었소. 무리로 꺾어들면 그보다

아름답고 청신한 꽃이 없지. 꽃잎은 스물한잎부터 스물다섯잎.》

《웁아요. 들국화! 그것두 있어요. 다음엔요?》

다음... 한우는 군의소주변에 꺾을듯싶은 꽃이 또 무엇일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하게 풍겨오는 장미꽃향기때문에 방해되었다. 그는 중대마당앞에 자기가 가꾸어오던 꽃밭을 그려보며 자신없이 말했다.

《이건 사실 자신이 없는데... 불색이 도는 노란빛의 꽃이요. 꽃술이 무성하고 꽃송이가 그리 크지 않은데 가을대기처럼 툭박이 선명한 꽃잎이 평한 아침공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금전화, 여기 있어요. 다음 한가지만 더.》

한우는 생각을 깊이 모으는척하다가 문득 말했다.

《그 한가지는 장미요. 여름부터 지금껏 계속 피는 장미, 꽃송인 여름것보다 펴 작지만.》

《맞았어요. 다 맞혔어요. 시내 화초원에 가서 겨우 얻어왔어요.》

처녀는 기쁜듯이 흥분한 어조로 말하더니 조금 숨을 돌렸다가 혼자말처럼 속삭이듯이 조용히 이었다.

《할수 없군요. 기념품을 드릴수밖에... 래일아침 떠날 때 드리자고 했었는데, 가만 계세요.》

처녀는 의자소리를 내며 일어서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어디론가 총총히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

(무얼가? 기념품이?)

발자국소리가 다시금 총총히 가까와오다가 문이 열리더니 장난기 섞인듯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자, 눈감으세요, 눈! 감았어요?》

《응, 감았소.》

한우는 처녀의 밝은 기분에 점점 깊이 몰려드는것을 야릇한 공포심속에 느끼며 가볍게 받았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이제 내가...》

앞으로, 그앞으로 조심조심 다가오는 발자국소리, 앞애다 무엇인가 내드는 기척.

《됐어요. 이제 눈을 뜨세요, 자, 봐요.》

한우의 손바닥위에 그 무엇인가가 놓였다. 빨가닥거리는 종이봉투에다 무엇인가를 넣고 다시 천으로 꾹꾹 싼것이였다.

《이건 뭐요?》 한우는 속으로 물으며 얼굴을 처녀한테로 쳐들었다.

《꽃씨예요.》 처녀는 장난기가 싹 가셔진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했다.

《원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한우동지에게 아무런 문양도 그림도 없는 그 하얀 손수건에다 영원히 지지 않고 계속 피는 꽃을 내손으로 수놓아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철따라 이르게 피는 꽃과 늦게 피는 꽃, 하루나절 짧게 피는 꽃과 백날동안 오래오래 피는 꽃은 있어도 영원히 지지 않고 계속 피는 꽃은 없었어요. 생각하다가... 이 손수건에다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여러가지 꽃씨들을 골라

쌌어요. 이른봄날의 효성화, 늦은 봄의 금전화, 한여름의 분꽃, 여름부터 가을까지 백날동안 피는 백일홍, 가을국화...

가서 심고 가꾸세요. 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다시 봄부터 가을까지! 아니, 왜 그러세요?»

처녀는 이야기하다말고 겹질린듯 말을 그쳤다.

한우가 부르르 몸을 떨며 벌떡 일어선것이였다.

《아니, 아니요. 그저 너무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싶어서...》

가슴한복판으로 불물같은것이 물큰물큰 흘러드는것을 뜨겁게 느끼며 한우는 맥락이 닿지 않은 말마디를 두서없이 뱉다말고 벽을 더듬더듬 짚으며 문계로 향했다. 문이 손에 닿자 열고 복도에 나섰다. 그때까지도 등뒤에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전갈으면 한우가 일어설 기척만 보여도 얼른 손을 잡고 일어서 따라서군하던 그- 한없이 세심하고 부지런한 윤옥영이었던건만! 복도벽을 따라 몇걸음 옮겼을 때에야 《한우동지!》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گوش끝같이 아슴푸레 들렸다.

...

한우는 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싶었다. 그 처녀가 자기의 눈으로 보아온 많고많은 녀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자신의 망막속에, 아니 자기의 심장속에 남아있는 녀성이라고 소리치고싶었다. 그러면... 야릇한 흥분을 느끼며 손수건을 꺼내들려다가... 그만 멈춰 굳어졌다. 티없이 흰 이 손수건에다 그가 수놓으려 했던 영원히 지지 않고 계속 피는 꽃이란 바로 자기, 그 어디에 가서든지 생의 의욕과 신심을 잃지 말고 혁명의 붉은 꽃을 계속 피워가는 자기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쑥 뜰때문이었다.

정말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참, 대학시험을 쳤다던데 무슨 대학이요?》

옆의 기자가 묻는 말에 한우는 아귀 센 쇠집게처럼 단번에 온 심혼을 꽉 틀어잡은 그 생각에서 풀려났다.

《교원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무슨 과목?》

《미술입니다.》

《그림?!》 잠자코 있던 화가가 큰소리로 받아 외우더니 동업자다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그림에 취미가 있었소?》

《학교때부터 좀...》

《군대에 나가서도 계속 그렸소?》

《예, 그저...》

한우는 대답하기가 힘들어 숨을 후- 내쉬었다. 침묵이 깃들었다. 처음의것과는 성질이 다른, 아쉬워하는 마음이 짙게 깔린... 하지만 한우로서는 더욱 견디기 어려운 침묵이었다.

《글쎄 이제 그림 그리기는 곤란하겠지만...》

힘들게 뱉 화가의 말을 기자가 똑 잘랐다.

《왜, 거 있잖소? 전신마비로 침상에 누워서 불갈

은 시를 써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영예군인시인.》

《이름난 역사물작가도 있지. 눈을 보지 못하면서 구술로 대장편력사소설을 집필한...》

한우는 자기에게 힘과 고무를 주고저 큰소리로 주고받는 그들의 의미심장한 대화말에 깔린 속말을 생각해보다가... 문득 바다로 나간 안해를 기다리며 서투른 솜씨로 고기그물을 뜨고앉았을 복면 어촌의 그 영예군인생각이 떠올랐다. 그도 자기와 다름없는 아니,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안고있었을수도 있다. 축구선수가 되려고 했다던지, 온 나라를 메주밧듯하는 지질학자가 되려고 했다던지, 그러다가 전연에서 적들과의 치열한 접전끝에 다리를 잃자...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바다가에 나와 일손을 잡은것이다. 그렇다! 하여 그는 자기의 행복을 잃지 않았다. 자기의 행복을 지켰다.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창조해가고있으며 누리고있다. 그런데 나는?

한우는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자 눈앞이 금시 흰해지는데다더니 담당간호원 윤옥영의 얼굴이 우렁이 그려졌다. 《췌, 조용하세요.》 하고 그 녀자는 손가락을 입가에 세워보인다. 무엇인가 말할듯말듯 하면서도 처녀는 말이 없다.

《이제 중대에 가면, 가서 전우들을 만나고 오면 내 가슴속의 이 어둡어둡한 구석이 말끔히 가셔질 거. 응, 옥영이? 동물 만나고오면 시들해진 나의 녀에서 봄날의 꽃같이 아름답고 싱싱한 꽃이 피여날 수 있을까? 응, 대답해주요.》

상상속의 처녀를 농칠세라 똑바로 응시하며 한우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처녀는 방긋이 웃기만 할뿐 대답이 없다. 《알고계시면서 제게 묻는군요.》 하고 그 웃음은 말하고있다. 그래그래, 나는 알고있다, 알고있어! 훈련과 근무, 수송전투로 바빠 달리고 있을 그들과 아무런 할일도 목적도 없는 나사이엔 그 어떤 공허가, 심각한 부조화가 생기기라는것을! 그래선 텅빈 마음을 채우지 못한채 집으로 돌아와 또다시 어머니앞에 마주앉게 된다면?

심상해 앉아있는 아들을 보기가 속이 좋지 않다며 멀리 앞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던 어머니의 타이름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되살아올랐다.

《어머니!》

한우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어머니를 불렀다.

《나에게 앞을 바라볼 눈이 있어요. 나는 눈을 잃지 않았어요. 나를 둘러싼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눈이에요. 저 담당렬차원동무랑, 이 기자선생이랑 내앞의 소년이랑 그리고 옥영동무랑... 난 그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나란히 내 인생의 끝점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가겠어요...》

《다음 서게 될 역은...》

판에 박은듯이 단조로우면서도 활기차게 울리는 렬차원의 목소리에 귀속을 울리던 어머니의 음성도

눈앞에 떠올랐던 그림속의 처녀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놓아버린 살갗이 그의 뇌리속으로 줄달음치던 생각도 딱 떨어버렸다.

《...렬차는 이 역에서 20분간 서게 됩니다.》

순간 한우는 그 누구의 부름이라도 받은듯 벌떡 일어섰다.

《전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아니? 종착역까지 가신다니니?!》

알림말을 마치고 돌아서던 렬차원이 벗어났다.

《원산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산가자면 아직 멀었어요. 날이 새까매져야 돼요.》 앞의 소년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아니다. 난 다 왔다. 여기서 내려야 한다!》

한우는 소년의 손을 꼭 잡고선채 기자들쪽을 향하여 말했다.

《여기에 제가 시험을 친 대학이 있습니다. 늦긴 했지만 받아준다면... 있는 힘껏...그런데 받아줄까요?》

《받아주고말고. 입학통지서까지 받았다면서? 참, 그건 가지고왔소?》

《집에 두고왔습니다. 당초에 대학에 갈 생각을 버렸던거니까요. 그런데 잡자기...》

《일없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영예군인이 아니요. 가시오. 당당하게 가시오!》

누군가 뒤에서 걸걸하는 소리로 명령하듯 웨쳤다. 모두들 그 말을 긍정해나섰다.

한우는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누군가가 앞서 걷고 누군가의 손이 그의 팔을 잡고 따라섰다. 뒤를 따라서는 술한 발자국소리와 함께 흠에 내려서자 어느새 달려왔는지 돌격대책임자가 그를 붙잡았다.

《자, 목말 타고. 개찰구까지 모셔다드리겠소.》

《아니, 아니, 난 동지들을 바래주고 내 발로 걸어서 가겠습니다. 내 발로!》

《혼자 갈수 있겠소?》

돌격대책임자의 근심어린 물음에 한우는 입가에 밝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홀로라니요? 어디 가든 동지들같은 좋은분들이 있는데...》 하는 뜻의 미소였다.

《글쎄 그림은 못그린다쳐도 공불 해서... 여느 선생은 얼마든지 할수 있을거요.》

화가가 아가 차안에서 못다한 말을 다시 했다.

한우는 그의 손을 더듬어잡고 얼굴을 들었다.

《공부가 안되면... 영예군인공장엘 가렵니다. 가서 무엇이든 손에 잡고 힘껏 일하렵니다.》

《생각 잘했소.》 기자가 그의 손을 더듬었다.

《꽃은 계속 피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잊지 마오. 그러면 동무나 내나 누구나 다 행복할거요.》

《누구나 다요?!》

《동무도 병사생활을 했으니 체험해보았겠지만 강행군을 하느라하면 그런 때가 있지. 목에서 단내가

확확 나고 당장 그자리에 주저앉고싶은 그런 때가... 체육에서는 그런걸 극한점이라고 하던가, 바로 그 극한점을 이겨내야 하는거요. 사람이 살아가느라하면 누구나 그런 극한점, 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때가 있는거요. 그것이 육체적시련이나 정신적고통,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앞을 내다보아야 하고 미래를 믿어야 하며 그것을 향해 중단없이 전진해야 하오. 자기에게 미래가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의지로 힘과 용기를 가다듬어 난관을 이겨내면 승리자로 영원히 행복하게 되지만 맥을 놓고 주저앉아 좌절당하면 영원한 패배자로 불행하게 되는 법이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요. 아직은 고난도 있고 어렵지만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에로 돌진해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 그걸 말해주고있지 않소!》

땡- 땡땡-

떠나기를 재촉하는 기적소리가 길게 울렸다. 뒤이어 칙- 칙익- 하고 제동호수의 김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호르래기소리가 곳곳에서 련발했다.

《어서들 타십시오.》

한우는 누구에게랴없이 소리쳤다.

스르륵- 렬차가 미끄러져가기 시작하는 소리.

《잘 가요!》

《않지 마세요. 군대삼촌!》

《안녕히 가십시오. 군대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동지!》

귀전을, 심장을 때리는 목소리들이 목을 짝 메우는 바람에 한우는 답례의 말대신 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했다. 기차가 달리며 일구는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날렸다.

《잘들 가십시오. 궤도로로 힘껏 달리는 이 렬차에 저도 함께 타고 가는줄로 믿어주십시오!》

달그닥 달그닥 달그닥...

천천히 멀어져가는 차구름소리를 이윽도록 여겨들던 한우는 제식동작이라도 하듯 뺨 돌아섰다.

이른여름, 늦은오후의 누르끼레한 햇빛이 엇비스듬히 내려앉은 개찰구가, 그앞에선 짧고 어여쁜 개찰원처녀가 그리고 그 옆 넓다란 공지너머 저녁해빛에 함뿍 젖은 흰 화강석의 현지도비며 그 앞, 하얀 나무울타리를 산뜻하게 두른 화단에 피어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선명한 화폭으로 안겨왔다. 울타리옆에 아름다리 황철나무 한 그루가 마치 호위병마냥 푸른 아지를 높이 띄우고 서서 좌- 좌- 설레인다. 지금은 초여름... 무르녹은 해빛속에 모든 생명들이 왕성하게 잎을 펼치고 열매를 키우는 계절이다.

한우는 병사시절 그날처럼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나서 앞을 곧추 바라보며 사열행진이라도 하듯 발을 높이 쳐들고 힘차게 내짚었다.

병사 계속 앞으로!

사랑과 증오

랑호신

백사장의 모래알갱이들이 발밑에 눌릴 때마다 사박사박한다.

광현이 그 소리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발을 들이라치면 어느새 모래판에는 큼직한 신발자리가 꼭 찍히곤하였다.

마치 생의 흔적이라도 남기듯이 전쟁의 포화는 멀리로 사라진듯싶었다.

산촌의 그윽한 정서를 깨칠가봐 저어하듯 조심조심 출렁이는 검푸른 바다의 물갈기소리의 짝을 비집고 숨새어나오는 특유한 발걸음소리의 출처는 찾을수 없었다.

광현은 그럴수록 발목에 힘을 주며 걸음걸음 내짚었다.

어느새 그렇게 남긴 발자국은 백사장 저끝으로 이어져갔다.

이렇게 조금만 더 걸으면 산자드락에 접어든다. (예라, 좀 쉬었다 가자.) 광현은 기관단총을 돌려메고나서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폭신한 담요에 앉듯 엉덩이가 모래무지속에 잠겨든다.

순간에 그의 눈앞엔 일망무제한 바다가 은구슬금구슬을 뿌리며 사물사물 안겨왔다.

문득 해방후 그 시절이 떠오른다.

책가방을 방에 던지기 바쁘게 참대로 만든 낚시대를 들고 어머니의 지청구를 뒤에 남기며 바다에 나오면 이렇듯 명멸하는 바다구슬이 그의 눈을 쏘프리게 하곤하였다.

뿌듯한 가슴에 일렁이는 심장을 달래며 낚시에 미끼를 꿰고 바위우에 앉아 낚시줄을 물에 잠그고 있느라면 기다렸다는듯 투둑거린다.

(야, 이거 벌써...)

광현은 힘껏 낚시줄을 끌어당긴다.

그러면 하늘중천에 떠오른 가지같은 노루메기가 푸들쩍거리는가싶는데 어느새 백사장에 철썩 떨어져 강동강동 울리편다.

광현의 심장도 몸밖으로 튀어나갈듯 푹떡거린다.

(꽤나 큰데!)

낚시대를 쥔광현은 허겁지겁 달려가 두손으로 노루메기를 부둥켜친다.

그때의 기쁨이란... 그러기를 몇번!

어느새 등실 뒀던 해는 바다가운데 솟아있는 섬

뒤로 숨박꼭질하듯 가웃거리며 사라지고 땅거미가 살금살금 다가든다.

그때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생각에 뒤질세라 야산등성이에서 《광현아!》하는 목소리가 정답게 들려온다.

《어머니, 가요!》

광현은 서둘러 낚시대와 물고기궤미를 들고 산등성으로 단숨에 달려올라간다. 그러면 어머니의 듣기 싫지 않은 나무람이다.

《애야, 넌 언제가면 철이 들겠니?》

《어머니두 참, 어부들도 다 철이 없나요.》

광현은 히물거리며 빈정거린다.

《그건 무슨 당치 않는 소리냐?》

《그들도 나처럼 물고기를 잡지 않아요.》

《호호호, 녀석두.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잡는단다. 그 일이 그 사람들의 본신임무이구. 내가 나라를 위해 농사를 짓는것처럼 말이다. 너야 학생이니만치 공부를 잘해야 하잖니.》

《알겠어요. 잘 해요.》

《에그 쫓쫓, 인내라!》

어머니는 광현이의 손에서 물고기궤미를 받아 쥐고 제먼저 헐썩헐썩 걷는다.

어머니의 등위를 정답게 바라보는 광현이의 입가엔 노상 웃음이 넘실댄다.

얼마나 좋은가! 더 바랄게 없는 고장이요 희열이 넘치는 향촌이다.

어느덧 등성이에 올라 낮은 고개를 넘은 그들은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벼바다끝에 자리잡은 집앞에 이르렀다.

설레이는 벼나락을 볼수록 손바닥이 근질거려난다.

광현은 손바닥에 뒹!하고 침을 뱉으며 낫을 찾아든다.

한바탕 알알이 여문 벼대를 한웅큼씩 쥐고 서걱서걱 겨끔내기를 해야 속이 시원할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은 여기에도 미친다.

《놔둬라. 그 일은 내가 할게 어서 공부나 해라!》

그 나날 광현은 마음속에 구김살 한점 없이 행복 한 생활을 누리는것이 어버이장군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것을 미처 다 알수 없었다.

그저 받아안아들이면 된다는것을 자기의 권리처럼 여겼다.

공부! 공부! 조국이 해방되기전에는 공부라는 말조차 외울수 없었던 외양쇠가 공부보다도 고기잡이를 더 즐겼으니 어머니 말마따나 철두 없긴 없었지.

지금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올랐다.

광현은 사위를 휘둘러봤다.

부지불시에 그때처럼 등성이에서 던지는 어머니의 지청구가 들려오는상심었다.

《애야, 너는 집에 오지 않고 거기서 뭘하고있냐?》

(그렇지, 집에 가야지.)

광현은 모래바닥에 폭 박혔던 엉덩이를 훌쩍 빼며 제잡담 일어섰다.

광현은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을 지척에 둔 무명고지탈환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 지휘관들과 동무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다. 전투기록장을 펴들고 앞으로 전투에서 더 용감히 싸울 마음속 결심을 적어놓고있을 때 중대장이 그를 찾아와 고향이 멀지 않은곳인데 부대가 이동하기전에 어머니를 만나보고오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집으로 가고있었다.

광현은 기관단총을 다시 앞에 총하고 발걸음을 성큼성큼 떴었다.

등성이에 올라 낮은 고개만 넘어 서면 집이다.

미제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위훈을 세우고 온 아들을 만나는 어머니의 마음 오죽이나 기쁘랴!

생각할수록 초조해지는 마음이 한걸음에 열걸음, 백걸음을 달리고싶었다.

(어머니, 광현이가 왔어요. 원수놈들과의 대결에서 이 아들이 공훈을 세웠어요.)

그는 앞가슴에서 철렁이는 훈장이며 메달들을 새삼스러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별스럽게 몇개 안되는 훈장과 메달이 가슴가득 차넘치게 커보였다.

광현은 어깨를 으쓱이며 앞가슴에 목직한 기관단총의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등성이에 올라 낮은 고개만 넘어서면 아담한 고향마을이 한눈에 안겨올것이다.

산턱에 접어든 광현은 발걸음을 더 넓게 내짚었다. 단풍든 등성이는 다색단처럼 아름다웠다. 걸음을 날려 굽인돌이를 막 둘러던 광현은 저도 모르는 새 우뚝 섰다.

뜻밖에 야무진 총성이 울리고 그의 귀전으로 총

알 지나가는 소리가 아즈럽게 들렸던것이다.

뒤미처 광현은 재빠른 동작으로 바위뒤에 몸을 숨겼다.

사격자세를 취하고 총소리난쪽을 살폈으나 적은 보이지 않았다.

정말 뜻밖의 정황이었다.

(어떤놈일가?)

광현은 총질한놈을 찾기 위하여 시선을 쉽없이 옮겼으나 놈은 좀체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때 저쪽 바위뒤에서 놈의 석심한 목소리가 들렸다.

《외양쇠!잘 있었나?》

(아니, 네놈이?!)

광현은 대번에 지주놈의 아들 흑보를 알아보았다. 허우대가 크고 앞가슴이 짝 벌어진 사각형의 흙빛얼굴!

일생토록 빼에 사무친 철천지원수였다.

광현은 전투마다에서 원수놈들을 흑보로 생각하고 섬멸의 총탄을 안기였다.

그런데 그놈을 여기 고향에서 만날줄이야!

광현으로서는 실로 뜻밖이었다.

그러나 광현은 해방된 해에 흑보가 지주인 아버지를 따라 남조선으로 도망간후 피뢰군에 들어가 장교까지 되어 옛세상을 되살리기 위해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더우기 광현이가 참가한 무명고지전투장에 흑보놈이 앞장섰다는것을 알수가 없었다.

흑보놈은 지금 패주하면서 오매불망 잊지 못하고있던 땅속에 묻어둔 장도칼과 문패를 가져가기 위해 생쥐처럼 광현의 고향에 기여들어 목적을 성취하고 제놈의 부대를 찾아 달아나던 참이었다.

헌데 천만뜻밖에도 여기에서 제놈의 옛머슴을 만날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재수없게 저놈을 여기서 만나다니.)

흑보는 순간 심장이 후두둑 뛰었다.

《흑보, 네놈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광현은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바싹 힘을 주며 흑보를 노려봤다.

흑보의 사각형얼굴이 잠시 이지러지는듯싶더니 살기뽀 웃음을 띠었다.

《거 말버릇 고약하다. 나이로 보나 체통으로 보나 내가 너보다 한참 형인데 감히... 외양쇠!》

흑보의 눈에선 퍼런 불꽃이 번뜩이었다.

《하... 야, 이놈아! 쫓겨다니는 주제에 속은 살아서... 그래 왜 왔겠지?》

《내 땅을 돌아보려 왔됐다. 네놈들이 얼마나 파먹었나 보려고말이다.》

《내 땅? 이놈아, 그게 어디 네 땅이야?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란 말이야. 그리고 둘도 없는 나의 고향이고!》

《고향? 머슴살이고향말이나. 하긴 그것도 고향은 고향이지. 내 이제 너에게 그런 고향을 다시 안겨 주마. 어때? 좋지?》

흑보는 입을 삐죽이며 이죽거렸다.

광현은 순간 방아쇠가 저절로 당겨지는것을 가사로 참았다.

해방전의 이가 갈리던 치욕이 주마등같이 눈앞을 스쳐지나갔다.

(흑보, 이놈아! 그래 너의 그 더러운 세상이 되살아날상싶어그래. 어렵도 없어. 그따위 세상은 이미 없어진지가 옛날이야.)

(내가 이제 저따위 머슴하고 맞서야 하는가! 내 발밑에서 굽신대던 저런것한테까지...)

흑보는 생각할수록 분통이 치밀었다.

(이놈아, 내 총알맛이 어떤가 좀 보라!)

흑보는 악에 받쳐 권총사격을 연방 하였다.

광현이가 의지하고있는 바위에 놈이 쏜 총알이 돌가루를 날린다.

광현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흥, 네놈이... 행악질을 해!)

광현이가 기관단총으로 놈을 향해 연발사격을 했다.

흑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총알이 놈의 팔을 스쳐지나갔던것이다.

한참 공공거리던 흑보가 바위우에 대가리를 반쯤 내밀었다.

《외양쇠! 우리 서로 말로 하자. 총질을 하면 어차피 둘다 죽을수 있으니말이다. 누구든 살아서 이 땅의 주인이 돼야 할게 아닌가!》

《흥, 이놈아! 그따위 잡꼬대같은 수작은 그만 쳐. 이미 우리는 땅의 주인이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피흘리며 이 땅을 지켜 싸우는거야!》

《그렇단 말이지! 좋아, 누가 땅의 주인이 되나 두고보자. 야!》

흑보의 외마디 고향소리에 이어 다른 바위뒤에서 《예!》 하는 두놈의 대답소리가 난다.

광현이 얼핏 일별하는 순간 그놈들의 총구가 자기를 노리고있는것이 보였다.

《저놈을 생포하라! 내 기어코 저놈을 끌어다가 다시 머슴을 삼을테다.》

흑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광현이쪽으로 총알이 비발치듯 날아들었다.

광현은 놈들의 음흉한 속심을 제격 짐작했다. 화

력으로 자기를 제압하며 포위환을 형성하자라는것이였다.

(그렇게는 안될걸! 네놈이 나를 이전의 머슴인가 하는 모양이지.)

광현은 놈들을 향해 맞받아 불질을 하다가 날쌔게 몸을 날려 다른 바위로 옮겼다.

순간 사격좌지가 광현에게 유리해졌다.

광현은 흑보의 옆바위에 엮드려있는 줄개놈이 피딱 눈에 띄는 순간 지체없이 연발사격을 했다.

놈이 비명소리를 지르며 언덕밑으로 굴러내렸다.

《야, 이 외양쇠새끼야!》

줄개의 죽음을 본 흑보가 악에 받쳐 소리지른다.

(그러면 그렇지!)

광현이 어깨를 으쓱하며 다음 목표를 찾으려는 순간 놈들이 쏘는 총알이 날아와 연속 바위를 물어 뜯는다.

광현이 바짝 땅에 몸을 붙이고 바위쥔으로 흑보의 줄개를 찾았다. 이어 동료의 죽음을 보고 겁에 잔뜩 질려 마구 총질을 하고있는 줄개놈이 또 보였다.

광현은 바위쥔으로 총구를 내밀고 놈을 겨냥한채 빙아쇠를 지그시 당겼다.

《으악!》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뒤를 이어 흑보가 《네놈이!》 하고 웨친다.

잠시 총성이 멎었다.

《흑보, 이제 손을 드는게 어때?》

광현이 먼저 말을 건넸다.

(뭘 나리가 머슴한테 손을 들어? 어렵도 없는 수작말야!)

흑보가 약이 올라 광현이를 향해 연방 권총방아쇠를 당겼다.

어지러운 총성이 메아리쳤다.

갑자기 흑보의 권총에서 《절컹!》 하는 소리가 났다.

《엉?》 흑보는 총알이 없는 권총을 들여다보더니 광현이를 향해 쉼뚝했다.

그리고는 피춤에서 시퍼런 칼을 빼들었다. 당황해한 흑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였다.

놈은 허겁지겁 광현이를 향해 달려왔다.

바위뒤에서 나선 광현은 허둥거리는 흑보를 향해 총구를 겨냥했다.

(흑보, 너무 덤비지 말라구. 어차피 죽겠는데... 네놈이 그렇게 동경하는 세상은 저승에나 가서 누리라구.)

광현은 흑보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그의 기관단총에서 《절컹!》 하고 격침만 나간다.

광현은 그제야 자기도 어지간히 총을 쏘다는 생

각이 들었다.

《응? 하... 외양쇠, 대단한걸! 빈충가지고 자세가 너무 요란하지 않아. 이놈아, 내 칼을 받으라!》

흑보가 칼을 추켜들고 광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

그것은 창도칼이었다.

해방전 흑보가 그 칼에 마른 소똥을 껴서 광현의 입에 물리려고 하던 칼이었다.

광현은 순간 온몸에 서리치는것을 느꼈다.

(네놈이? 이 악마야.)

광현의 사려문 입에서 뿌드득 소리가 났다.

광현은 한쪽으로 날썰게 몸을 비키며 흑보의 칼 쥔 손을 발로 들이쳤다.

흑보의 손에서 떨어져나간 칼이 저만치 나떨어졌다.

《야, 이놈이 보통이 아닌걸!》

흑보가 겁에 질린 소리를 냈다.

그들은 서로 노려봤다.

광현은 눈에서 불기둥이 쏟아져나가는 감을 느꼈다.

《쳐죽일테다. 철천지원썩!》

광현은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그러쥐었다. 온몸이 쇠덩어리처럼 단단히 굳어졌다.

(저놈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아무러면 뭐래. 단매에 게저품을 물게 할테다. 죽은놈이라도 머슴으로 만들테야.)

흑보는 온팔에 힘을 집중했다.

서로의 눈길에서 뿜어져나오는 불소나기가 엇갈려 지나갔다.

그들은 한걸음두걸음 다가섰다.

흑보쪽에서 거친 숨소리로 씨근덕거렸다. 광현이가 달려들어가며 소리질렀다.

《야, 이 철천지원썩놈아!》

광현의 주먹이 번개같이 흑보의 턱밑으로 날아들었다. 그 순간 광현은 눈에서 불이 병곳 이는것과 함께 흑보의 《외양쇠놈의 새끼야!》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광현은 흑보의 뒤통수에 정통을 맞았던것이다.

광현이 비칠거리는 몸을 가가스로 유지했을 때 땅바닥에 나자빠졌던 흑보가 벌떡 일어서며 그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둘은 엎치락뒤치락거리며 서로 주먹질을 해댔다.

그러던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언덕아래 백사장으로 나뉘었다.

다시 둘사이의 격전은 치열했다.

맞고 때리고 덩굴고 차고...

광현은 흑보의 육체적힘이 황소같다는것을 느꼈다.

흑보는 입에 게저품을 물고 미친개처럼 으르릉거렸다.

흑보는 입에 닿는대로 물어뜯었다.

광현의 군복이 너털거렸고 팔과 다리의 이곳저곳에서 피가 흘렀다.

차고 때리고 받고... 이제는 둘 다 기운이 빠질대로 빠졌다. 평시라면 눈섭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거센 숨소리만이 엇바뀌 들리었다.

귀속은 웅웅 벌떼소리가 나고 눈앞의 산촌은 채바퀴돌듯하였다.

모래판에 퍼더버리고앉아 저마끔 쏘보는 그들의 뇌리엔 류다른 생각들이 갈마들었다.

광현이가 열두살 나던 해였다.

마가을인지라 흑보네 고간에는 천정에 닿게 벼가 마니들이 가득 찼다.

하지만 광현의 주린 배속은 변함이 없었다.

노상 꼬르륵소리가 나고 앞뒤가 달라붙은 허리는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온종일 벼가마니를 실어들이느라 온몸이 노근해진 광현은 외양간에 쪼그리고앉아 김이 문문 나는 여물을 호함스레 먹는 황소를 선망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휘익- 불 때마다 구수한 소여물 냄새가 창자를 못견디게 자극했다.

(차라리 황소로 태어났으면 좋았겠어.)

하염없는 한숨이 외양간이 차고넘치게 흘러나왔다.

아버지 없는 어머니의 불쌍한 얼굴이 떠오르고 가공한 자기의 처지가 황소보다도 못하게 느껴졌다. 눈물이 물큰 솟아 두볼에 고랑을 낼듯 쭈르륵 흘러내렸다.

때긴 손등으로 눈물을 닦을수록 설음이 터져나왔다.

《어머니, 난 어쩌면 좋아요.》

《음매!》 하는 소영각소리가 그의 애절한 마음을 키질한다.

하지만 어쩌랴! 그것이 광현의 인생인데.

어쩔수 없다는 생각에, 또 밤새워 벼가마니를 실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광현은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여물을 다 먹은 황소가 허바닥으로 궁이를 훑고 있다.

소고삐를 시름시름 풀던 광현은 궁이 한쪽 귀퉁이에 몇알의 콩이 묻혀있는것을 보았다. 불시에 목

것이 꿈틀한다.

광현은 몇알의 콩을 집어 입에 넣었다. 이때였다. 마루우에서 흑보의 패지먹따는듯한 소리가 벼락같이 들렸다.

《이새끼, 소여물을 다 훔쳐먹으면 소는 굶어죽으란 말이야?》

흑보의 발길이 광현의 얼굴에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광현은 흑보가 안기는 모진 매를 이를 사려물고 참았다.

절대로 그놈에게 잘못했다고 빌붙고싶지 않았다.

그렇수록 흑보가 안기는 못매는 가혹했다.

온몸이 소통에 뒤범벅이 된 광현은 크지 않은 두 주먹을 그러건채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한참동안 범이라도 잡을듯 펄펄 뛰던 흑보는 피춤에서 장도칼을 꺼내여 마른 소통을 꼭 찢러 광현이앞에 내밀었다.

《이놈아, 이걸 먹어. 소가 콩을 먹고 싹짓이기에 문에 콩이나 갈애!》

흑보의 기상은 푸르딩딩했다.

《... ?!》

광현은 흑보를 쏘았다. 그의 눈에선 두줄기 증오의 불꽃이 쏟아져나갔다.

《왜 쏘봐? 먹으라는데... 자 어서 먹어.》

흑보는 소통을 쥔 장도칼을 광현의 코앞에 내밀었다.

광현은 여전히 흑보를 쏘았다.

《좋다. 네가 정 못먹겠다면 내가 먹여주지.》

흑보는 광현이에게 와락 달려들어 그의 입술을 우악진 손으로 잡아당기며 장도칼에 꿰어진 소통을 들이밀었다.

광현은 순간 구역질이 왈칵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빈속에선 별로 나올것이 없었다.

《이 더러운 새끼야!》

흑보가 손에 묻은것을 털어버리며 광현에게 또다시 못매를 안기였다...

광현은 번개치듯 확확 지나가는 생각을 털어버리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네놈이 아직도 그런 허황한 꿈을 꾸!)

광현은 흑보를 향해 침을 뱉! 내뱉었다.

(안된다. 안돼!)

또다른 생각이 눈앞을 지나간다.

흰쌀밥을 타발할 때 소여물을 먹던 시절을 잊었는가고 타매하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 그 모습!

공부는 하지 않고 놀음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돌

아치는 그를 앞에 세워놓고 옥끝에 안타까와 저고리고름을 눈가에 가져가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 그 모습!

황금이삭 설레이는 고향의 벌, 아담한 집!

광현은 또다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안된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속에 활짝 꽃피난더없이 귀중한 보금자리이다. 네놈이 어찌고 어찌!)

광현은 온몸에 힘을 모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흑보의 뇌리를 치는 생각!

(외양쇠! 네놈이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겠다구?

흥, 어림도 없다. 이번에도 너의 그 허바닥으로 내 발바닥을 핏게 할테다.)

흑보는 이마살을 찡그리며 일어섰다.

이 찰나 광현의 《앗!》 소리가 울리고 그의 모듬발로 흑보의 앞가슴을 들이쳤다.

흑보가 《아!》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자빠졌다.

흑보가 정신차릴사이 없이 광현의 뒷타격이 또 들이닥쳤다.

《외양쇠! 내가 졌다. 그만하자!》

《이놈아, 씨름인줄 알아. 죽기전에 푹푹히 기억하라. 이진 우리 땅이야. 장군님께서 주신 땅이란 말이야!》

광현은 흑보를 타고앉아 그의 면상에 연방 주먹세례를 안겼다.

싸움은 끝났다.

광현은 시체가 된 흑보의 옆에 앉았다. 파도소리가 썩! 하고 들려온다.

하늘은 푸르고 산발은 울긋불긋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었다.

광현은 숨을 돌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흑보의 앞섰을 쥐고 잡아끌었다.

어떻게나 육중한지 흑보의 시체는 끄떡도 안했다. 재차 힘을 주어 당기자 흑보의 앞섰이 와드득 뜯어지며 작은 널판대기가 나왔다.

흑보네 문패였다.

광현은 비로소 흑보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나타났는지 짐작이 갔다.

그것을 한손에 움켜쥔 광현은 흑보를 산기슭까지 끌어갔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삭정이를 주어다 흑보의 시체우에 올리쌓았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서 이그러진 성냥을 꺼내여

드득 불을 질렀다.

그런 광현은 문패도 흑보의 시체우에 집어던졌다.
마른 삭정이는 휘발유같았다.

이윽고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른다. 흑보의 시체가 타고있었다.

광현은 하늘높이 날아 사라지는 검은 연기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너같은놈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한치도 없어.》

타래치던 검은 연기는 얼마후 흰 연기로 되더니 초불마냥 사그라졌다.

그것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그는 또 중얼거렸다.

《네놈이 꿈꾸는 세상은 저렇게 연기처럼 사라질게다.》

광현은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기관단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그런 다음 등성이를 향해 씨엥씨엥 걸음을 다그쳤다.

등성이에 오르니 그리 높지 않은 고개가 눈앞에 보였다.

저 앞고개만 넘으면 것처럼 그립던 고향마을이 한눈에 안겨올것이다.

《어머니!》

광현의 눈앞엔 어머니가 열성스레 벼를 베고있는 모습이 보이는것 같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구름속에서도 고향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변함이 없을것이다.

광현은 어머니의 그 심정이 신통히도 자기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더 짙어지는것 같았다.

한걸음에 달려가 어머니의 포근하고 따사로운 품에 안겨 한껏 애무하고싶은 생각이 불같이 타올랐

다.

조국해방전쟁은 치열하고 원썬들의 발악은 극한점에 이르렀으나 어버이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한없이 따사롭고 자애로왔다.

그 사랑, 그 자애로운 품속에서 인민들은 원썬놈들의 침략으로 나라가 동란을 겪고있으나 행복한 그 생활을 잃지 않으려고 굳게 살아간다.

어머니 역시 조국해방전쟁전이나 전쟁이 가렬한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런 자각과 의지로 살아가고 있을것이다.

(그 사랑을 지켜야 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가. 행복만을 누리려고 하다니. 그 행복을 안겨주는 사랑을 지켜야 해. 원썬놈들이 그 사랑, 그 행복을 빼앗자고 이를 사려물고 으르렁거리는데...)

광현은 어버이품,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리라는 마음이 산악처럼 가슴속에 치솟는것을 느꼈다. 어버이품을 지켜야 한다. 한시각도 원썬치는 전선을 리탈해서는 안된다.

이 땅우에서 원썬들을 강그리 소멸해버린 다음 어머니를 만난다면 행복의 무아경이 온몸을 휩쌀것이다.

홀린듯 한식경이나 어머니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던 광현은 천천히 돌아섰다.

온길로 몇발자욱 옮기던 그는 머리를 돌려 어머니가 있을 마을쪽을 눈뿌리가 빠지게 바라보았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등성이를 내린 광현은 백사장에 들어섰다.

울 때의 발자욱과는 반대쪽으로 발자욱이 나란히 찍혀진다.

그는 지금 전선으로 가고있었다.